

발간등록번호

11-B552745-000025-10

ISSN 2799-8061

이 연구결과는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기관/ (주) 에스에이컨설팅

2021. 11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윤지성((주)에스에이컨설팅 공동대표)

참여연구자 : 이재호((주)에스에이컨설팅 공동대표)

한송연((주)에스에이컨설팅 연구원)

송민주((주)에스에이컨설팅 연구원)

전혜원((주)에스에이컨설팅 보조연구원)

## 제 출 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2020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1

(주)에스에이컨설팅

공동대표 이 재 호, 윤 지 성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방향	1
제2절 주요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년 4월 제출)	2
제3절 연구구성	5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6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6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13
1. 사회적기업의 분포	13
2. 사회적기업 지원금	16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35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35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6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42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50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74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81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87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87
1. 매출액	87
2. 영업이익(손실)	105
3. 당기순이익(손실)	113

제2절 지출: 비용구조 분석 .....	127
1. 매출원가 .....	127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	133
3. 영업외비용 .....	138
4. 노무비 .....	143
제3절 기타 성과지표 .....	153
1. 노동생산성 .....	153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	156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	172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	176
제1절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비교 분석 .....	87
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비교 .....	176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	178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	179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 비교 .....	180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의 비교 .....	180
6. 비용구조: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	181
참고문헌 .....	182

## 표 목 차

<표 1-1>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	5
<표 2-1>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유형 .....	7
<표 2-2> 2020년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	8
<표 2-3>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9
<표 2-4> 사회적기업 주요 금융지원 세부내용 .....	10
<표 2-5>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0년) .....	10
<표 2-6>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지원 정책(2020년) .....	12
<표 2-7>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	14
<표 2-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	15
<표 2-9>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	20
<표 2-10> 지역별 지원금 .....	22
<표 2-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	24
<표 2-1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	27
<표 2-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	28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	31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	34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 수급자수 .....	38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	39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41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42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 .....	44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	47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48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49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49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	53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및 지역인구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	56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7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8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9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0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63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5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8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70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73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	75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76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	78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	79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	83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금액 .....	84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금액 추이 .....	86
<표 4-1> 지역별 매출액 .....	97
<표 4-2>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	111
<표 4-3>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18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21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25
<표 4-4>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	131
<표 4-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	132
<표 4-6>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	136
<표 4-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	137
<표 4-8>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	141
<표 4-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	142

<표 4-10>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	146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	147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49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52
<표 4-12>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	154
<표 4-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	155
<표 4-14>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	157
<표 4-15>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8
<표 4-16>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9
<표 4-17>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9
<표 4-18>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160
<표 4-19>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161
<표 4-20>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161
<표 4-21>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	162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63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69
<표 5-1>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	172

## 그림목차

[그림 1-1] 2020년 사업보고서(2020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	3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	13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	17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	18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	19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	20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	21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6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	37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추이 .....	40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	43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	46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	51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	51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2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4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5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2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4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6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7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	74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 .....	80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인원 비율 .....	81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	82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	82
[그림 4-1] 매출 총액 .....	87
[그림 4-2] 매출액 분포 .....	88
[그림 4-3]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8
[그림 4-4] 공공매출 총액 .....	89
[그림 4-5]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 .....	89
[그림 4-6]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90
[그림 4-7] 민간매출 총액 .....	90
[그림 4-8]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 .....	91
[그림 4-9]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91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분포 .....	92
[그림 4-11] 연도별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92
[그림 4-1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 .....	93
[그림 4-13]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93
[그림 4-14] 연도별 민간매출액 분포 .....	94
[그림 4-15]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94
[그림 4-16]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5
[그림 4-17]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5
[그림 4-18]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6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	99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	100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	100
[그림 4-22]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	101
[그림 4-23]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	102
[그림 4-24]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	102
[그림 4-25]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	103
[그림 4-26]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	104
[그림 4-27]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	105
[그림 4-28]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	106
[그림 4-29] 영업이익 분포 .....	107
[그림 4-30]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08
[그림 4-31]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분포 비교 .....	109
[그림 4-32]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09
[그림 4-33]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10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12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12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13
[그림 4-3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	114
[그림 4-38]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	114
[그림 4-39]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15
[그림 4-40]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	115
[그림 4-4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16
[그림 4-4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16
[그림 4-4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	117
[그림 4-4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9
[그림 4-4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9
[그림 4-4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20
[그림 4-4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	127
[그림 4-48] 매출원가 분포 .....	128
[그림 4-49]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	128
[그림 4-50] 연도별 매출원가 분포 비교 .....	129
[그림 4-51]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	129
[그림 4-52]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	130
[그림 4-53]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	133
[그림 4-54]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	134
[그림 4-55]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	134
[그림 4-56]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	135
[그림 4-57]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	135
[그림 4-58] 영업외비용 총액 .....	138
[그림 4-59]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	139
[그림 4-60]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비율 .....	139
[그림 4-61]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	140

[그림 4-62] 연도별 노무비 금액 .....	143
[그림 4-63] 노무비 분포 .....	144
[그림 4-64]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	144
[그림 4-65] 노무비 분포 비교 .....	145
[그림 4-66]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	145
[그림 4-67]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	153
[그림 4-68]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7
[그림 부1-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	177
[그림 부1-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	177
[그림 부1-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	178
[그림 부1-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	179
[그림 부1-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	179
[그림 부1-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	180
[그림 부1-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 비교 .....	181
[그림 부1-8]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	181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방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라 큰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2017년에는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기념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확산의 주체로서 활동한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공유했으며(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외, 2017), 논의 되었던 사회적기업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면서(대한민국정부, 2020) 더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성과분석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과 변화는 사회적기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길현중 외, 2020).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8)은 본 성과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기업 성장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과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석의 결과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2019년에 사회적기업의 등록제로의 전환 추진은 진입장벽을 낮춰 양적성장과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자 추진되었으나 동시에 위장 사회적기업 진입 및 사회적기업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등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존재하여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도 논의 중에 있다<sup>1)</sup>. 이에 따라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책들 안에서 사회적기업들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1)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2119>

확산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경기 악화가 진행되었고, 중소기업 및 다양한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로 인한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하였다(김진영·서지애, 2020).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과와 정책들과의 연결성 보다는 위기 상황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및 기존의 자원·역량에 따라 지표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석 및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2020년 성과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2020년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충실하게 보고하여 비교가 용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주요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2021년 4월 제출)

본 성과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주요자료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이 중 2018~2020년 성과를 기술하여 2019~2021년 4월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원자료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양식은 총 네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길현중 외, 2013, 2018), 본 연구에 활용된 사업보고서는 2017년 개편되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오프라인 양식은 [그림 1-1]과 같다.

2021년 4월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2,738개소이다. 한국사회적기업 내부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2,777개소로 확인되며,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비율은 98.6%로 계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에 충실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2020년 사업보고서(2021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	변경 [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일자리 제공형 [ ] 지역사회 공헌형 [ ] 혼합형 [ ] 기타형 [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 「민법」에 따른 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 [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농(어)업회사법인 [ ] 영농(어)조합법인 [ ] 기타 [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이사회	임원 등 명	근로자 명	수혜자 명	지역사회 명	기타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 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정부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그림 1-1]의 계속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 원		공공시장	천 원			
				민간시장	천 원			
	매출총이익	천 원		매출원가	천 원			
	영업이익	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			
	영업외수익	천 원		노무비	천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 원		영업외비용	천 원			
	당기순이익	천 원		법인세 등	천 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p>「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p>								



### 제3절 연구 구성

언급한 연구방향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추가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표 1-1>의 순으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 및 정책 현황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표 1-1>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방향</li> <li>· 주요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년 4월 제출)</li> <li>· 연구의 구성</li> </ul>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제도</li> <li>·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분포,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li> </ul>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고용</li> <li>· 사회서비스 제공</li> <li>· 민주적 의사결정구조</li> <li>· 사회적 목적 재투자</li> </ul>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li> <li>· 지출(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li> <li>· 기타성과지표(노동생산성, 비취약계층 고용)</li> </ul>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li> </ul>

##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제2장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의 개요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정리한 후,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을 사업보고서 분석결과를 활용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후자인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는 조직특성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성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것이다.

###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sup>1)</sup>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본 고의 연구대상인 인증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영업초엽 등이 모두 포함된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7). 다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체로 언급되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를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체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2020;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0).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정의와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공식 규모를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본 표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규모와 관련한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증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한 규모를 제시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수리·인가 조직 전체를 제시하고, 소셜벤처의 경우는 제시된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을 탐색해 조직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 통계 체계에서 제시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체 규모의

총합이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라 보기는 어렵다.

<표 2-1>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유형

조직유형 (중앙부처)	정의	규모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등)	<p>인증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p> <p>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p> <p>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www.socialenterprise.or.kr).</p>	<p>인증 3,142개소 (활동기준; 2021년 11월) (www.socialenterprise.or.kr)</p> <p>예비 1,783개소 (2021년 10월; www.seis.or.kr)</p>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p>일반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p> <p>사회적협동조합: 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p>	<p>일반 18,388개소 사회적 3,438개소 (수리·인가기준; 연합회 제외; 2021년 11월 일; www.coop.go.kr)</p>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p>“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안전부, 2020: 1)</p>	<p>1,652개소 (2020년 12월; www.mois.go.kr)</p>
소셜벤처 (중소기업벤처부)	<p>“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중소기업벤처부, 2020: 1)</p>	<p>1,509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판별된 기업; 2020년)</p>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p>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보건복지부, 2020a: 113)</p> <p>예비자활기업: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보건복지부, 2020a: 80)</p>	<p>1,062개소 (2020년 9월, www.kdisw.or.kr)</p>

<표 2-2> 2020년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 대학 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150만 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소셜벤처 경연대회	- 총 2억 원의 상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창업준비팀, 창업 2년 미만의 초기창업팀, 재도전 창업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후지원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공간 제공, 상시상담, 교육, 자원연계, 협업지원 등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업개발비	- R&D, 마케팅, 브랜딩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 (사회적기업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연 5천만 원 이내, 단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경영컨설팅	- 전문컨설팅 기관으로부터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비용지원	
	사회보험료지원	- 4년간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	
	판로지원	- 상품 진단 및 개선 지원 - 홈쇼핑, 백화점, 박람회 및 e-store 36.5+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한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확산	
	금융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 자금으로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례보증 등 지원	
	민간자원 연계 프로그램	- 공공-민간의 연계 기반 조성, 참여기업 발굴 등	
기타	용자지원	- 다양한 용자제도를 연계,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장	
	프로보노지원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영 자문 또는 지역사회 협력 연계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a: 31.

다음으로 <표 2-2>~<표 2-4>는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내역 및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 진입 전 지원, 진입 후 지원, 그 외의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 중에는 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융자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이외의 지원은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모두에 지원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금융지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금융지원이 여러 전달체계 주체 통해 지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3>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 지원내용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월 200만 원/ 250만 원 한도 (인증 2,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50%	인증: 연 1억 원 예비: 연 5천만 원 한도 * 자부담 10/20/30%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산정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주: 1.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

2.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0: 8.

<표 2-4> 사회적기업 주요 금융지원 세부내용

사업명	내용	주체
미소금융	-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정부 핵심 정책 분야 지원 시책으로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상시 특별 보증 운영	지역 신용보증재단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a: 38.

다음으로 <표 2-5>는 2020년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b). 본 표에 의하면 2020년 총 16개 중앙부처에서 56개의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처에서 각자 여러 종류의 사회적경제 조직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표 2-5>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2020년)

중앙부처	사업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li> <li>•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li> <li>• 사업개발비 지원</li> <li>•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li> <li>• 모태펀드</li> <li>•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li> <li>•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li> <li>•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li> </ul>
중소기업벤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li> <li>•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li> <li>• 소셜벤처 육성</li> <li>• 소셜임팩트 펀드</li> <li>•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지원</li> <li>•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li> <li>•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li> <li>• 예비창업패키지</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문화학교 운영</li> <li>• 스포츠클럽육성</li> <li>•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li> <li>•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li> <li>• 관광두레 조성</li> <li>•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li> </ul>

&lt;표 2-5&gt;의 계속

중앙부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혁신성장(R&amp;D)</li> <li>•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화)</li> <li>• 사회적경제혁신타운</li> <li>•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li> <li>•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지원</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업 활성화지원</li> <li>•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li> <li>•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li> <li>•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협동조합 활성화</li> <li>• 인문사회연구소(문제해결형) 지원</li> <li>•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li> <li>•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 육성</li> <li>•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i> <li>• 지역자산화 지원사업</li> <li>•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li> <li>•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li> <li>•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원</li> </ul>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li> <li>•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li> <li>• 농촌 교육·문화·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li> <li>•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li> <li>• 신제품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li> </ul>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li> <li>•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활용확대</li> <li>•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li> </ul>
기획재정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활성화</li> <li>•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li> <li>•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li> <li>•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li> <li>• 어촌뉴딜300</li> </ul>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b.

다음으로 <표 2-6>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기업 주요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김진영·서지애, 2020). 본 표에 의하면 2020년 총 4개 중앙부처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지원금 지급이나 규제 완화, 방역물품 지원 등이 있다. 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공동판로 개척 및 협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대면 판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지원 정책(2020년)

중앙부처	사업	대상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li> <li>▪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 지원금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행정처분 면제</li> <l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지자체 배정예산의 20% 범위 내)</li> <li>▪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li> <li>*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 지급</li> </ul>	사회적기업
중소기업벤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li> </ul>	협동조합 및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 입력기한 유예</li> </ul>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도 마을기업 지정 시, 한해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토지·건물 임차료 사용 가능(20→30% 확대)</li> <li>▪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li> <li>▪ 마을기업 제품 판촉을 위한 '상생장터' 권역별 개최</li> </ul>	마을기업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기업에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및 사업장 방역 소독 지원</li> <li>▪ 피해기업에 대해 한시적 인건비 지원, 긴급자금대출 등 자활기금 적극 집행 독려</li> <li>▪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자체별 자활기업 명단 공유 및 구매 촉구</li> </ul>	자활기업

자료: 김진영·서지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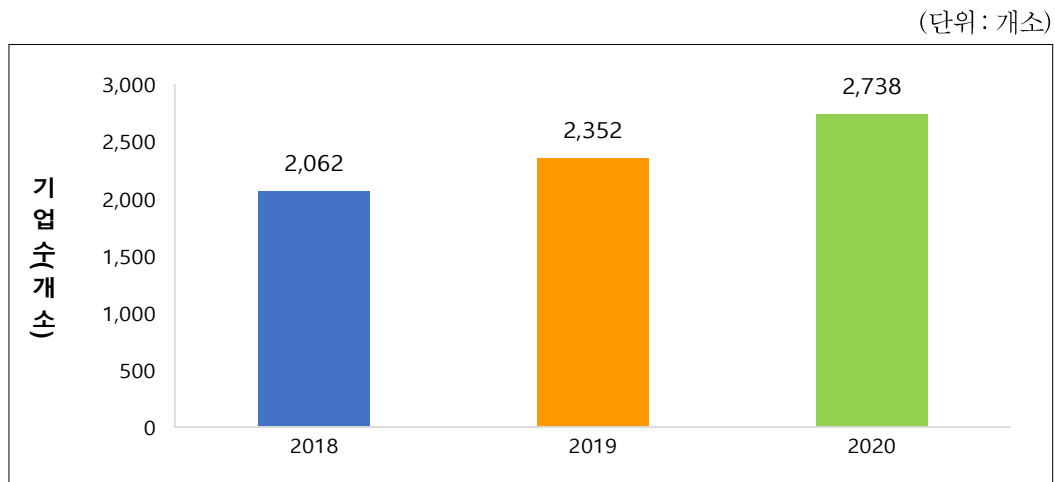
##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이하에서는 2020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다.

### 1. 사회적기업의 분포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제1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2,738개소로,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포함된 사회적기업보다 386개소 증가했다.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사업보고서 제출 인증 사회적기업의 분포를 지역별로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서울(18.5%)과 경기(17.5%) 지역으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36.0%가 해당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기업이

가장 적게 위치한 지역은 세종(0.6%), 제주(2.3%), 대전(2.8%), 대구(3.5%), 울산(3.5%) 지역이며, 이외에 다른 지역은 4.0~6.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2-7>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서울	507	18.5
부산	136	5.0
대구	97	3.5
인천	168	6.1
광주	124	4.5
대전	76	2.8
울산	97	3.5
세종	16	0.6
경기	478	17.5
강원	150	5.5
충북	113	4.1
충남	110	4.0
전북	155	5.7
전남	151	5.5
경북	173	6.3
경남	125	4.6
제주	62	2.3
전체	2,738	100.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으로 <표 2-8>는 이들 인증 사회적기업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2013~2020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2,203개소(80.5%)로 2007~2012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인 535개소(1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lt;표 2-8&gt;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인증연도	2007	35	35	35
	2008	107	104	101
	2009	57	54	52
	2010	142	135	132
	2011	108	106	103
	2012	120	114	112
	2013	207	197	197
	2014	217	204	201
	2015	258	234	230
	2016	248	237	230
	2017	253	244	236
	2018	310	299	294
	2019	-	389	388
	2020	-	-	42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390	1,567	1,809
	사회서비스제공형	125	143	175
	혼합형	184	191	196
	기타(창의·혁신)형	243	301	349
	지역사회공헌형	120	150	20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72	308	280
	비영리민간단체	104	115	71
	사회복지법인	66	63	76
	상법상회사	1,301	1,469	1,80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9	10
	영농조합법인	77	74	9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36	314	394
	기타	1	0	0
전체		2,062	2,352	2,738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편,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인증 기업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폐업, 인증 반납 등의 사유로 해당 인증연도의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1,809개소(66.1%)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196개소, 7.2%)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73.2%까지 증가한다.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율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8년 및 2019년 역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앞서 인증유형의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법상회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66.0%인 1,808개소가 상법상회사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에도 상법상회사가 조직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법상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상법상회사의 설립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 요건이나 인적 구성이 요구되는데,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은 민법상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요건이 다소 낮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 초기에 상법상회사가 많았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선화 외, 2010). 한편, 2015~2020년 추세를 보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12월 시작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설립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 사회적기업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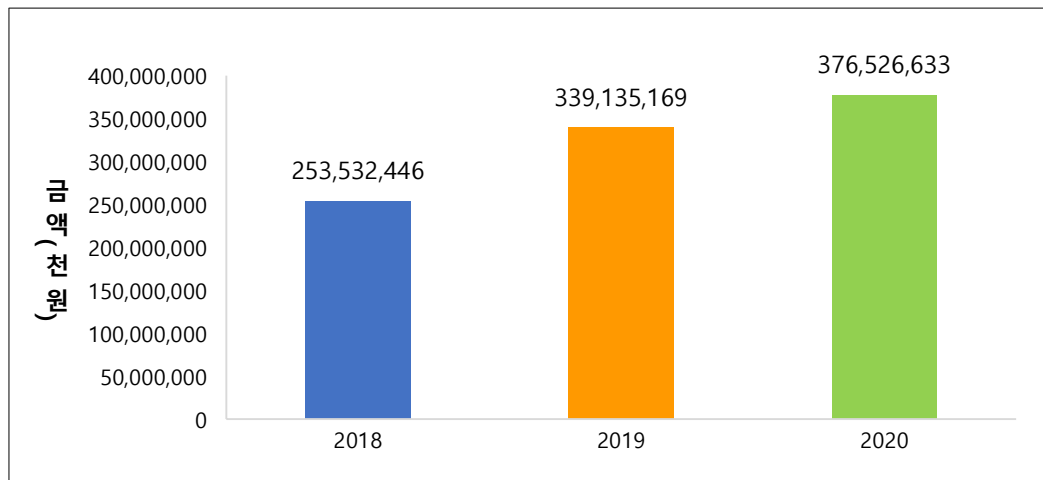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금 현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본 성과분석에서는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일반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순수한 지원

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금융지원은 제외한다. 정부지원에는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전문인력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은 제외하였다. 민간지원에는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영업외수익 금액이 포함되며 민간금융지원은 제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지원금 총액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2020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은 2019년 대비 약 11.0%증가한 3,765억 원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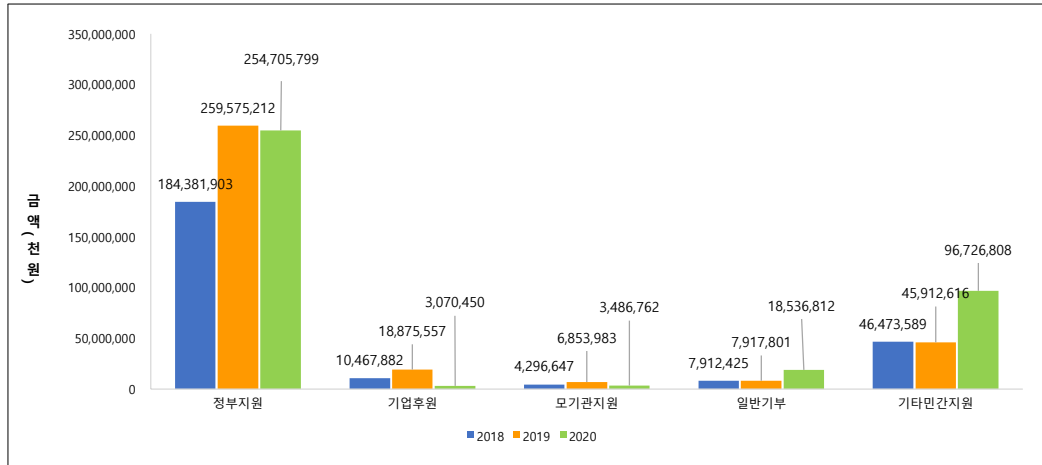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정부지원금 및 기타 민간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 전년대비 약 40.8%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9% 감소하였다. 기타 민간지원의 경우에는 2019년에 전년대비 약 1.2%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10.7%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업후원의 경우 2019년에 전년대비 약 80.3%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83.7% 정도 감소하였다. 모기관지원의 경우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59.5%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약 49.1% 정도 감소하였다. 그 외 일반 기부는 2019년에는 전년과 유사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34.1%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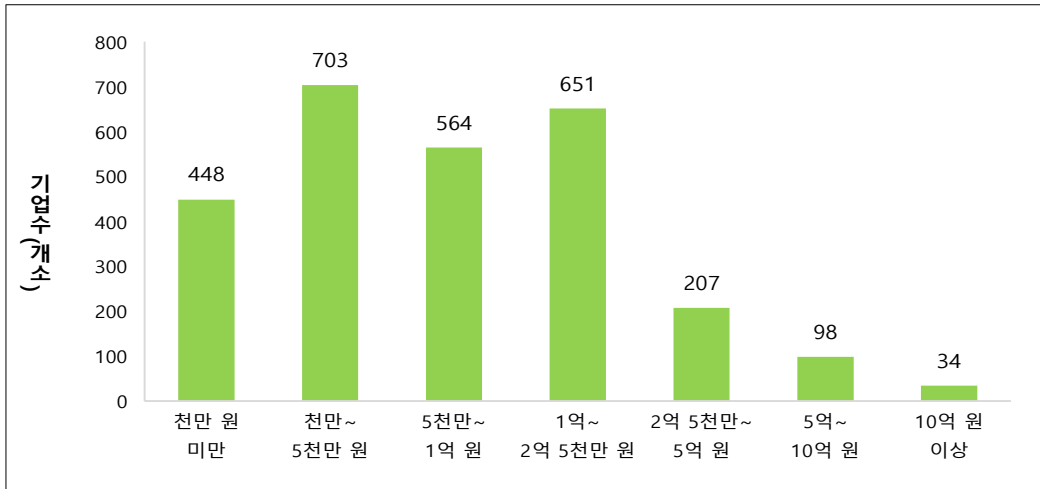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정부지원 2,003개소, 기업후원 42개소, 모기관지원 57개소, 일반기부 254개소, 기타 민간지원 2,698개, 총지원금 2,705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그림 2-4]는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금액 및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다. 사회적기업 중 2020년에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2,738개소의 98.8%인 2,705개소로 나타났다. 지원금 액수는 2019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중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는 기업이 703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은 기업이 651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은 기업이 564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정부지원 2,003개소, 기업후원 42개소, 모기관지원 57개소, 일반기부 254개소, 기타 민간지원 2,698개, 총지원금 2,705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으로, 지원금을 총지원금과 개별항목(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으로 구분한 뒤,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및 중위값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9>과 같다. 총지원금을 먼저 살펴보면, 2020년 총지원금 평균은 약 1억 3천9백만 원, 중위값은 약 6천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의 총지원금 평균 약 1억 2천4백만 원과 중위값 약 6천5백만 원, 2019년의 평균 약 1억 5천만 원과 중위값 약 7천2백만 원과 비교해 볼 때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2018년보다 상승하였으나,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기타민간지원(2,698개소) 다음으로 정부지원을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지원받고 있었는데(2,003개소, 74.0%), 정부지원금의 평균은 약 1억 3천만 원, 중위값은 약 6천9백만 원으로 다른 지원금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업후원, 일반기부, 모기관지원, 기타 민간지원의 순으로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후원의 경우 평균 지원금액은 2018년 약 7천4백만 원, 2019년 약 9천4백만 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약 7천3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중위값은 2018년 약 2천8백만 원에서 2019년 약 2천2백만 원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다시 2천 5백만 원으로 회복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2-9>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정부지원	109,621	61,095	128,949	68,477	127,162	68,875
기업후원	73,717	28,437	94,378	22,168	73,105	25,464
모기관지원	85,933	30,000	120,245	32,000	61,171	24,060
일반기부	31,650	13,108	28,077	11,719	72,979	12,424
기타 민간지원	23,098	3,902	25,465	3,885	35,851	5,795
총지원금	124,159	64,949	150,326	72,109	139,196	65,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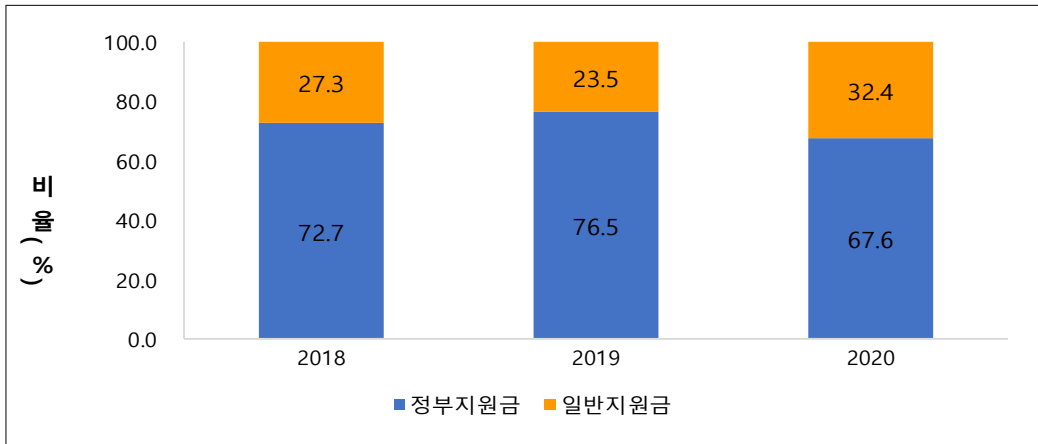
주: 총지원금을 제외한 세부내역은 실질 지원이 이루어진 유효수를 기준으로 분석(2020년 정부지원 2,003개소, 기업후원 42개소, 모기관지원 57개소, 일반기부 254개소, 기타민간 지원 2,698개, 총지원금 2,705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5]와 같다. 2020년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은 6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8년 72.7%에서 2019년 76.5%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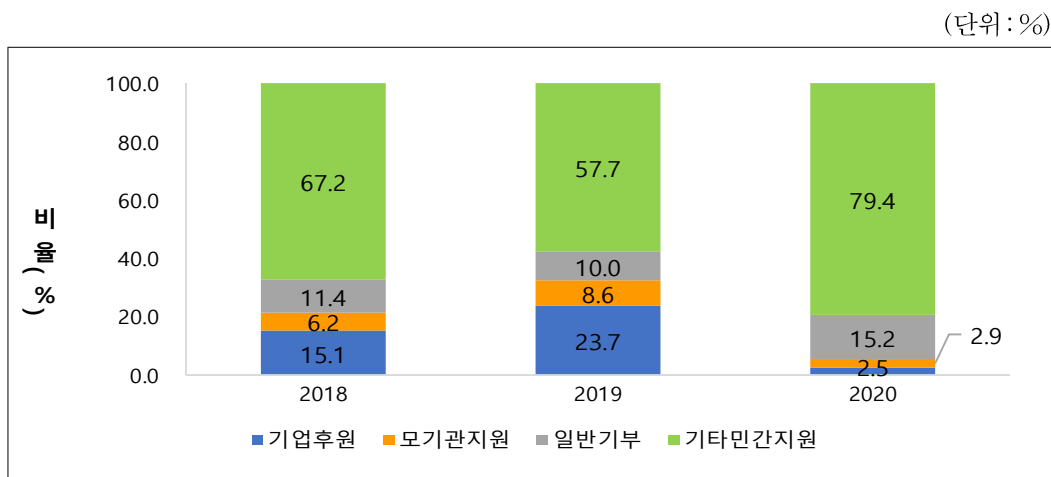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편, [그림 2-6]에는 정부지원 이외의 일반지원금의 비율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에서 기업후원이나 모기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기타 민간지원의 경우 2019년에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정부지원금비율과 일반지원금 구성비의 이러한 변화가 사업보고서 상 일반지원 항목의 자료처리와 관련된 것인지, 실제적인 변화, 예를 들면 최근 지속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의 평균 및 중위값을 지역별로 세분해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10>과 같다. 먼저 지원금 총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 수가 16개소로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인천이 약 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제주 약 2억 1천만 원, 경북 약 1억 9천만 원, 서울 약 1억 5천만 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경우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 약 2억 1천만 원, 경북 약 1억 7천만 원, 광주 약 1억 5천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후원은 대전 약 2억 1천만 원, 경기 약 1억 3천만 원, 제주 약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중위값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 간 기업후원의 편차가 큰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기부는 서울 약 1억 7천만 원, 경기 약 9천9백만 원, 대전 약 5천1백만 원으로 나타나 제주의 경우 정부지원과 기업후원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서울 지역에서는 정부지원보다는 민간지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지역별 지원금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서울	평균	130,291	71,890	78,172	173,509	36,554	151,929
	기업 수	352	13	14	58	501	502
	중위값	64,437	21,170	20,530	28,130	6,333	63,298
부산	평균	104,542	107,781	27,000	9,974	18,295	107,734
	기업 수	111	3	1	12	135	135
	중위값	68,750	126,205	27,000	5,759	4,435	66,569
대구	평균	111,894	55,261	291,687	3,893	16,766	125,618
	기업 수	87	4	2	5	97	97
	중위값	71,819	23,039	291,687	2,720	3,705	89,702
인천	평균	115,202	-	11,050	12,458	140,183	216,760
	기업 수	108	0	3	19	166	166
	중위값	49,250	-	8,000	3,000	4,796	39,105
광주	평균	147,530	38,897	171,704	16,767	28,651	141,448
	기업 수	89	2	3	9	123	123
	중위값	71,604	38,897	141,397	8,714	5,358	52,532
대전	평균	138,178	205,464	-	50,894	20,218	140,906
	기업 수	59	1	0	16	76	76
	중위값	99,389	205,464	-	21,824	2,830	70,222
울산	평균	113,805	-	44,168	14,374	19,908	119,080
	기업 수	80	0	2	9	94	94
	중위값	77,426	-	44,168	9,838	4,641	77,233
세종	평균	234,705	-	-	11,706	64,250	197,736
	기업 수	9	0	0	2	16	16
	중위값	158,340	-	-	11,706	20,418	136,307
경기	평균	111,515	129,778	41,799	98,861	35,036	121,440
	기업 수	310	4	12	52	470	471
	중위값	49,333	8,871	8,504	16,154	6,593	49,567

&lt;표 2-10&gt;의 계속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강원	평균	113,610	23,994	9,068	21,698	29,106	118,227
	기업 수	109	4	1	20	145	145
	중위값	56,286	16,520	9,068	10,811	6,669	63,759
충북	평균	136,573	95,524	16,182	21,260	30,598	111,951
	기업 수	65	1	2	5	112	112
	중위값	69,780	95,524	16,182	21,685	7,396	51,742
충남	평균	129,310	49,551	1	18,388	18,479	121,763
	기업 수	86	3	1	5	110	110
	중위값	79,047	5,000	1	18,434	6,080	74,820
전북	평균	119,239	-	92,929	23,952	14,459	114,055
	기업 수	123	0	2	9	149	151
	중위값	81,605	-	92,929	14,339	4,378	71,126
전남	평균	132,415	-	28	13,100	25,497	124,060
	기업 수	111	0	3	1	148	149
	중위값	99,886	-	4	13,100	5,635	79,139
경북	평균	170,608	22,568	15,381	33,258	30,762	185,292
	기업 수	153	3	6	16	171	173
	중위값	106,798	29,672	15,792	9,666	6,991	111,890
경남	평균	101,884	22,765	17,000	20,732	23,516	112,740
	기업 수	106	1	2	10	124	124
	중위값	66,231	22,765	17,000	18,346	4,287	69,273
제주	평균	207,646	119,493	96,700	39,705	46,461	214,180
	기업 수	45	3	3	6	61	61
	중위값	84,150	25,652	100,000	15,468	9,713	60,522
전체	평균	127,162	73,105	61,171	72,979	35,851	139,196
	기업 수	2,003	42	57	254	2,698	2,705
	중위값	68,875	25,464	24,060	12,424	5,795	65,19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으로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확인해 보면 다음 <표 2-11>과 같다. 먼저, 인증연도를 확인해보면 지원금 총액에 있어서 2015년 인

중기기업의 평균금액이 약 9천5백만 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2020년 인증기업의 평균금액이 약 9천6백만 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08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금을 받는 기업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의 지원금 총액의 크기가 약 1억 4천7백4십만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공헌형도 약 1억 4천7백만 원으로 지원금 총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다. 다음으로는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서비스제공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증유형별 평균 정부지원 금액의 경우 혼합형이 약 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유형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민간지원 내역에서는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지원금 총액의 평균이 약 6억 2천만 원, 중위값 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금 총액 평균이 약 9천7백만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2-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단위: 천 원, 개소)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연도	2007	평균	195,305	67,572	27,058	95,374	65,926	218,849
		기업 수	20	1	3	12	34	34
		중위값	54,690	67,572	27,448	9,846	5,542	60,253
	2008	평균	242,314	65,923	95,579	78,564	67,307	251,523
		기업 수	64	4	11	18	99	99
		중위값	60,530	67,566	71,050	29,589	12,122	69,678
	2009	평균	192,521	197,798	178,224	84,337	35,242	169,383
		기업 수	29	2	2	6	51	51
		중위값	43,765	197,798	178,224	34,840	5,940	29,901
	2010	평균	131,945	48,225	41,196	37,923	36,139	137,068
		기업 수	91	4	7	22	132	132
		중위값	53,310	24,558	31,887	26,499	7,042	54,050
	2011	평균	201,939	0	68,911	36,272	45,989	191,715
		기업 수	65	0	11	23	101	101
		중위값	70,864	0	30,150	18,900	9,665	60,486
2012	평균	150,315	13,882	16,000	11,898	33,235	136,746	
	기업 수	73	2	2	21	109	109	
	중위값	47,154	13,882	16,000	4,826	6,987	34,168	

&lt;표 2-11&gt;의 계속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13	평균	121,975	35,335	49,734	27,146	27,954	123,108
		기업 수	141	6	5	33	195	195
		중위값	56,816	20,510	25,000	8,000	5,682	49,396
	2014	평균	108,246	121,563	109,847	22,489	31,756	115,657
		기업 수	143	2	6	14	199	199
		중위값	44,747	121,563	12,365	8,445	9,038	43,016
	2015	평균	88,047	136,321	1,465	48,570	22,735	94,716
		기업 수	168	6	2	12	225	225
		중위값	47,839	75,368	1,465	13,896	6,672	47,493
	2016	평균	125,908	47,887	2,085	44,850	116,741	226,573
		기업 수	190	4	2	16	222	224
		중위값	68,115	13,672	2,085	11,166	6,665	65,140
	2017	평균	134,894	15,090	4	156,722	16,258	139,684
		기업 수	198	4	1	13	230	233
		중위값	85,375	12,112	4	14,117	4,110	81,524
	2018	평균	138,153	168,051	1	135,118	25,376	146,165
		기업 수	236	3	1	16	292	292
		중위값	93,193	159,914	1	20,305	5,977	95,279
	2019	평균	111,593	26,838	76	260,968	24,749	124,054
		기업 수	288	2	2	24	386	387
		중위값	77,712	26,838	76	12,261	4,075	71,126
	2020	평균	103,560	20,059	2,169	24,166	22,414	96,375
		기업 수	297	2	2	24	423	424
		중위값	80,368	20,059	2,169	10,871	5,109	67,086
인증 유형	일자리 제공형	평균	131,902	74,704	68,681	78,714	42,037	147,380
		기업 수	1,309	18	49	139	1,782	1,786
		중위값	68,875	27,204	25,000	11,035	6,976	64,747
	사회 서비스 제공형	평균	95,751	213,670	4,089	42,113	27,528	110,078
		기업 수	128	4	1	29	171	173
		중위값	48,938	173,913	4,089	18,434	6,594	65,550
	혼합형	평균	138,834	43,663	29,280	24,741	18,502	121,435
		기업 수	136	4	4	28	193	193
		중위값	62,994	37,064	23,034	6,116	3,940	45,445
	기타 (창의· 혁신)형	평균	109,468	32,048	1	61,601	27,753	116,635
		기업 수	258	13	1	33	344	345
		중위값	67,366	16,412	1	26,754	3,525	68,308

<표 2-11>의 계속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유형	지역 사회 공헌형	평균	131,773	93,264	77	145,944	19,186	147,039
		기업 수	172	3	2	25	208	208
		중위값	83,290	48,676	77	10,335	3,020	73,386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	평균	166,949	75,738	43,074	53,359	36,819	178,117
		기업 수	202	5	8	80	274	274
		중위값	80,504	67,572	20,665	10,827	5,968	84,460
	비영리 민간단체	평균	102,899	22,765	36,441	20,656	12,464	97,464
		기업 수	53	1	2	20	69	70
		중위값	59,567	22,765	36,441	14,555	2,065	41,604
	사회복지 법인	평균	572,314	4,870	99,535	60,665	107,898	615,382
		기업 수	57	1	29	42	75	75
		중위값	528,625	4,870	30,214	20,998	17,027	573,868
	상법상 회사	평균	98,165	61,787	11,546	22,753	36,527	108,170
		기업 수	1,281	29	15	28	1,784	1,789
		중위값	62,126	21,170	2,236	6,324	5,886	56,781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평균	79,812	52,454	-	18,619	31,671	114,334
		기업 수	9	1	0	3	10	10
		중위값	66,827	52,454	-	11,730	6,811	99,092
	영농조합 법인	평균	148,045	-	-	2,000	19,988	138,166
		기업 수	79	0	0	2	99	99
		중위값	101,296	-	-	2,000	8,127	98,691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평균	138,951	163,966	3,182	134,304	26,421	171,151
		기업 수	322	5	3	79	387	388
		중위값	80,225	160,819	477	14,076	5,079	80,946
기타	평균	-	-	-	-	-	-	
	기업 수	0	0	0	0	0	0	
	중위값	-	-	-	-	-	-	
전체	평균	127,162	73,105	61,171	72,979	35,851	139,196	
	기업 수	2,003	42	57	254	2,698	2,705	
	중위값	68,875	25,464	24,060	12,424	5,795	65,19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한편, <표 2-12>은 전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세부항목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확인한 결과이다. 중요도가 높은 정부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증연도의 경우 오래된 인증기업에 비해 최근 인증기업의 정부지원금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난 반면, 기업후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증기간이 오래된 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에도 대체로 정부지원이 6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단위: %)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일반 기부	기타	계
인증 연도	2007	52.5	0.9	1.1	15.4	30.1	100.0
	2008	62.3	1.1	4.2	5.7	26.8	100.0
	2009	64.6	4.6	4.1	5.9	20.8	100.0
	2010	66.4	1.1	1.6	4.6	26.4	100.0
	2011	67.8	0.0	3.9	4.3	24.0	100.0
	2012	73.6	0.2	0.2	1.7	24.3	100.0
	2013	71.6	0.9	1.0	3.7	22.7	100.0
	2014	67.3	1.1	2.9	1.4	27.5	100.0
	2015	69.4	3.8	-	2.7	24.0	100.0
	2016	47.1	0.4	-	1.4	51.1	100.0
	2017	82.1	0.2	-	6.3	11.5	100.0
	2018	76.4	1.2	-	5.1	17.4	100.0
	2019	66.9	0.1	-	13.0	19.9	100.0
2020	75.3	0.1	-	1.4	23.2	100.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65.6	0.5	1.3	4.2	28.5	100.0
	사회서비스제공형	64.4	4.5	-	6.4	24.7	100.0
	혼합형	80.6	0.7	0.5	3.0	15.2	100.0
	기타(창의·혁신)형	70.2	1.0	-	5.1	23.7	100.0
	지역사회공헌형	74.1	0.9	-	11.9	13.0	100.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9.1	0.8	0.7	8.7	20.7	100.0
	비영리민간단체	79.9	0.3	1.1	6.1	12.6	100.0
	사회복지법인	70.7	-	6.3	5.5	17.5	100.0
	상법상회사	65.0	0.9	0.1	0.3	33.7	1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2.8	4.6	-	4.9	27.7	100.0
	영농조합법인	85.5	-	-	-	14.5	1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7.4	1.2	-	16.0	15.4	100.0
	기타	-	-	-	-	-	-
전체		67.6	0.8	0.9	4.9	25.7	100.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표 2-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인증 연도	2007	264,292	165,830	212,156	30,197	8,350	497,582	202,257	106,647	54,561	21,571	218,849	195,305	67,572	27,058	95,374
	2008	174,321	154,596	190,500	96,128	55,402	218,664	175,456	250,635	100,314	41,536	251,523	242,314	65,923	95,579	78,564
	2009	173,270	178,212	66,409	39,077	62,681	155,603	178,680	93,653	109,716	31,217	169,383	192,521	197,798	178,224	84,337
	2010	134,973	95,422	100,589	49,091	26,219	130,071	123,186	71,759	58,102	24,019	137,068	131,945	48,225	41,196	37,923
	2011	137,803	128,009	27,221	31,233	25,775	179,545	163,588	50,643	42,606	29,579	191,715	201,939	-	68,911	36,272
	2012	154,252	155,980	16,338	27,635	32,839	151,076	147,227	31,529	45,744	16,779	136,746	150,315	13,882	16,000	11,898
	2013	98,397	80,943	66,857	29,186	28,162	106,922	92,313	100,620	54,856	24,118	123,108	121,975	35,335	49,734	27,146
	2014	93,326	85,218	36,999	191,667	23,148	122,627	106,008	35,047	202,635	20,072	115,657	108,246	121,563	109,847	22,489
	2015	108,513	96,086	106,795	-	26,135	177,827	181,096	93,935	3,600	19,124	94,716	88,047	136,321	1,465	48,570
	2016	145,574	130,841	54,591	5,000	40,450	166,997	140,344	26,584	315	37,659	226,573	125,908	47,887	2,085	44,850
	2017	122,634	108,073	33,837	1,431,600	22,652	152,265	125,154	35,308	2,763,475	11,421	139,684	134,894	15,090	4	156,722
	2018	96,335	90,404	35,029	40,779	24,356	141,550	122,108	38,369	19,003	49,375	146,165	138,153	168,051	1	135,118
	2019	-	-	-	-	-	113,875	94,437	215,253	70,918	24,431	124,054	111,593	26,838	76	260,968
	2020	-	-	-	-	-	-	-	-	-	-	96,375	103,560	20,059	2,169	24,166



&lt;표 2-13&gt;의 계속

구분	2018					2019					2020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일반 기부금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8,480	115,988	47,824	98,727	24,927	138,256	125,890	48,518	136,875	22,376	147,380	131,902	74,704	68,681	78,714
	사회서비스제공형	107,164	98,547	64,422	20,114	28,413	117,321	103,591	47,559	30,113	28,018	110,078	95,751	213,670	4,089	42,113
	혼합형	102,230	82,703	105,936	21,546	23,318	129,308	114,016	67,425	23,394	29,664	121,435	138,834	43,663	29,280	24,741
	창의·혁신형(기타)	132,870	102,562	121,162	15,985	64,996	238,239	174,506	154,745	114,823	44,901	116,635	109,468	32,048	1	61,601
	지역사회공헌형	107,580	100,353	25,800	7,713	19,924	160,361	113,432	431,053	22,075	29,146	147,039	131,773	93,264	77	145,944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82,260	131,717	142,025	154,135	47,112	225,606	136,313	229,459	458,402	30,601	178,117	166,949	75,738	43,074	53,359
	비영리민간단체	126,223	138,904	34,302	52,661	22,557	187,874	173,543	24,431	85,149	23,588	97,464	102,899	22,765	36,441	20,656
	사회복지법인	519,119	481,129	35,057	73,318	27,394	577,573	526,360	41,452	85,299	24,835	615,382	572,314	4,870	99,535	60,665
	상법상회사	88,515	83,413	57,117	35,740	14,605	112,969	108,247	43,471	32,983	15,832	108,170	98,165	61,787	11,546	22,753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102,238	55,282	119,585	15,985	-	90,457	56,053	42,246	-	54,174	114,334	79,812	52,454	-	18,619
	영농조합법인	141,104	101,518	-	-	4,000	113,158	117,977	10,000	-	4,000	138,166	148,045	-	-	2,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36,705	113,713	76,103	-	25,899	164,130	123,671	160,006	35,008	34,783	171,151	138,951	163,966	3,182	134,304
	기타	149,069	65,771	-	-	-	-	-	-	-	-	-	-	-	-	-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마지막으로 2018~2020년 총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 평균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비교해 보면 <표 2-13>와 같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볼 때, 전체 평균 지원금의 크기는 대체로 최근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금 평균 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인증기업들의 평균 지원금 액수가 적게 나타났다.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볼 때 전체 평균 지원금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약 1억 5천만 원, 사회복지법인인 약 6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대체로 평균지원금의 크기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인증유형별로는 2019년에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직형태별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매년 대체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조직형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에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표 부가분석 2-1>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2018~2020년 전체 지원금,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 지원금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부가분석 2-2>에서는 전체 지원금을 지역과 표준산업분류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지원금

###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8, 2019, 2020)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천 원, %)

		항목	2018	2019	2020
전체지원금	전체총액		253,532,446	339,135,169	376,526,633
	인증연도	2007	9,250,237	16,917,771	7,440,881
		2008	18,652,398	21,429,034	24,900,849
		2009	9,876,401	8,091,347	8,638,580
		2010	18,761,284	16,258,824	18,093,022
		2011	14,469,287	17,774,983	19,363,283
		2012	18,355,966	16,618,342	14,905,314
		2013	19,974,687	19,566,796	24,006,184
		2014	20,065,089	23,299,099	23,015,866
		2015	27,670,783	39,122,014	21,311,121
		2016	35,811,272	39,077,371	50,752,431
		2017	30,781,112	36,543,482	32,546,471
		2018	29,863,930	41,049,634	42,680,226
		2019	-	43,386,472	48,009,036
	2020	-	-	40,863,36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76,788,822	208,213,587	263,222,423
		사회서비스제공형	13,181,215	16,190,335	19,043,612
		혼합형	18,605,869	23,663,388	23,437,041
		기타(창의·혁신)형	32,154,521	68,136,217	40,239,293
		지역사회공헌형	12,802,019	22,931,642	30,584,26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48,663,320	63,846,357	48,804,231
		비영리민간단체	13,000,979	21,041,925	6,822,544
		사회복지법인	34,261,843	35,231,927	46,153,681
상법상회사		114,096,414	159,173,159	193,517,3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11,189	814,115	1,143,344	
영농조합법인		10,723,869	8,147,403	13,678,4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125,763	50,880,283	66,406,964	
기타		149,069	-	-	
정부지원금	전체총액		184,381,903	259,575,212	254,705,799
	인증연도	2007	3,979,924	5,460,948	3,906,118
		2008	11,130,933	13,510,114	15,508,145

		항목	2018	2019	2020
정부지원금	인증연도	2009	7,306,705	6,432,465	5,583,137
		2010	10,687,210	12,318,610	12,007,077
		2011	10,368,707	13,414,243	13,126,062
		2012	15,130,090	14,133,786	10,973,022
		2013	13,193,705	14,123,940	17,198,581
		2014	13,293,963	17,597,284	15,479,279
		2015	21,138,903	34,951,487	14,791,983
		2016	30,224,233	31,717,751	23,922,584
		2017	24,964,948	28,910,566	26,709,208
		2018	22,962,582	34,800,902	32,604,275
		2019	-	32,203,116	32,138,785
		2020	-	-	30,757,53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32,458,438	167,811,223	172,660,384
		사회서비스제공형	9,854,667	12,845,240	12,256,183
		혼합형	11,743,816	18,242,591	18,881,505
		기타(창의·혁신)형	19,486,869	45,022,481	28,242,750
		지역사회공헌형	10,838,113	15,653,677	22,664,974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9,241,187	34,759,747	33,723,706
		비영리민간단체	10,001,083	16,833,676	5,453,688
		사회복지법인	26,462,078	29,476,163	32,621,930
		상법상회사	87,583,220	133,360,819	125,750,1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21,127	504,476	718,312
영농조합법인		6,700,205	7,786,511	11,695,5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107,232	36,853,820	44,742,421	
기타		65,771	-	-	
		전체총액	69,150,542	79,559,957	121,820,833
민간지원금	인증연도	2007	5,270,313	11,456,823	3,534,762
		2008	7,521,465	7,918,920	9,392,704
		2009	2,569,696	1,658,882	3,055,443
		2010	8,074,074	3,940,214	6,085,944
		2011	4,100,580	4,360,740	6,237,221
		2012	3,225,876	2,484,556	3,932,291
		2013	6,780,982	5,442,856	6,807,602
		2014	6,771,126	5,701,815	7,536,586
		2015	6,531,880	4,170,527	6,519,138
		2016	5,587,039	7,359,620	26,829,847
		2017	5,816,164	7,632,916	5,837,263
		2018	6,901,348	6,248,732	10,075,950
		2019	-	11,183,356	15,870,250
		2020	-	-	10,105,82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4,330,384	40,402,364	90,562,039
		사회서비스제공형	3,326,548	3,345,095	6,787,428
		혼합형	6,862,053	5,420,797	4,555,536

		항목	2018	2019	2020
민간지원금	인증유형	기타(창의·혁신)형	12,667,652	23,113,736	11,996,543
		지역사회공헌형	1,963,906	7,277,965	7,919,28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9,422,133	29,086,610	15,080,524
		비영리민간단체	2,999,896	4,208,249	1,368,856
		사회복지법인	7,799,765	5,755,764	13,531,750
		상법상회사	26,513,194	25,812,340	67,767,2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0,062	309,639	425,031
		영농조합법인	4,023,664	360,892	1,982,90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018,531	14,026,463	21,664,542
기타	83,298	-	-		
지원금 비율	전체비율		0.06	0.07	0.16
	인증연도	2007	0.08	0.13	0.10
		2008	0.11	0.12	0.16
		2009	0.11	0.08	0.14
		2010	0.07	0.06	0.16
		2011	0.05	0.05	0.15
		2012	0.09	0.08	0.12
		2013	0.01	0.01	0.14
		2014	0.06	0.06	0.13
		2015	0.07	0.09	0.13
		2016	0.07	0.08	0.14
		2017	0.11	0.11	0.18
		2018	0.08	0.09	0.17
	2019	-	0.10	0.19	
	2020	-	-	0.1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0.07	0.07	0.14
		사회서비스제공형	0.09	0.10	0.23
		혼합형	0.11	0.12	0.18
		기타(창의·혁신)형	0.02	0.05	0.22
		지역사회공헌형	0.09	0.12	0.2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0.09	0.10	0.18
		비영리민간단체	0.22	0.20	0.29
사회복지법인		0.23	0.23	0.32	
상법상회사		0.04	0.04	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5	0.05	0.11	
영농조합법인		0.08	0.06	0.1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0.11	0.12	0.22	
기타	0.44	-	-		

주: 지원금 비율=전체지원금총액/(전체지원금총액+매출액총액).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 지역별,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0)**

(단위: 천 원, %)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I)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정부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I)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민간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I)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비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I)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제3장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사회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편익)창출의 성과는 경제적성과 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기업은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취업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2010년부터는 목적 유형별로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자<sup>2)</sup>, ② 고령자, ③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가정폭력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⑨ 결혼이민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범죄구조피해자, ⑫ 그 밖의 취약계층 등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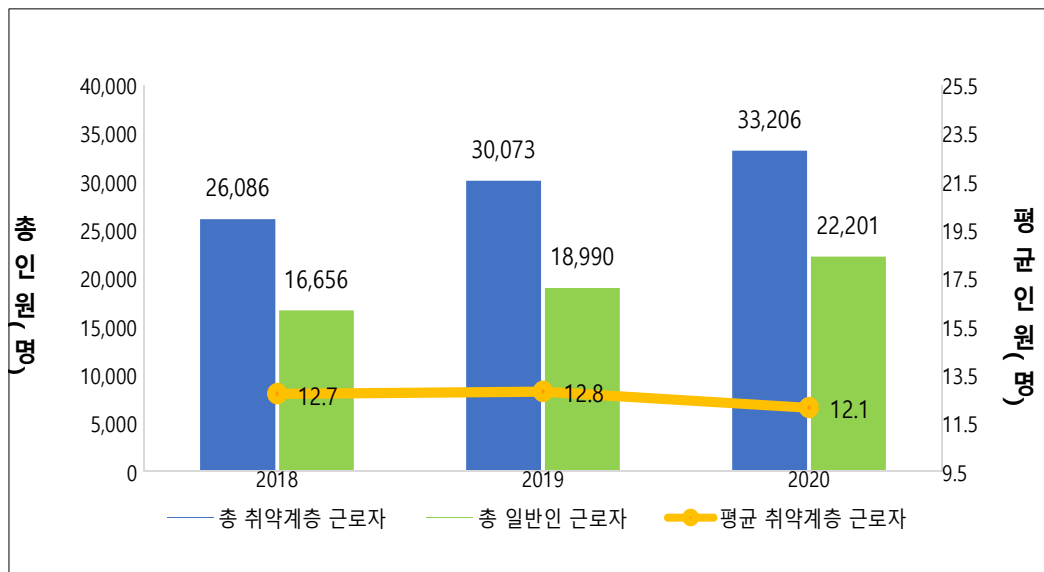
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8~2020년 취약계층 근로자 및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33,206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 수 55,407명의 5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총 취약계층 근로자는 2019년의 30,073명에 비하여 약 10.4% 증가하였고 총 일반근로자는 22,201명으로 2019년에 비하여 16.9% 증가하였으나 기업당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2.1명으로 2019년 12.8명에 비하여 5.5% 감소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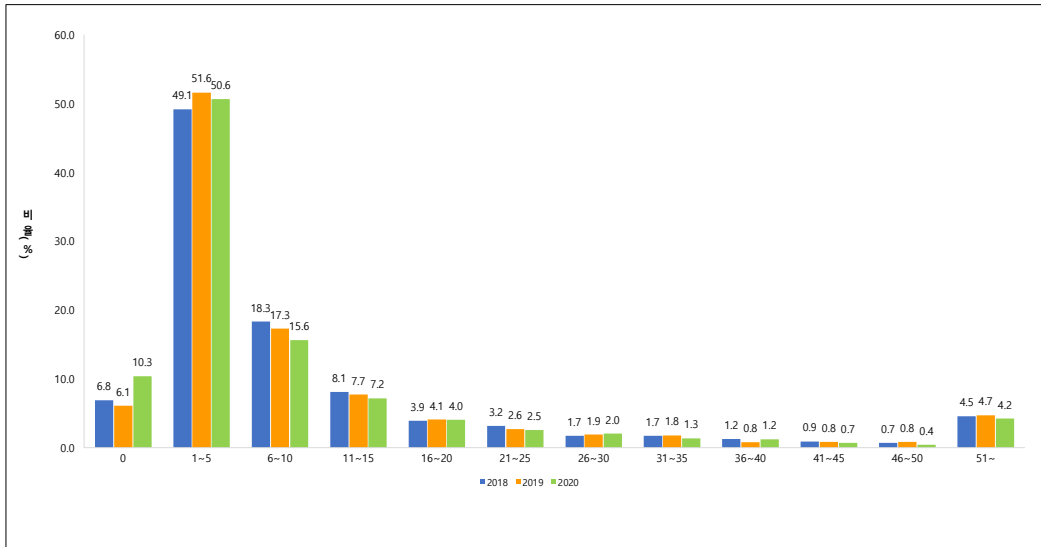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규모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 근로자 10인 이하 채용 기업의 비중이 약 76.6%에 달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회적기업이 약 6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인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4.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3-1>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취약계층 근로자 중 약 55.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지역의 경우 사회문제 수요도 크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역시 약 41.8%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해당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 수급자 수

(단위: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7,980	24.0	369,518	17.3
부산	1,423	4.3	196,299	9.2
대구	646	1.9	131,374	6.2
인천	1,859	5.6	142,628	6.7
광주	1,056	3.2	84,762	4.0
대전	734	2.2	66,775	3.1
울산	920	2.8	33,232	1.6
세종	571	1.7	7,107	0.3
경기	8,724	26.3	379,725	17.8
강원	1,727	5.2	78,554	3.7
충북	972	2.9	69,262	3.2
충남	989	3.0	75,720	3.5
전북	1,315	4.0	115,182	5.4
전남	859	2.6	92,666	4.3
경북	1,632	4.9	125,106	5.9
경남	1,200	3.6	137,605	6.4
제주	599	1.8	28,671	1.3
전체	33,206	100.0	2,134,186	100.0

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재구성.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보건복지부(2020b).

<표 3-2>와 [그림 3-3]은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규모의 경우 전체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고용 평균은 2019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년 인증기업의 평균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30.6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7년 27.6명, 2008년 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3-2&gt;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2007	1,327	37.9	1,314	38.6	967	27.6
2008	1,914	17.9	1,959	19.0	2,074	20.5
2009	1,478	25.9	1,747	32.4	1,591	30.6
2010	2,203	15.5	2,270	17.1	2,315	17.5
2011	2,184	20.2	1,992	19.3	1,632	15.8
2012	1,451	12.1	1,329	11.7	1,183	10.6
2013	2,514	12.1	2,709	13.8	2,585	13.1
2014	2,832	13.1	2,920	14.5	2,894	14.4
2015	3,198	12.4	3,324	14.3	3,266	14.2
2016	2,428	9.8	2,436	10.3	2,364	10.3
2017	1,919	7.6	1,900	7.8	1,827	7.7
2018	2,638	8.5	3,154	10.6	3,554	12.1
2019	-	-	3,019	7.8	3,341	8.6
2020	-	-	-	-	3,613	8.5
계	26,086	12.7	30,073	12.8	33,206	12.1

주: 2019년 평균유급근로자 수가 2008년 20.2에서 19.0, 2009년 34.3에서 32.4, 2010년 18.8에서 17.1, 2011년 21.4에서 19.3, 2012년 13.0에서 11.7, 2013년 14.7에서 13.8, 2014년 15.1에서 14.5, 2015년 14.9에서 14.3, 2016년 10.9에서 10.3, 2017년 8.2에서 7.8, 2018년 11.3에서 10.6, 2019년 8.3에서 7.8, 전체 13.7에서 12.8로 수정되었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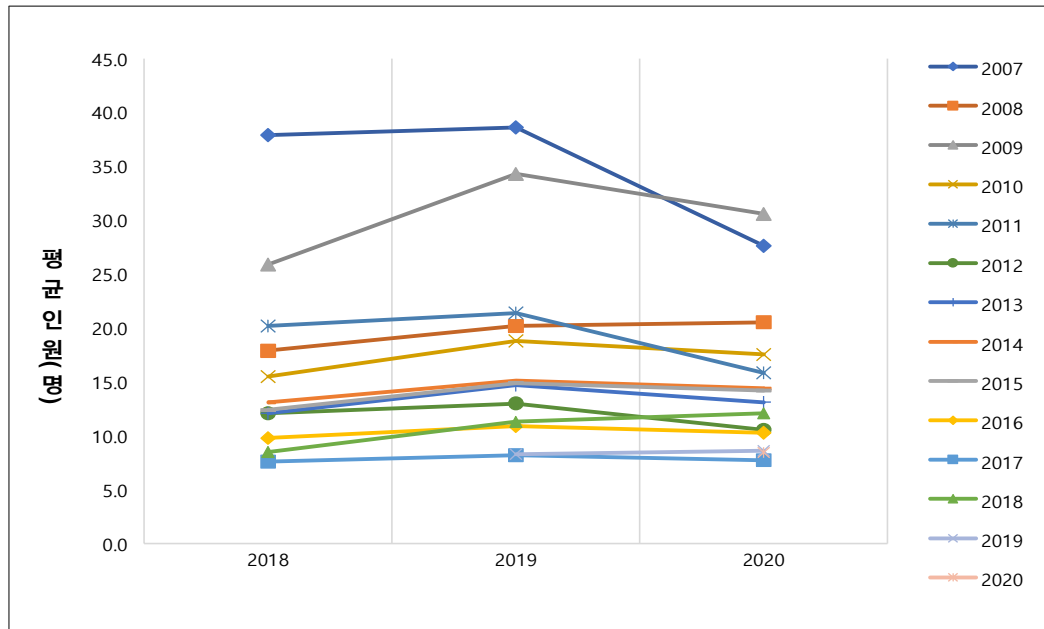
인증연도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인원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의 평균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이 최근 인증 받은 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고용

경험이 누적될수록 취약계층 고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최근 인증받는 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의 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2018년, 2019년도에 설립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이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7년 인증 기업의 경우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가 약 38.6명 수준에서 2020년에 27.6명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2020년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코로나 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표 3-3>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제시한 결과이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수를 보면,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20년 기준으로는 일자리제공형이 평균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이 평균 12.9명,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평균 1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27,1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에 취약계층 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고용비율이 각각 30%, 20%로 의무화되어 있고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고용한 절대적 수는 적지만 매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타(창의·혁신)형은 취약계층 평균 근로자 수가 2020년 2.7명으로 인증유형들 중 가장 적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도 939명으로 많지 않으나 매년 고용인원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혁신적 문화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 청년 등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소셜벤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일자리제공형	19,959	14.4	23,288	14.9	27,114	15.0
사회서비스제공형	1,659	13.3	1,857	13.0	1,946	11.1
혼합형	3,288	17.9	3,493	18.4	2,532	12.9
기타(창의·혁신)형	707	2.9	908	3.1	939	2.7
지역사회공헌형	473	3.9	527	3.5	675	3.2
전체	26,086	12.7	30,073	12.8	33,206	12.1

주: 2019년 평균유급근로자 수가 일자리제공형 15.1에서 14.9, 사회서비스제공형 16.1에서 13.0, 혼합형 18.9에서 18.4, 기타(창의·혁신)형 4.2에서 3.1, 지역사회공헌형 3.8에서 3.5, 전체 13.7에서 12.8로 수정되었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3-4>는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약 28.7명으로 가장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법상법인(14.3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13.0명), 일반/사회적협동조합(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형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현재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의 64.0%인 21,25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2019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형태의 사회적기업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총유급근로자	평균유급근로자	총유급근로자	평균유급근로자	총유급근로자	평균유급근로자
민법상법인	4,163	15.3	4,442	14.5	3,991	14.3
비영리민간단체	720	6.9	956	8.5	256	3.6
사회복지법인	1,913	29.0	1,908	30.3	2,180	28.7
상법상회사	16,118	12.4	18,230	12.5	21,258	1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0	24.0	87	9.7	130	13.0
영농조합법인	403	5.2	388	5.3	404	4.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645	11.2	4,062	12.9	4,987	12.7
기타	4	4.0	-	-	-	-
전체	26,086	12.7	30,073	12.8	33,206	12.1

주: 전체 12.9에서 12.8로 수정되었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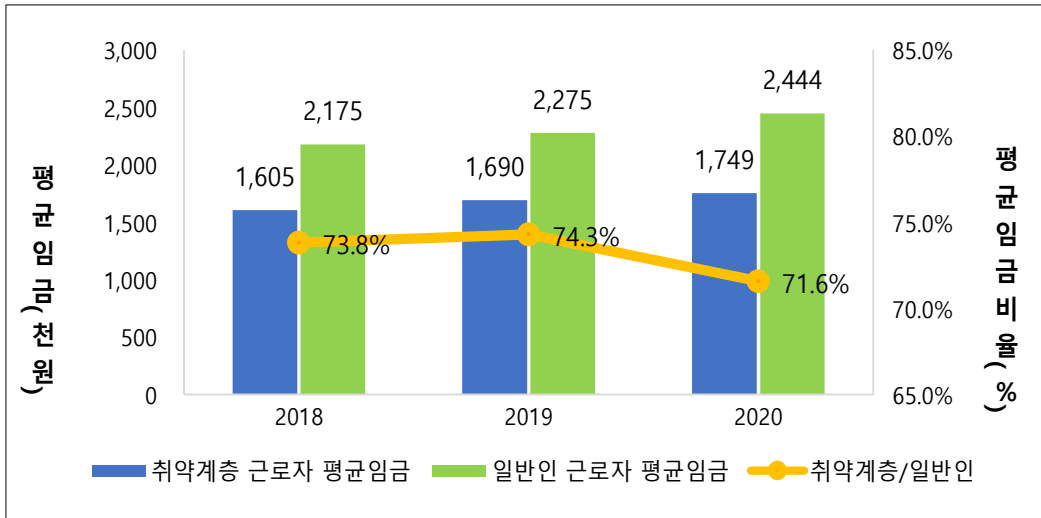
앞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성과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면, 이는 개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통합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3-4]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2018~2020년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44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7.4%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175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5% 증가하여 일반인 근로자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상승 수준을 보였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 평균임금은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1.6% 수준에 불과하며, 2019년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0년 다시 감소하였기에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단위:천 원,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의 <표 3-5>는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과 임금격차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강원이 252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201만 6천 원), 경기(194만 7천 원), 전남(180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148만 7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경우 강원이 288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273만 7천 원, 경북 273만 6천 원, 제주 256만 6천 원 순으로 나타났고 대구가 가장 낮은 183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취약계층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90만 2천 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격차가 큰 지역은 제주, 광주,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격차는 2019년 53만 6천 원에서 2020년 69만 5천 원으로 악화되었으나, 2019년에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었던 제주(2019년 임금격차 86만 3천원)의 경우 2020년 임금격차는 86만 1천원으로 개선된 경우도 있었다.



&lt;표 3-5&gt;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

(단위: 천 원)

구분	취약계층 평균임금		일반인 평균임금		일반인-취약계층 임금격차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서울	1,487	17	2,389	7	902	1
부산	1,607	12	2,012	14	405	13
대구	1,559	14	1,837	17	278	17
인천	1,553	15	2,138	12	585	9
광주	1,563	13	2,405	5	842	3
대전	1,754	6	2,221	11	467	11
울산	1,614	11	1,991	15	377	14
세종	1,491	16	2,270	10	779	5
경기	1,947	3	2,737	2	790	4
강원	2,526	1	2,884	1	358	15
충북	1,633	9	2,400	6	767	6
충남	1,689	8	2,127	13	438	12
전북	1,789	5	2,377	8	588	8
전남	1,800	4	2,277	9	477	10
경북	2,016	2	2,736	3	720	7
경남	1,623	10	1,923	16	300	16
제주	1,705	7	2,566	4	861	2
전체	1,749		2,444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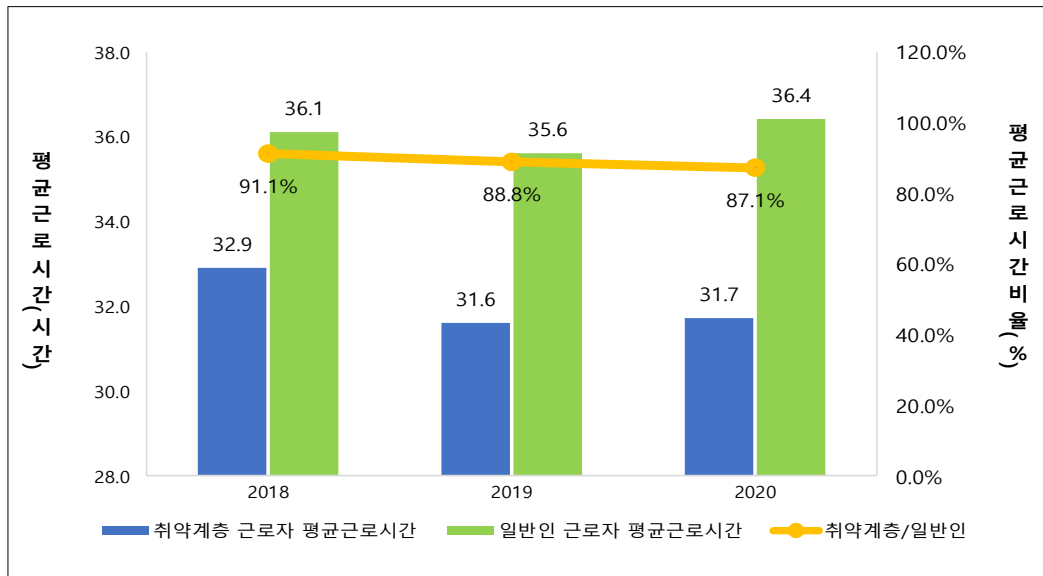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2020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1.7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36.4시간을 일하는 일반인 근로자보다 4.7시간가량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3년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는 2018년 36.1시간에서 2019

년 35.6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0년 36.4시간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18년 32.9시간, 2019년 31.6시간, 2020년 31.7시간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시간의 비율은 2018년 91.1%, 2019년 88.8%, 2020년에는 8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지역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3-6>은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은 대전에서 35.6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지역이 28.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근로시간은 경북에서 40.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경남에서 32.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과 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7.9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격차가 큰 지역은 제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3-6&gt;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		일반인 평균근로시간		일반인-취약계층 근로시간격차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서울	28.9	17	36.4	9	7.5	3
부산	32.3	9	35.9	13	3.6	10
대구	30.9	13	33.3	16	2.3	15
인천	30.9	14	36.0	11	5.1	6
광주	29.9	16	37.8	4	7.9	1
대전	35.6	1	36.8	6	1.2	16
울산	33.4	5	35.9	12	2.5	13
세종	31.4	12	36.3	10	4.9	7
경기	32.6	6	35.7	14	3.1	11
강원	35.4	2	38.1	3	2.6	12
충북	31.5	11	36.7	7	5.2	5
충남	32.6	7	34.9	15	2.3	14
전북	32.5	8	36.6	8	4.1	8
전남	34.4	4	38.3	2	3.9	9
경북	34.6	3	40.2	1	5.6	4
경남	31.7	10	32.1	17	0.5	17
제주	30.0	15	37.8	5	7.8	2
전체	31.7		36.4		4.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인증연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2020년의 경우 2015년 인증 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이 23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2013년 인증기업의 경우 143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2015년 인증기업의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이 35.3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9년 인증기업의 경우 26.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20년의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8		2019		2020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2007	1,766	35.3	1,753	32.8	1,669	32.3
2008	1,285	29.4	1,476	28.8	1,445	28.9
2009	1,314	28.2	1,494	28.8	1,481	26.9
2010	1,753	32.9	1,882	32.7	1,845	32.9
2011	1,656	35.4	1,709	33.8	1,636	33.4
2012	1,473	31.3	1,605	30.8	1,678	30.9
2013	1,370	30.3	1,400	28.7	1,430	28.9
2014	1,522	32.3	1,528	29.8	1,533	30.0
2015	2,021	36.6	2,176	35.1	2,338	35.3
2016	1,590	33.6	1,692	33.2	1,716	32.5
2017	1,671	34.0	1,805	33.8	1,887	34.0
2018	1,602	32.5	1,684	31.3	1,713	31.3
2019	-	-	1,613	30.2	1,649	30.6
2020	-	-	-	-	2,028	33.9
계	1,605	32.9	1,690	31.6	1,749	31.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인증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3-8>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인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지역사회공헌형에서 200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창의·혁신)형(186만 9천 원), 일자리제공형(178만 9천 원), 사회서비스제공형(147만 1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36.8시간), 기타(창의·혁신)형(32.8시간), 일자리제공형(32.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lt;표 3-8&gt;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8		2019		2020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1,648	33.6	1,732	32.3	1,789	32.2
사회서비스제공형	1,328	28.6	1,496	26.5	1,471	28.0
혼합형	1,425	29.7	1,448	28.1	1,419	27.2
기타(창의·혁신)형	1,713	33.1	1,857	33.6	1,869	32.8
지역사회공헌형	1,835	38.3	1,868	36.1	2,008	36.8
전체	1,605	32.9	1,690	31.6	1,749	31.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마지막으로 <표 3-9>의 조직형태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본다. 2020년 기준으로는 상법상회사의 평균임금이 217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조합법인(210만 5천 원), 민법상법인(17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2019년 37.2시간으로 가장 길었던 영농조합법인이 2020년에도 37.7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29.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동안의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 변화추세는 모든 조직형태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9&gt;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18		2019		2020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민법상법인	1,487	32.0	1,546	30.6	1,454	29.4
비영리민간단체	1,131	29.5	1,318	28.6	1,374	26.7
사회복지법인	1,163	31.6	1,256	30.3	1,208	29.9
상법상회사	1,745	33.7	1,826	32.5	1,916	3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34	28.1	1,368	29.6	1,621	33.2
영농조합법인	1,728	37.8	1,863	37.2	1,948	36.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389	30.2	1,522	29.0	1,520	29.7
기타	1,213	30.0	-	-	-	-
전체	1,605	32.9	1,690	31.6	1,749	31.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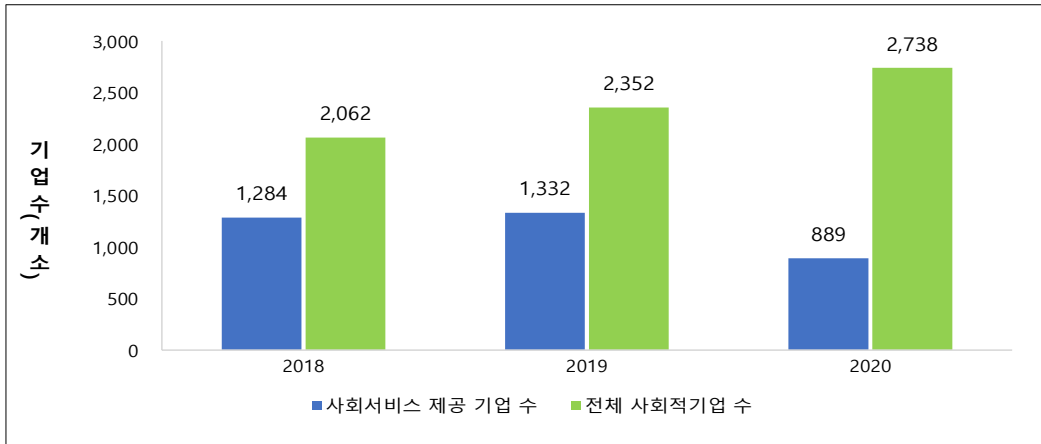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 역시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3조에서 정의하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간병·가사, 문화재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업보고서의 사회서비스제공은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지고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요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 [그림 3-6]에는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2020년의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은 889개소로, 2019년 1,332개소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에 전체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8년 62.3%, 2019년 56.6%, 2020년 3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외에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의 작성 의무가 없어서 보고 실적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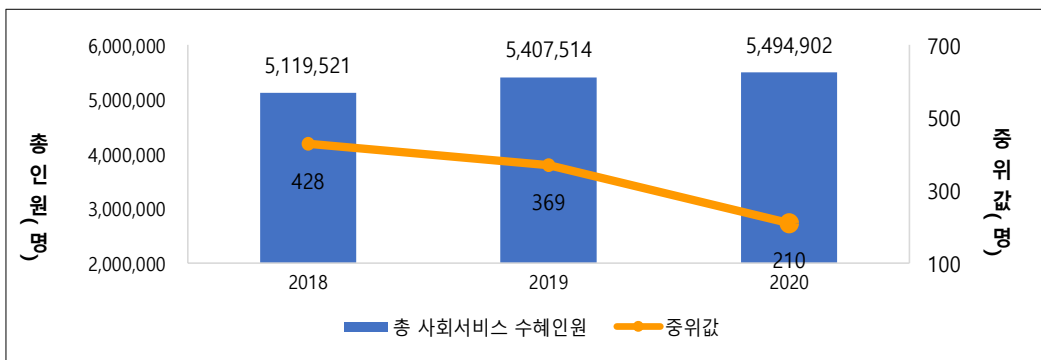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 [그림 3-7]은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수 및 중위값을 제시한 것이다. 2020년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은 약 549만 명으로 2018~2019년의 약 510만~540만 명 수준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중위값은 2018년 428명, 2019년 369명, 2020년 21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총 수혜인원의 기업 간 격차가 커진다고 보다는, 앞서 설명한대로 실적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상위 몇 개 기업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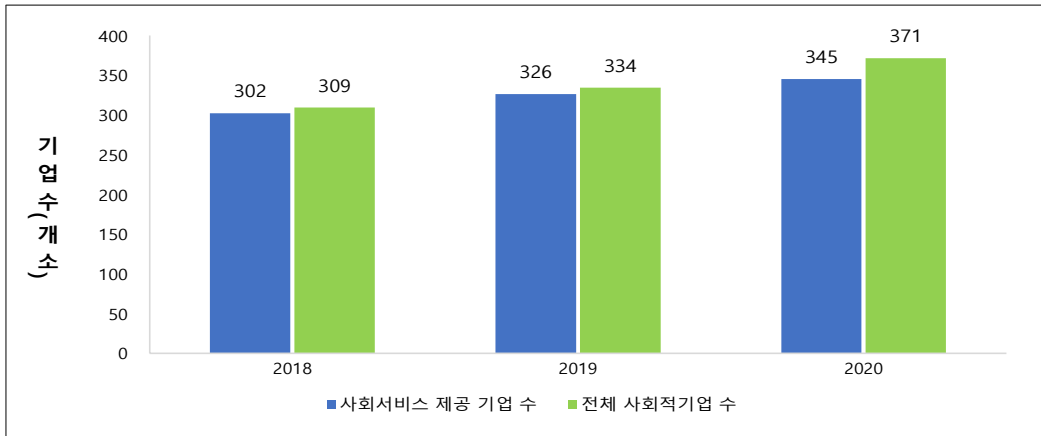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작성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8]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2018년 302개소, 2019년 326개소에서 2020년 345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약 96.0% 이상(2018년 97.7%, 2019년 97.6%, 2020년 93.0%)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주: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는 사회서비스제공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형, 혼합형만 포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의 <표 3-10>은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의 경우 총 345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17.7%인 61개의 기업이, 경기에서는 17.4%인 60개 기업이, 인천은 4.1%인 14개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345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중 39.1%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전혀 없고, 대구의 경우 2.0%인 7개 기업에서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과 제주의 경우는 각 2.6%, 2.3%인 9개, 8개 기업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lt;표 3-10&gt;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기업 수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61	17.7	1	12.0	11
부산	27	7.8	4	19.9	1
대구	7	2.0	16	7.2	16
인천	14	4.1	10	8.3	13
광주	18	5.2	8	14.5	5
대전	11	3.2	12	14.5	6
울산	19	5.5	6	19.6	2
세종	0	0.0	17	0.0	17
경기	60	17.4	2	12.6	10
강원	19	5.5	6	12.7	9
충북	18	5.2	8	15.9	4
충남	9	2.6	14	8.2	14
전북	28	8.1	3	18.1	3
전남	21	6.1	5	13.9	7
경북	14	4.1	10	8.1	15
경남	11	3.2	12	8.8	12
제주	8	2.3	15	12.9	8
전체	345	100.0	-	12.6	-

주: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은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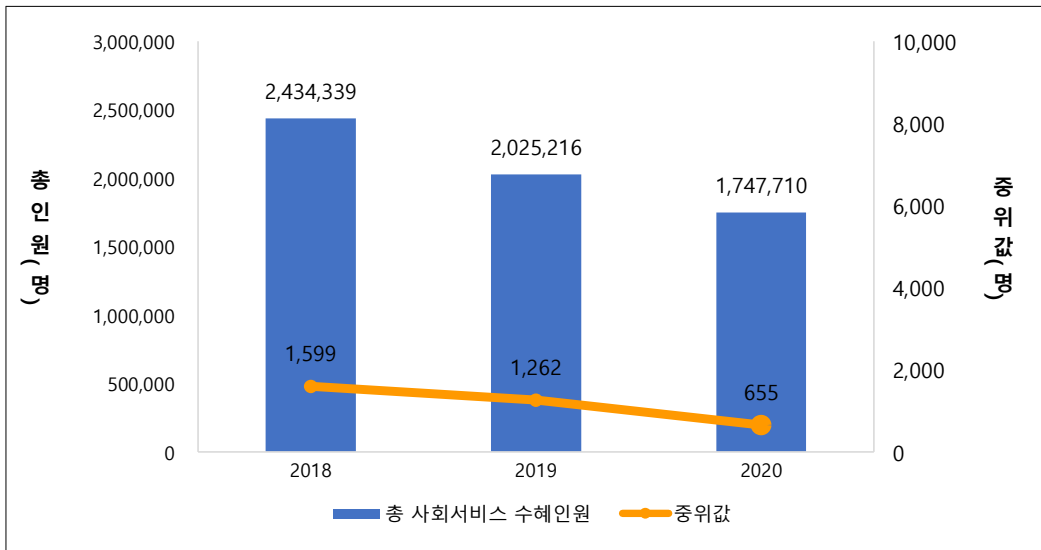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또한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율 순위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전북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의 비율이 각각 19.9%, 19.6%, 1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사회서비스 [그림 3-9]는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추이를 보여준다.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은 2018년 약 243만 명에서 2019년 약 202만 5천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 약 174만 7천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 또한 2018년 1,599명에서 2019년 1,262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0년 655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견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큰 변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의 변동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수혜자를 중복 계산하거나,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수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개략적인 인원수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또는 과소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향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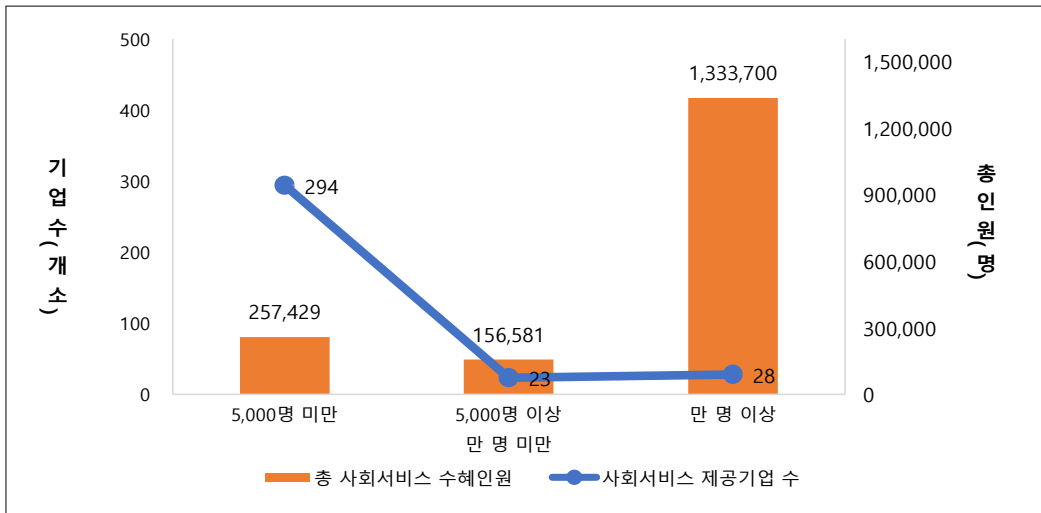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은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서비스제공기업과 수혜인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3-10]은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사회적기업의 수와 총 수혜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0년 5천 명 미만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294개소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8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인원은 전체 수혜인원의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명 이상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28개소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의 약 76.3% 정도가 만 명 이상 제공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사회적기업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을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전체 수혜인원의 23.5%가 속한 서울이 약 41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 지역으로 전체 수혜인원의 19.7%인 약 34만 5천 명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남(약 4천 명)과 제주(약

6천 명), 광주(약 1만 8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총인구가 사회서비스 수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 중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수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별 인구수 비율보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지역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비율 대비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및 지역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명, %)

구분	사회서비스 수혜자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원	비율	순위	인원	비율	순위
서울	410,114	23.5	1	9,586,195	18.5	2
부산	44,389	2.5	11	3,349,016	6.5	3
대구	104,654	6.0	5	2,410,700	4.7	7
인천	102,845	5.9	6	2,945,454	5.7	5
광주	18,139	1.0	14	1,477,573	2.9	14
대전	67,697	3.9	8	1,488,435	2.9	13
울산	131,736	7.5	4	1,135,423	2.2	15
세종	-	-	-	353,933	0.7	-
경기	344,504	19.7	2	13,511,676	26.1	1
강원	54,510	3.1	9	1,521,763	2.9	12
충북	31,694	1.8	13	1,632,088	3.1	11
충남	46,970	2.7	10	2,176,636	4.2	8
전북	78,572	4.5	7	1,802,766	3.5	9
전남	258,723	14.8	3	1,788,807	3.5	10
경북	43,823	2.5	12	2,644,757	5.1	6
경남	3,521	0.2	16	3,333,056	6.4	4
제주	5,819	0.3	15	670,858	1.3	16
전체	1,747,710	100.0	-	51,829,136	100.0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통계청(2020)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표 3-12>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2020년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 기업은 2020년 인증기업이 43개소, 2008년 인증기업이 41개소, 2019년 인증기업이 40개소로 가장 많았고, 2016년(38개소)과 2015년(31개소), 2018년(27개소) 인증기업도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2007년이 2,600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8년(1,536명), 2013년(1,134명), 2011년(95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최근에 인증 받은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수혜인원이 적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18~2020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공기업 수는 완만하게 증가 혹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8		2019		2020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2007	13	2,905	13	1,786	13	2,600
2008	44	1,726	44	1,629	41	1,536
2009	19	526	17	1,193	16	839
2010	16	1,173	16	435	15	250
2011	16	1,058	14	1,272	12	952
2012	18	767	16	634	15	270
2013	25	2,916	25	2,104	21	1,134
2014	11	500	9	1,300	9	339
2015	38	1,791	34	1,455	31	487
2016	42	1,720	42	1,469	38	539
2017	29	1,638	27	999	24	795
2018	31	920	28	1,956	27	655
2019	-	-	41	595	40	346
2020	-	-	-	-	43	498
전체	302	1,599	326	1,262	345	65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3-13>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은 164개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인원 중위값은 747명으로 전체 중위값 655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181개소의 기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인원 중위값은 556명으로 전체 중위값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2018~2020년 동안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모두 완만하게 증가 혹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혜인원 중위값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8		2019		2020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일자리제공형	-	-	-	-	-	-
사회서비스제공형	120	1,986	142	1,692	164	747
혼합형	182	1,186	184	803	181	556
기타(창의·혁신)형	-	-	-	-	-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전체	302	1,599	326	1,262	345	65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3-14>는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상법상회사가 20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61개), 민법상법인(55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인원 중위값은 제공기업이 1개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민법상법인이 1,52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1,097명), 사회복지법인(1,06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2020년 동안에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은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그 외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수혜인원 중위값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8		2019		2020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인원 중위값
민법상법인	63	3,020	56	1,982	55	1,526
비영리민간단체	26	1,496	30	1,039	19	342
사회복지법인	3	187	3	276	6	1,067
상법상회사	169	1,147	182	1,039	200	5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	-	1	6,584	1	6,815
영농조합법인	2	1,556	2	1,145	3	46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9	2,549	52	1,372	61	1,097
기타	0	-	0	-	0	-
전체	302	1,599	326	1,262	345	65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마지막으로 <표 3-15>에는 2018~2020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의 기초분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각 연도의 모든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별로 분석 대상이 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2020년 3개년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고,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1,921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객관적 기준보다는 기업 나름의 임의적 기준으로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18		2019		2020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인증 연도	2007	13	2,905	13	1,786	13	2,600
	2008	44	1,726	44	1,629	41	1,536
	2009	19	526	17	1,193	16	839
	2010	16	1,173	16	435	15	250
	2011	14	1,851	13	1,496	12	952
	2012	16	578	16	634	15	270
	2013	23	2,916	24	2,003	21	1,134
	2014	10	900	9	1,300	9	339
	2015	31	1,813	32	1,346	31	487
	2016	41	1,718	41	1,264	38	539
	2017	25	1,341	25	999	24	795
	2018	29	920	28	1,956	27	655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110	1,986	111	1,823	103	978
	혼합형	171	1,151	167	847	159	648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6	2,232	54	1,982	50	1,523
	비영리민간단체	21	1,136	22	1,555	19	342
	사회복지법인	6	397	6	423	6	1,067
	상법상회사	156	1,210	154	1,159	145	56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	-
	영농조합법인	2	1,556	2	1,145	2	49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0	2,618	40	1,862	40	1,511
	기타	-	-	-	-	-	-
전체	281	1,594	278	1,361	262	713	

주: 2018-2020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921개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만 포함함. 중위값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2018년 281개, 2019년 278개, 2020년 262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수혜인원 중위



값 또한 2018년 1,594명에서 2019년 1,361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713명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인증연도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19~2020년 사이에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7년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에서 2019~2020년 기간 동안 수혜인원 중위값의 감소가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 추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위값은 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 크게 감소한 반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중위값은 2019년 감소했다가 2020년 다소 증가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2019년 증가했다가 2020년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18~20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대상층에게 주로 제공되었는지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인증유형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혼합형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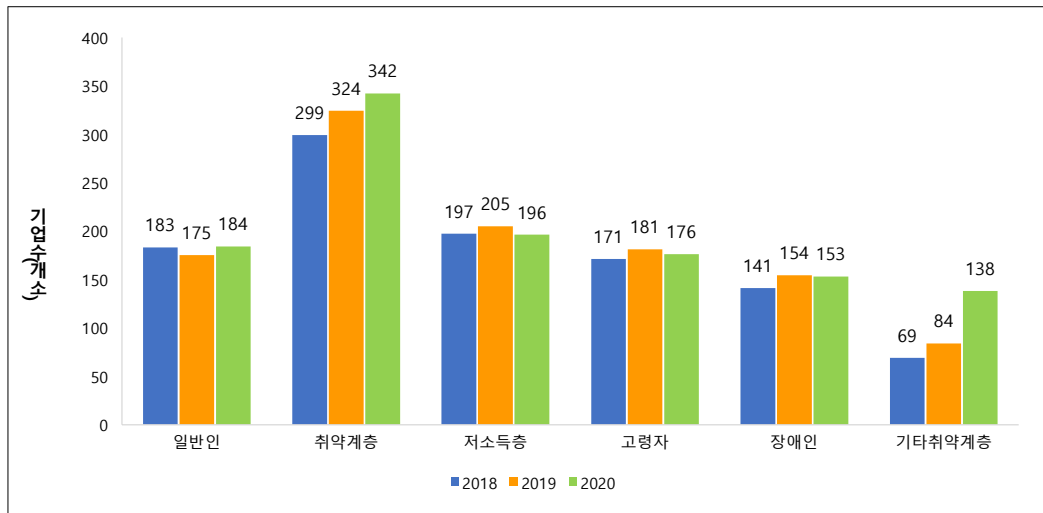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가 취약계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 지역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시 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need)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림 3-11]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20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42개소였고,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184개소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배 정도로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혜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우선대상은 그

수요(need)가 더 큰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가 2018~2019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각각 2019년에 전년대비 4.4%(8개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5.1%(9개소) 증가하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9년에 전년대비 8.4%(25개소)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5.6%(18개소) 증가하여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일반인 대상 제공기업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취약계층은 다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는 전년대비 근소하게 감소하였고, 기타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취약계층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이 196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령자 대상 176개소, 장애인 대상이 153개소, 기타 취약계층 대상이 138개소 순이었다.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3-16>은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같거나 더 많아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나타나고 있었다. 2020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는 경기, 서울 지역이 각 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북 지역이 28개소, 부산 지역이 2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경기와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기에 33개소, 서울 지역에 31개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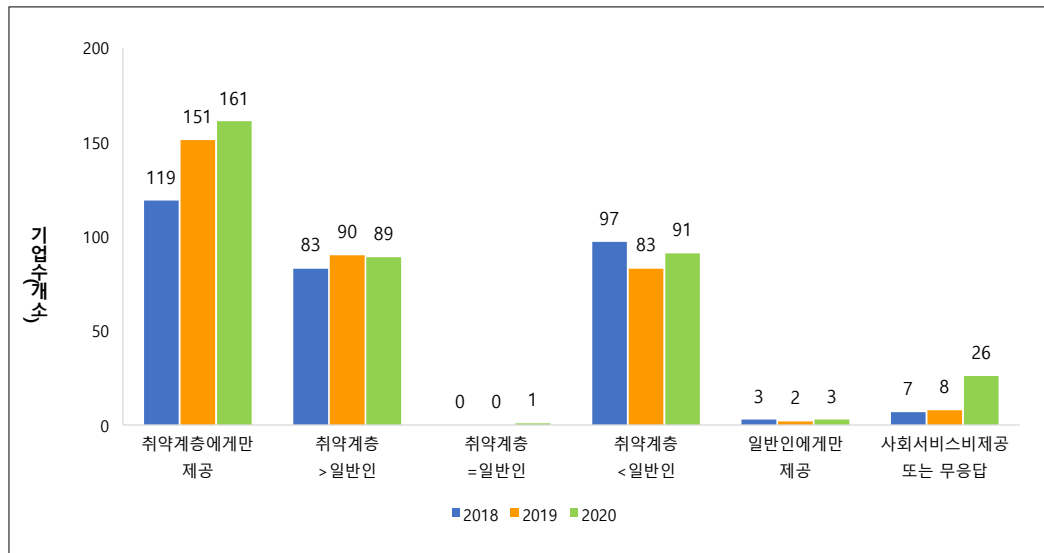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	일반인 서비스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수	순위	기업 수	순위
서울	61	31	2	60	1
부산	27	18	3	27	4
대구	7	5	13	7	15
인천	14	5	13	13	11
광주	18	9	6	18	8
대전	11	5	13	11	12
울산	19	16	4	19	6
세종	0	0	17	0	17
경기	60	33	1	60	1
강원	19	9	6	19	6
충북	18	9	6	18	8
충남	9	8	10	9	14
전북	28	11	5	28	3
전남	21	7	11	21	5
경북	14	9	6	14	10
경남	11	3	16	11	12
제주	8	6	12	7	15
전체	345	184	-	342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3-12]는 일반인과 취약계층 중 누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161개소), 취약계층에게 주로 제공하는 곳(89개소)이 최근 3년간 증가 또는 유지하는 추세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161개소)은 일반인에게만 제공하는 곳(3개소)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고, 또한 일반인에게 주로 제공하는 곳(91개소)이 전년대비 9.6%(8개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추세임이 나타났다.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3-17>은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유사하게 부산,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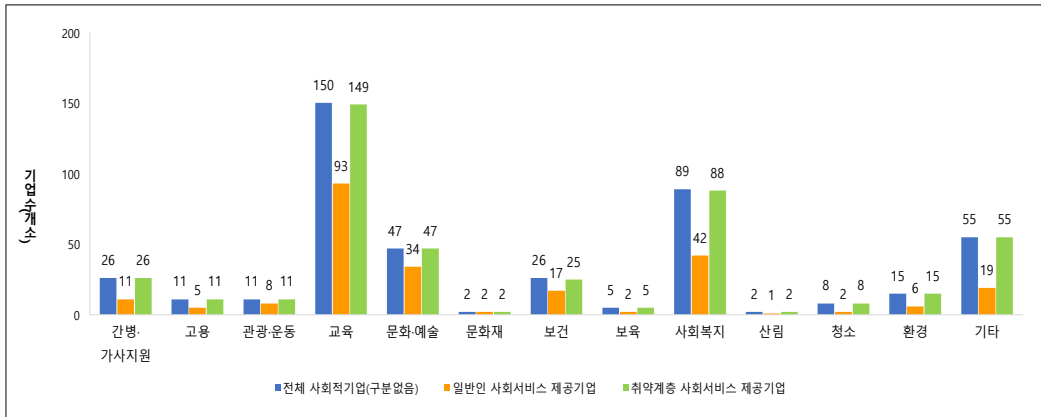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구분	취약계층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만 제공 포함)	일반인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일반인만 제공 포함)
서울	47	13
부산	11	16
대구	4	3
인천	11	3
광주	12	6
대전	8	3
울산	8	11
세종	0	0
경기	50	10
강원	14	5
충북	15	3
충남	5	4
전북	24	4
전남	19	2
경북	7	7
경남	10	1
제주	5	3
전체	250	94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3-13]과 [그림 3-14]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에게(혹은 위주로), 취약계층에게(혹은 위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치를 분류·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교육(150개소), 사회복지(89개소), 기타(55개소), 문화·예술(47개소), 간병·가사지원(26개소), 보건(26개소) 순이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 역시 전체적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교육(149개소), 사회복지(88개소), 기타(55개소), 문화·예술(47개소), 간병·가사지원(26개소), 보건(2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교육(93개소), 사회복지(42개소), 문화·예술(34개소), 기타(19개소), 보건(17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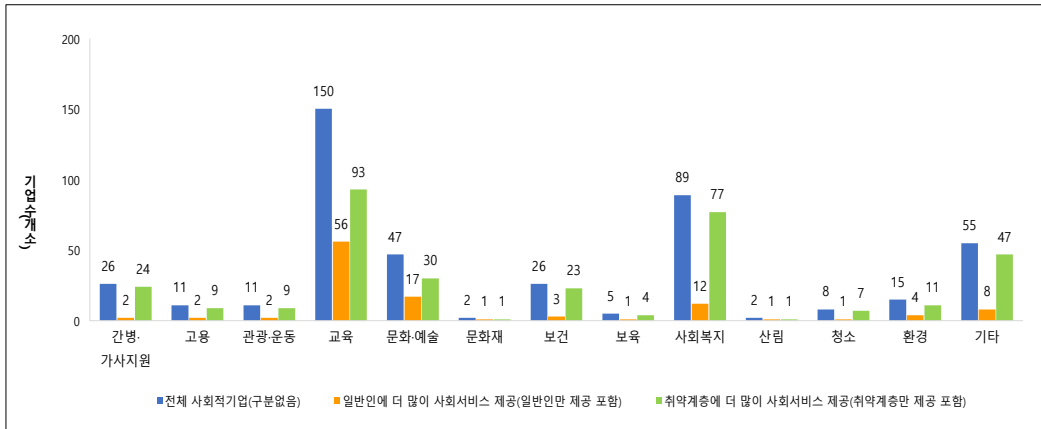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3-14]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는 교육이 93개소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가 77개소, 기타가 47개소, 문화·예술이 3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교육이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이 17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 모두에서 교육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대인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및 보건, 간병·가사지원 분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마지막으로 <표 3-18>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셀의 값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의 비율(%)이므로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10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약 50%와 약 3-4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제공기업 수가 1개 기업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100% 미만의 비율이 나타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구분	2018		2019		2020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인증 연도	2007	46.2	18.2	30.8	8.3	38.5	8.3
	2008	22.7	12.8	30.2	7.3	24.4	2.5
	2009	63.2	11.8	47.1	6.3	37.5	0.0
	2010	60.0	45.5	56.3	45.5	53.3	15.4
	2011	86.7	100.0	69.2	55.6	58.3	71.4
	2012	77.8	80.0	62.5	33.3	73.3	66.7
	2013	80.0	108.3	72.0	78.6	65.0	75.0
	2014	54.5	22.2	55.6	50.0	33.3	33.3
	2015	70.3	65.2	67.6	88.9	61.3	63.2
	2016	61.9	50.0	47.6	40.0	55.3	26.7
	2017	69.0	107.1	51.9	42.1	62.5	100.0
	2018	67.7	55.0	60.7	21.7	61.5	68.8
	2019	-	-	61.0	36.7	57.5	37.9
	2020	-	-	-	-	64.3	48.3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68.9	57.9	57.7	35.2	57.7	34.4
	혼합형	56.1	44.4	51.1	35.3	50.3	40.6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7.2	70.3	53.6	40.0	56.4	48.6
	비영리민간단체	57.7	30.0	56.7	42.9	52.6	26.7
	사회복지법인	-	-	0.0	0.0	0.0	0.0
	상법상회사	58.3	42.0	50.0	34.8	50.0	36.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100.0	0.0	100.0	0.0
	영농조합법인	100.0	100.0	50.0	0.0	150.0	5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9.2	77.3	69.2	33.3	65.6	41.9
	기타	-	-	-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부가분석 3-1>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표 부가분석 3-2>는 지역과 표준산업분류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1,747,710명 중, 제조업 분야의 수혜자 비중이 35.6%(621,71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9.0%, 506,578명), 교육 서비스업(20.3%, 354,585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3%, 75,5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1,363,474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3.3%(590,326명)로 가장 높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9.0%, 395,238명) 교육 서비스업(12.6%, 171,684명), 순서로 높았다.

반면 일반인 수혜자 384,236명의 분포 비중은 교육 서비스업(47.6%, 384,236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9.0%, 182,901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2%, 31,384명), 제조업(6.7%, 25,6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산업분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교육 서비스업 분야 수혜자 비중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서는 2020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교육 서비스업 분야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8, 2019, 2020)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항목		2018	2019	2020	
전체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2,434,339	2,025,216	1,747,710	
	인증 연도	2007	219,403	122,591	132,778
		2008	616,412	638,622	804,372
		2009	192,274	97,747	91,994
		2010	24,971	30,322	16,227
		2011	57,306	44,818	23,730
		2012	299,512	254,787	160,219
		2013	305,901	208,173	88,447
		2014	59,626	62,263	40,841
		2015	154,371	153,649	57,492
		2016	255,583	133,161	61,672
		2017	126,194	86,784	66,523
		2018	122,786	129,212	91,798
		2019	-	63,087	52,692
	2020	-	-	58,92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1,154,044	1,097,214	826,405
		혼합형	1,280,295	928,002	921,305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91,895	604,246	313,815
		비영리민간단체	159,220	80,660	26,819
		사회복지법인	564	1,873	12,805
		상법상회사	1,109,819	919,775	912,2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6,584	6,815
		영농조합법인	3,112	2,289	1,45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69,729	409,789	473,780
		기타	-	-	-

항목		2018	2019	2020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563,729	1,420,540	1,363,474	
	인증 연도	2007	155,448	78,724	105,530
		2008	476,864	538,091	730,256
		2009	166,278	92,474	87,111
		2010	18,686	23,548	14,670
		2011	23,726	18,998	13,722
		2012	255,674	197,210	129,976
		2013	96,495	91,917	37,235
		2014	24,962	19,653	11,837
		2015	50,874	55,084	29,876
		2016	155,429	111,112	49,021
		2017	48,923	49,364	22,155
		2018	90,370	104,895	62,015
		2019	-	39,470	29,725
		2020	-	-	40,34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653,712	747,810	625,228
		혼합형	910,017	672,730	738,246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70,093	300,987	175,693
		비영리민간단체	120,302	49,643	21,433
		사회복지법인	564	1,873	12,805
		상법상회사	844,160	809,016	810,79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3,418	3,612
		영농조합법인	1,855	1,938	69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26,755	253,665	338,446
기타		-	-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870,610	604,676	384,236	
	인증 연도	2007	63,955	43,867	27,248
		2008	139,548	100,531	74,116
		2009	25,996	5,273	4,883
		2010	6,285	6,774	1,557
		2011	33,580	25,820	10,008
		2012	43,838	57,577	30,243
		2013	209,406	116,256	51,212

		항목	2018	2019	2020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인증 연도	2014	34,664	42,610	29,004
		2015	103,497	98,565	27,616
		2016	100,154	22,049	12,651
		2017	77,271	37,420	44,368
		2018	32,416	24,317	29,783
		2019	-	23,617	22,967
		2020	-	-	18,58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500,332	349,404	201,177
		혼합형	370,278	255,272	183,059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21,802	303,259	138,122
		비영리민간단체	38,918	31,017	5,386
		사회복지법인	-	-	-
		상법상회사	265,659	110,759	101,4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3,166	3,203
		영농조합법인	1,257	351	76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2,974	156,124	135,334
		기타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0)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서비스 수혜자	410,114	44,389	104,654	102,845	18,139	67,697	131,736	-	344,504	54,510	31,694	46,970	78,572	258,723	43,823	3,521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964	354,585	2,991	56,951	506,578	22,142	8,003	73,560	481	2,323	621,710	79,333	15,089	-	-	-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 분류	374,154	26,340	51,557	101,777	9,552	45,602	46,180	-	276,076	32,860	24,903	20,328	74,132	253,407	19,687	3,463	3,456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 분류	3,578	171,684	1,822	52,672	395,283	5,750	8,003	47,935	3	1,446	590,326	74,883	10,089	-	-	-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 분류	35,960	18,049	53,097	1,068	8,587	22,005	85,556	-	68,428	21,650	6,791	26,642	4,440	5,316	24,136	58	2,363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 분류	386	182,901	1,169	4,279	111,235	16,392	25,625	478	877	31,384	4,450	5,000	-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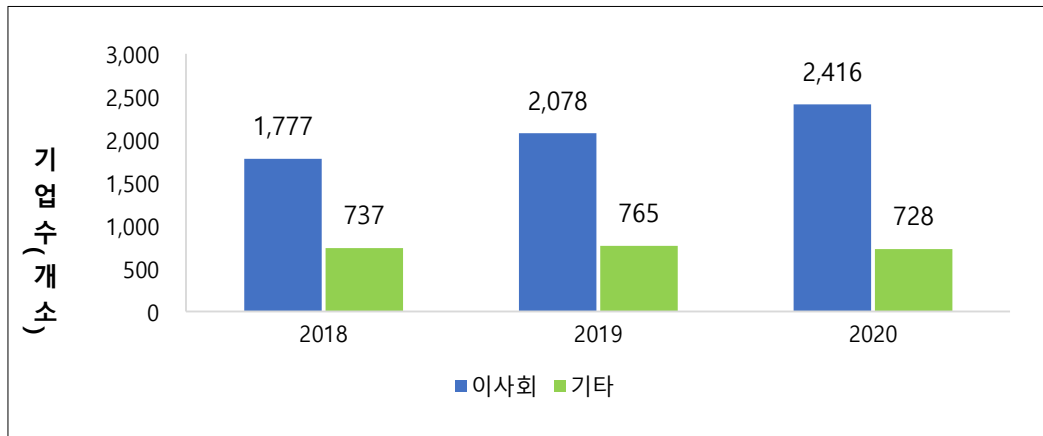
###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해 보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해 보면, 인증 요건 중 하나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사업보고서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와 추가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그림 3-15]는 2018~2020년 사회적기업이 활용한 의사결정구조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회의체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있으나, 2018~2020년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 이사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의 경우 이사회만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회와 기타(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의사결정기구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음 [그림 3-15]와 같다. 이사회를 활용한 기업은 2018년 1,777개소, 2019년 2,078개소, 2020년 2,416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기타 회의체는 2018년 737개소, 2019년 765개소, 2020년 728개소로 증가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lt;표 3-19&gt;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단위: 회, 개소)

지역	구분	이사회	기타
서울	평균	2.9	2.9
	기업 수	443	147
부산	평균	3.1	3.0
	기업 수	108	27
대구	평균	3.5	3.2
	기업 수	79	18
인천	평균	2.8	2.7
	기업 수	150	47
광주	평균	3.1	2.3
	기업 수	118	36
대전	평균	3.2	2.2
	기업 수	62	36
울산	평균	2.6	3.5
	기업 수	78	12
세종	평균	3.7	1.8
	기업 수	16	5
경기	평균	3.4	3.0
	기업 수	426	85
강원	평균	2.9	2.4
	기업 수	125	41
충북	평균	2.8	4.1
	기업 수	103	14
충남	평균	2.9	2.2
	기업 수	103	74
전북	평균	3.3	2.3
	기업 수	150	75
전남	평균	3.1	2.5
	기업 수	137	23
경북	평균	3.2	2.7
	기업 수	152	43
경남	평균	2.8	2.7
	기업 수	113	18
제주	평균	3.1	2.5
	기업 수	53	27
계	평균	3.1	2.7
	기업 수	2,416	728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표 3-19>는 의사결정기구 활용 평균 개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해 본 표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사회 개최 건수의 평균은 연간 3.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기타 회의체(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개최 건수 평균도 연간 2.7회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사회 개최는 지역별로는 세종 지역(평균 3.7회)을 제외하면, 대구 지역이 평균 3.5회로 가장 많았고, 울산 지역이 평균 2.6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기타 회의체 개최 건수는 충북이 평균 4.1회로 가장 많고 대전이 평균 2.2회로 가장 적어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단위: 개소, 회)

구분	이사회		기타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25	3.4	18	3.5
	2008	78	3.4	44	3.0
	2009	41	2.7	22	2.7
	2010	100	2.8	62	3.2
	2011	74	2.8	53	3.0
	2012	92	3.5	48	3.3
	2013	161	3.0	69	2.3
	2014	158	3.2	69	2.4
	2015	210	3.1	50	2.0
	2016	216	3.2	58	2.3
	2017	214	3.2	51	2.5
	2018	281	3.3	47	2.1
	2019	359	3.0	78	2.7
2020	407	2.7	59	2.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585	3.0	462	2.7
	사회서비스제공형	160	3.5	45	2.8
	혼합형	172	3.1	58	2.7
	기타(창의·혁신)형	310	2.9	95	2.2
	지역사회공헌형	189	3.3	68	3.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30	2.9	111	2.6
	비영리민간단체	34	2.5	49	2.5
	사회복지법인	20	3.4	72	3.8
	상법상회사	1,701	2.9	267	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4.9	7	2.6
	영농조합법인	90	3.6	20	3.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33	3.7	202	2.6
	기타	0	-	0	-
계	2,416	3.1	728	2.7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기타 회의체의 평균 개최 건수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위의 <표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사회의 경우 인증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3.1회 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는 2015년 인증기업 2.0회부터 2007년 인증기업 약 3.5회로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사회서비스제공형에서 평균 3.5회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회의체는 지역사회공헌형에서 3.2회로 가장 많이 개최하였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기업 수가 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사회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가 적었고, 기타 회의체의 경우에도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3-21>과 <표 3-22>에는 2018~2020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의 추이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응답 역시 기업별로 임의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8~2020년 세 개 년도 사업보고서 원자료에 모두 포함된 동일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3-21>에 따르면, 2018~2020년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1,921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2018년 1,663개, 2019년 1,673개, 2020년 1,648개로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평균 회의 개최 건수는 2018년 3.53회에서 2019년 3.31회로 감소하였고, 2020년 3.16회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를 제시한 <표 3-22>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697개의 기업이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였는데 2019년에는 669개로 감소하였고, 2020년의 경우도 591개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 개최 건수 역시 2018~2019년 기간 동안 3.08회에서 2.76회로 감소하였고, 2020년의 경우에도 2.64회로 감소하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데, 조직형태 중 상법상 회사에서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단위: 개소, 회)

구분		2018		2019		2020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26	3.85	27	3.74	25	3.44
	2008	77	3.65	80	3.58	78	3.37
	2009	37	3.08	37	3.14	41	2.71
	2010	100	3.09	100	3.06	100	2.80
	2011	66	3.32	73	3.21	74	2.81
	2012	89	3.63	91	3.36	92	3.52
	2013	158	3.19	159	3.14	160	2.98
	2014	162	3.49	163	3.06	157	3.21
	2015	220	3.33	218	3.14	210	3.13
	2016	221	3.64	221	3.43	216	3.24
	2017	226	3.64	218	3.31	214	3.19
2018	281	3.93	286	3.57	281	3.2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120	3.45	1,119	3.22	1,094	3.09
	사회서비스제공형	99	4.20	101	3.84	102	3.55
	혼합형	146	3.39	154	3.51	151	3.24
	기타(창의·혁신)형	197	3.29	198	3.07	204	3.04
	지역사회공헌형	101	4.49	101	3.87	97	3.6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79	3.21	185	3.10	184	2.82
	비영리민간단체	29	2.76	33	2.48	33	2.45
	사회복지법인	23	3.48	21	3.48	20	3.35
	상법상회사	1,151	3.41	1,160	3.17	1,144	3.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7.75	4	6.00	4	3.75
	영농조합법인	74	4.24	73	3.90	69	3.96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03	4.32	197	4.13	194	4.05
	기타	-	-	-	-	-	-
전체	1,663	3.53	1,673	3.31	1,648	3.16	

주: 평균 개최 건수는 이사회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18, 2019, 2020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921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시계열 추이  
(단위: 개소, 회)

구분	2018		2019		2020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19	6.16	19	4.53	18	3.50
	2008	49	3.80	51	2.76	44	3.02
	2009	34	2.59	31	2.58	22	2.73
	2010	71	3.72	66	3.15	62	3.24
	2011	62	3.34	59	3.44	53	2.98
	2012	50	4.56	53	3.58	48	3.31
	2013	80	2.26	76	2.34	69	2.30
	2014	93	2.60	83	2.48	69	2.43
	2015	68	2.09	63	2.08	50	1.98
	2016	63	2.32	64	2.34	58	2.28
	2017	58	2.93	56	2.68	51	2.51
	2018	50	3.54	48	2.52	47	2.1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53	2.95	431	2.76	390	2.61
	사회서비스제공형	43	4.12	43	3.16	34	2.97
	혼합형	73	3.25	73	2.41	56	2.70
	기타(창의·혁신)형	88	2.64	83	2.23	73	2.22
	지역사회공헌형	40	4.15	39	4.03	38	3.3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19	2.78	116	2.63	100	2.71
	비영리민간단체	50	2.88	43	2.91	46	2.43
	사회복지법인	72	4.11	72	3.83	72	3.82
	상법상회사	291	2.88	284	2.38	229	2.3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1.50	3	1.67	2	2.00
	영농조합법인	22	4.95	25	3.20	16	3.44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41	3.02	126	2.98	126	2.41
	기타	-	-	-	-	-	-
전체	697	3.08	669	2.76	591	2.64	

주: 평균 개최 건수는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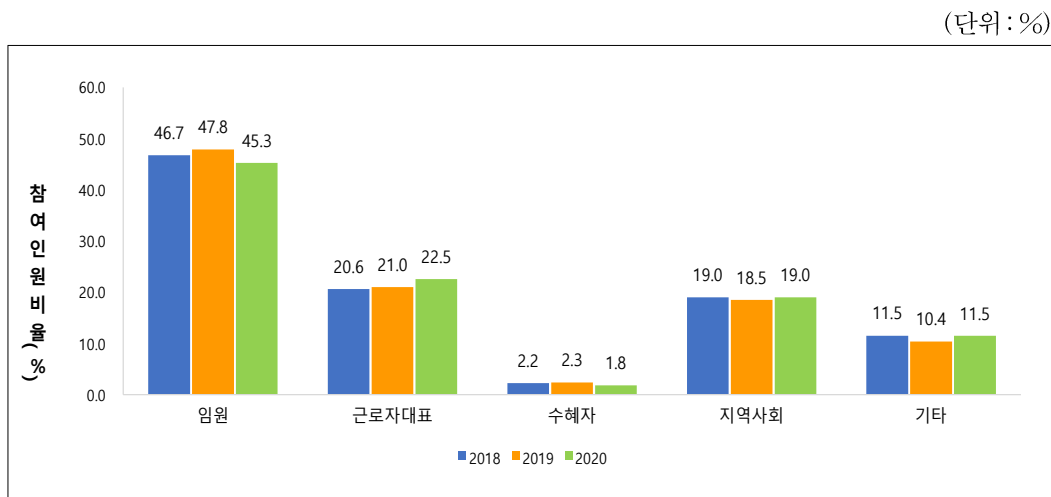
2018, 2019, 2020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921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편, 아래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는 각 사회적기업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을 평균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사내 이해관계자로 임원, 근로자대표가 있고, 사외 이해관계자로는 수혜자, 지역사회참여자, 기타 참여인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원이 이사회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참여자가 각각 약 20% 내외로 이사회에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근 3년 동안 임원 및 수혜자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이사회 참여자의 비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 참여인원 비율은 다음 [그림 3-17]과 같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약 2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참여자가 사회적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의 기타 회의체 참여비율은 전년대비 약 7%p 감소한 반면, 근로자 대표, 지역사회, 수혜자, 기타 참여자의 기타 회의체 참여비율은 근소하게나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안정적인지만, 사회적기업들에서 근로자, 지역사회 및 서비스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이행하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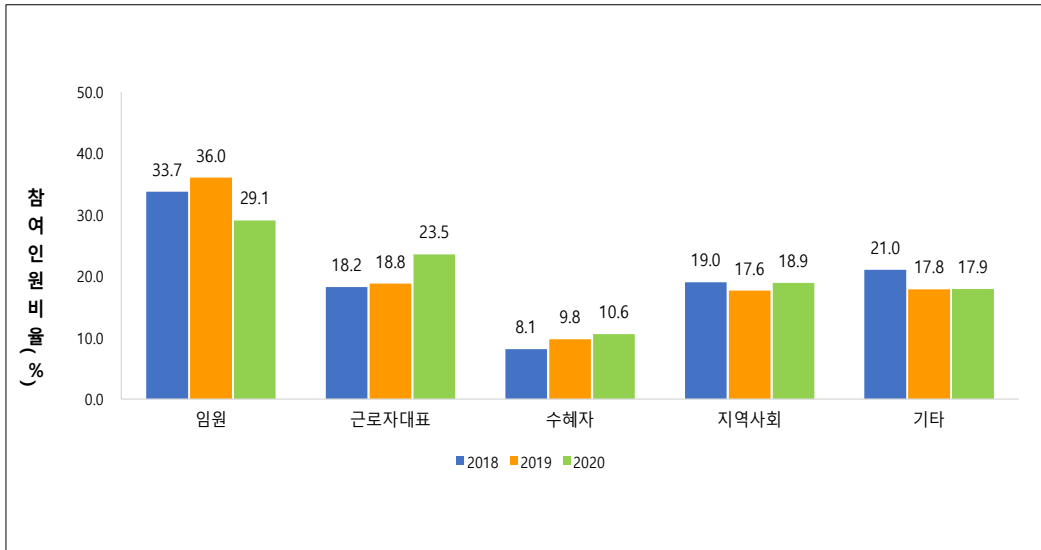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인원 비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인원 비율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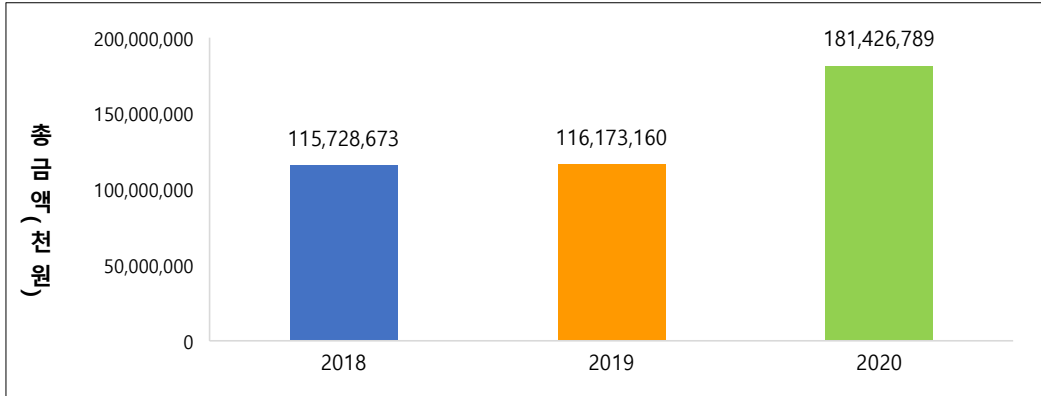
####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제4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3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동법 제8조 7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최근 3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의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 3-18]과 같다. 2018년 약 1천 157억 원에서 2019년 약 1천 162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0.4% 증가했고, 2020년에는 전년대비 약 56.2% 대폭 증가하여 약 1천 814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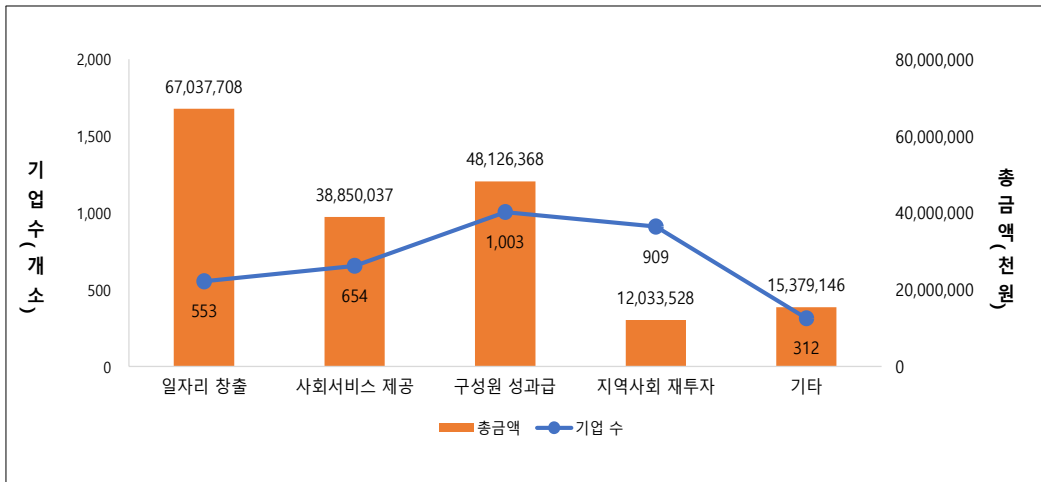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단위: 개소,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3-19]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를 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금액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투자유형은 크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재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 기업은 553개소, 약 670억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3개 사회적기업이 약 481억 원을 구성원 성과급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654개 기업이 약 389억 원을 재투자하

여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던 반면,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909개 기업이 약 120억 원을 재투자하여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다.

<표 3-23>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액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20년에는 총 1,720개의 사회적기업이 약 1,814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 전년도에 총 1,279개 기업의 약 1,161억 원에 비해 재투자를 한 기업 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단위: 개소, 천 원)

지역	사회적 목적 재투자			총 재투자 금액		
	기업 수	총수 대비 %	순위	금액	총금액 대비 %	순위
서울	277	16.1	2	63,422,670	35.0	1
부산	25	1.5	16	511,068	0.3	15
대구	69	4.0	11	4,253,691	2.3	10
인천	98	5.7	8	5,226,040	2.9	9
광주	109	6.3	4	8,582,496	4.7	6
대전	30	1.7	15	2,493,361	1.4	13
울산	36	2.1	14	458,722	0.3	16
세종	5	0.3	17	82,550	0.0	17
경기	346	20.1	1	39,769,466	21.9	2
강원	96	5.6	9	13,553,300	7.5	3
충북	80	4.7	10	5,326,082	2.9	8
충남	46	2.7	12	3,637,628	2.0	11
전북	104	6.0	6	11,423,356	6.3	4
전남	106	6.2	5	3,144,336	1.7	12
경북	146	8.5	3	6,591,536	3.6	7
경남	104	6.0	6	11,007,796	6.1	5
제주	43	2.5	13	1,942,685	1.1	14
계	1,720	100.0	-	181,426,789	100.0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많은 금액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였다. 경기는 346개 사회적기업이 약 398억 원을, 서울 지역은 277개 사회적기업이 약 634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였다.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96개 기업이 약 136억 원을 재투자하여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재투자 금액은 많았다.

한편, 아래 <표 3-2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금액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금액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전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구성원 성과급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6	164,647	5	64,490	2	121,610	12	120,700	6	78,702	5	29,612
	2008	53	103,360	19	50,023	15	188,440	30	41,834	27	14,009	7	9,678
	2009	24	61,289	5	28,389	8	63,092	12	46,728	13	4,480	4	51,321
	2010	69	114,788	20	254,643	25	21,564	40	43,056	35	9,548	13	17,842
	2011	54	613,127	14	1,430,145	14	271,942	33	228,397	23	24,297	10	118,372
	2012	63	75,936	11	66,926	22	48,030	42	52,987	28	18,480	9	27,580
	2013	102	194,673	30	88,215	36	281,447	64	56,657	47	60,738	10	59,739
	2014	119	72,660	33	52,544	41	50,488	66	45,389	57	18,085	21	38,858
	2015	135	126,565	40	177,145	49	18,671	75	94,309	75	8,583	23	59,505
	2016	156	71,624	47	52,246	61	24,896	93	42,525	86	10,657	38	61,256
	2017	158	44,698	46	47,308	60	18,557	86	26,481	85	7,898	35	23,540
	2018	213	100,918	74	101,406	80	53,813	123	29,440	129	8,219	43	116,394
2019	278	81,064	101	75,543	122	49,675	153	41,007	143	9,676	53	22,403	
2020	280	64,904	108	79,071	119	31,578	174	20,429	155	7,437	41	28,48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173	108,788	387	137,014	393	37,965	706	60,614	647	11,126	207	46,720
	사회서비스제공형	99	82,949	24	85,729	59	75,926	51	19,070	35	6,886	14	32,945
	혼합형	117	99,320	36	139,692	59	76,388	61	16,750	55	6,990	18	37,683
	기타(창의·혁신)형	191	135,625	60	72,660	83	147,733	108	18,531	93	38,027	43	87,092
	지역사회공헌형	140	57,721	46	55,801	60	44,682	77	17,360	79	8,517	30	27,44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17	151,623	35	151,351	44	124,118	57	34,770	48	20,545	18	222,961
	비영리민간단체	24	31,334	5	7,196	7	31,160	18	10,360	4	55,831	3	29,368
	사회복지법인	27	79,529	11	63,602	5	13,768	19	69,912	5	1,847	4	10,311
	상법상회사	1,241	112,177	407	133,198	467	53,176	723	56,558	693	13,934	235	40,9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101,727	1	205,069	2	72,627	5	14,988	5	12,507	4	56,070
	영농조합법인	71	50,085	20	50,841	21	9,775	48	24,459	39	8,196	14	60,01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33	74,279	74	75,287	108	73,313	133	18,711	115	6,749	34	16,267
기타형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720	105,480	553	121,225	654	59,403	1,003	47,982	909	13,238	312	49,292	

주: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인증기업의 전체 재투자 금액이 약 6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3년과 2007년 인증기업이 각각 약 1억 9천만 원, 약 1억 6천만 원으로 많았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별로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11년 인증기업은 14개 기업이 평균 약 14억 3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고, 구 성원성과급 역시 2011년 인증받은 33개 기업이 약 2억 3천만 원을 배분하여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2013년 인증받은 36개 기업이 약 2억 8천만 원을 배분하여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재투자는 2007년 인증받은 6개 기업이 약 8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그 외 기타 재투자 금액으로는 2011년 인증받은 10개 기업이 약 1억 2천만 원을 배분하여 기업의 인증연도에 따라 재투자 하는 항목이 다소 상이한 경향이 도출되었다.

인증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1,173개소로 기업 수가 가장 많아서 사회적기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재투자 금액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인증유형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재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기타(창 의·혁신)형이 약 1억 4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6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민법상법인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재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재투자 금액은 약 3천 1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3-25>는 2018~2020년 기간 동안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금액 추이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의 경우도 기업이 나름의 기준으로 임의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8~2020년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에 모두 포함된 1,9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실시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8년 1,223개에서 2019년 964개로 급감했지만, 2020년 1,161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평균금액은 2018년 약 9천 3백만 원에서 2019년 약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2018년에서 2019년에 급감하였다가 2020년에 급증하는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평균금액의 경우, 각 기업 구분별로 연도별 추이는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유형에서 2018년 대비 2020년 평균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금액 추이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5	242,660	12	216,097	16	164,647
	2008	55	85,503	38	100,362	53	103,360
	2009	24	48,793	20	78,702	24	61,289
	2010	73	57,284	51	122,742	69	114,788
	2011	53	266,385	33	207,847	54	613,127
	2012	61	59,717	53	57,635	63	75,936
	2013	115	172,062	79	254,321	101	193,202
	2014	122	74,217	85	96,717	119	72,660
	2015	161	75,803	120	120,408	135	126,565
	2016	158	86,401	130	68,260	156	71,624
	2017	184	50,796	153	59,572	158	44,698
2018	202	91,192	190	59,382	213	100,91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864	85,506	681	80,538	808	121,058
	사회서비스제공형	66	78,465	54	155,590	61	93,515
	혼합형	88	68,951	69	61,521	101	109,153
	기타(창의·혁신)형	142	161,111	98	247,211	119	178,381
	지역사회공헌형	63	93,955	62	72,040	72	63,93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90	67,941	66	110,772	94	174,943
	비영리민간단체	26	39,616	14	37,644	23	32,188
	사회복지법인	23	152,922	12	57,425	27	79,529
	상법상회사	889	102,344	713	107,717	826	130,38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712	-	-	2	12,847
	영농조합법인	55	84,393	48	70,865	55	53,561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138	55,309	111	67,167	134	77,383
	기타	-	-	-	-	-	-
전체	1,223	93,149	964	99,778	1,161	120,908	

주: 평균금액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2018, 2019, 2020 세 개 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1,921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성과, 지출 구조,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일반인 고용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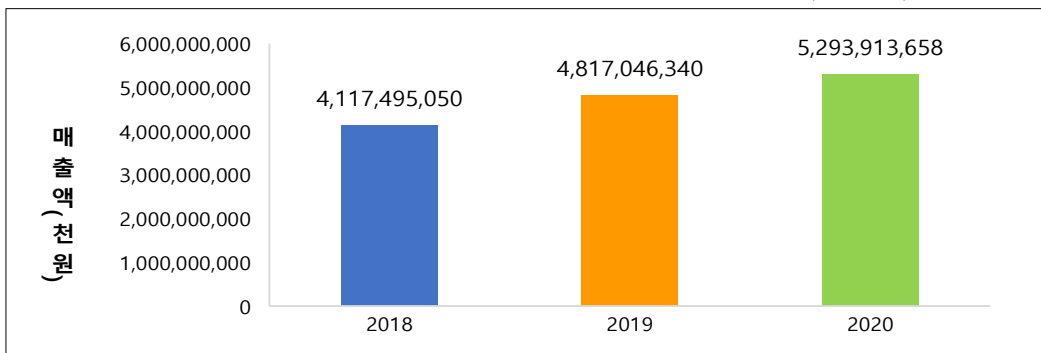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 1. 매출액

먼저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 총액은 다음 [그림 4-1]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20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5조 2천9백억 원의 매출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4천7백7십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8~2019년 사이의 약 7천억 원의 매출 총액 증가폭보다 더 작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4-1] 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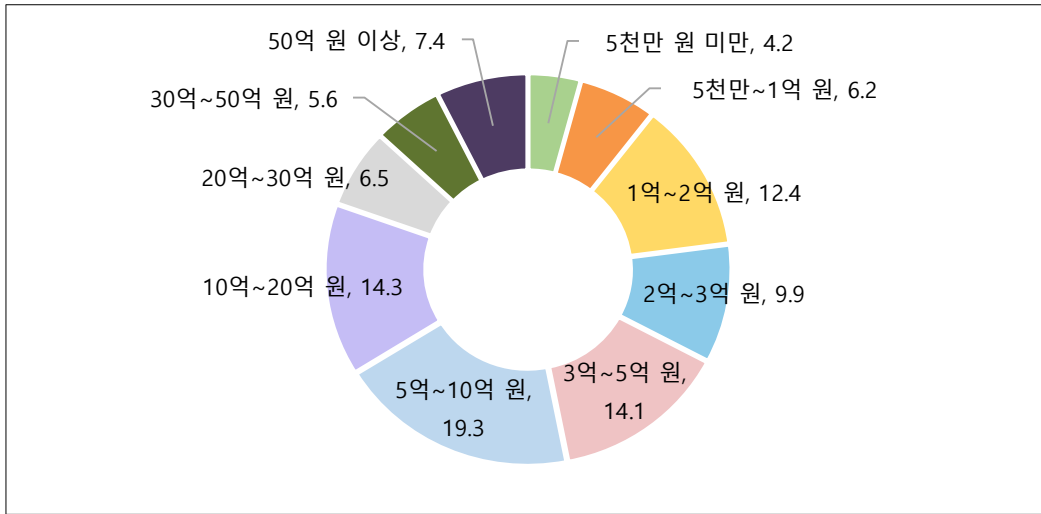
(전체 2,707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2]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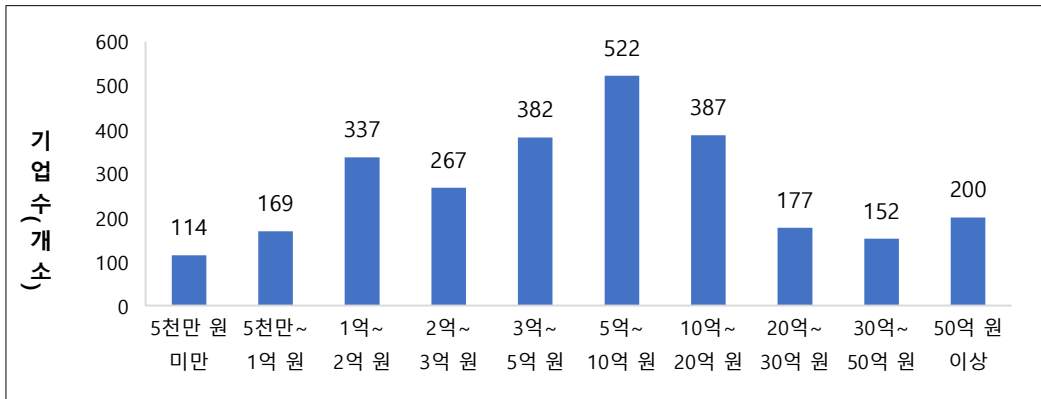
(전체 2,707개소, 단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3]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707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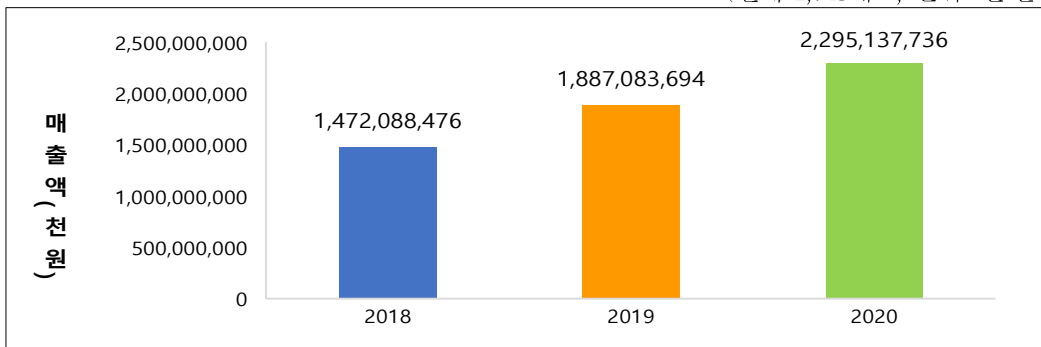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2]와 [그림 4-3]은 2020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분포 및 매출액에 따른 기업 수이다. 전체 2,707개의 매출액이 있는 사회적기업 중 5억~10억 원 사이의 매출액을 달성한 곳이 522개소(19.3%)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10억~20억 원 사이가 387개소(14.3%), 3억~5억 원 사이가 382개소(14.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4]~[그림 4-8]은 앞서 보고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4]와 같이,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1,745개소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 규모는 약 2조 2천9백5십억 원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5]와 [그림 4-6]을 통해 살펴보면,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56개소(14.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5천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49개소(14.3%), 1억~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33개소(12.8%)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4-4] 공공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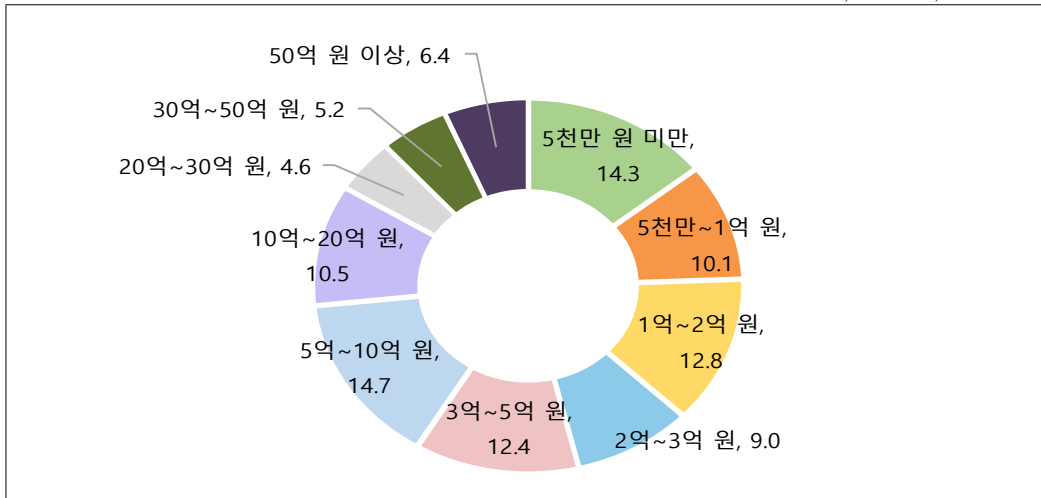
(전체 1,745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5]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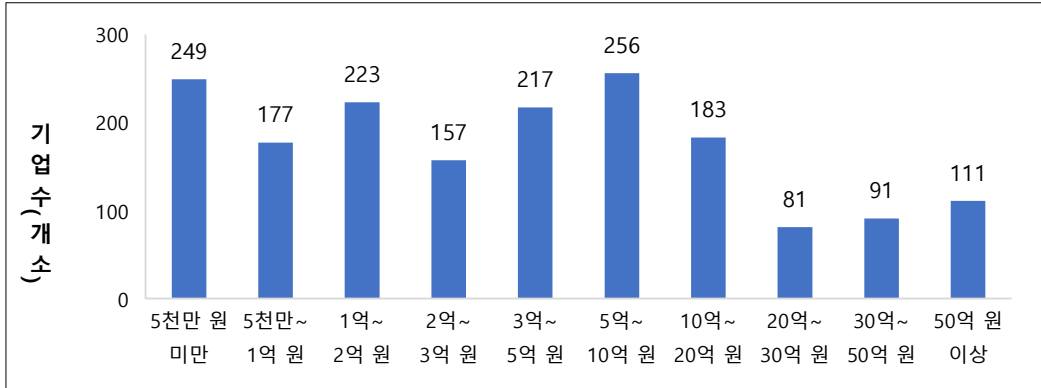
(전체 1,745개소,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6]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1,745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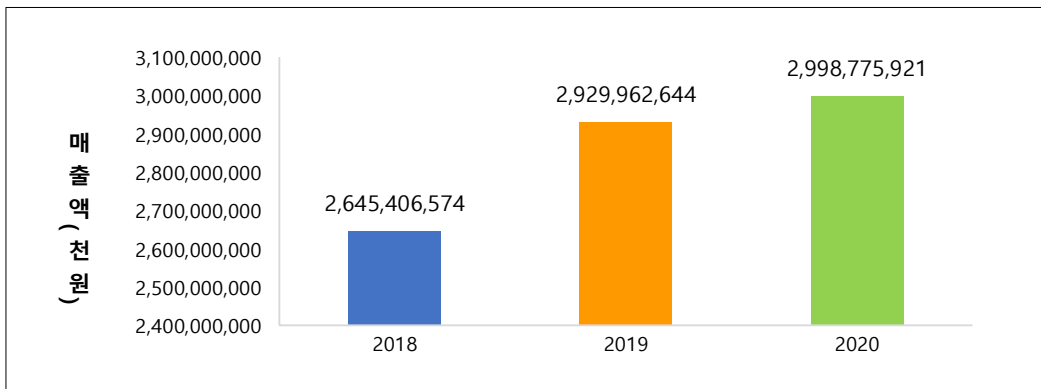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7]과 같이, 민간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356개소이며 민간매출 총액의 평균은 약 2조 9천9백9십억 원으로 공공매출에 비해 매출 규모가 더 컸고, 민간매출 역시 공공매출과 마찬가지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8]과 [그림 4-9]를 통해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는 1억~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395개소(1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72개소(15.8%),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27개소(13.9%)로 나타났다.

[그림 4-7] 민간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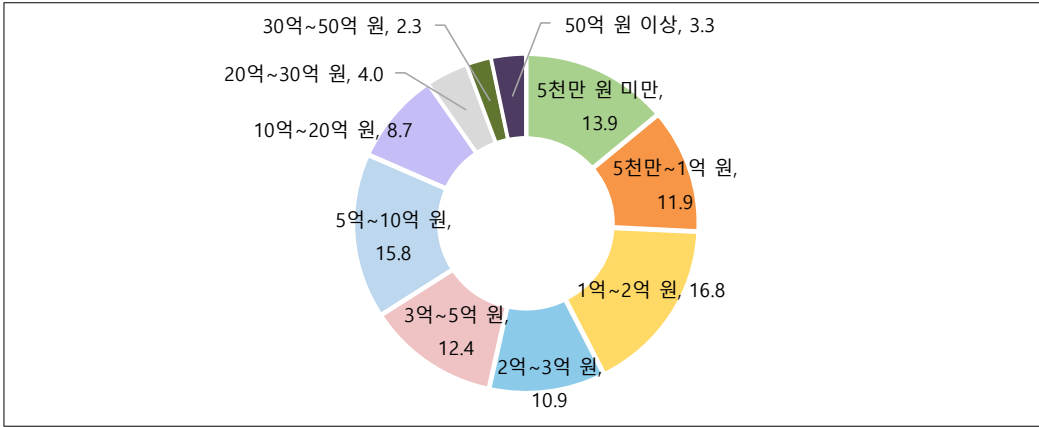
(전체 2,356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8]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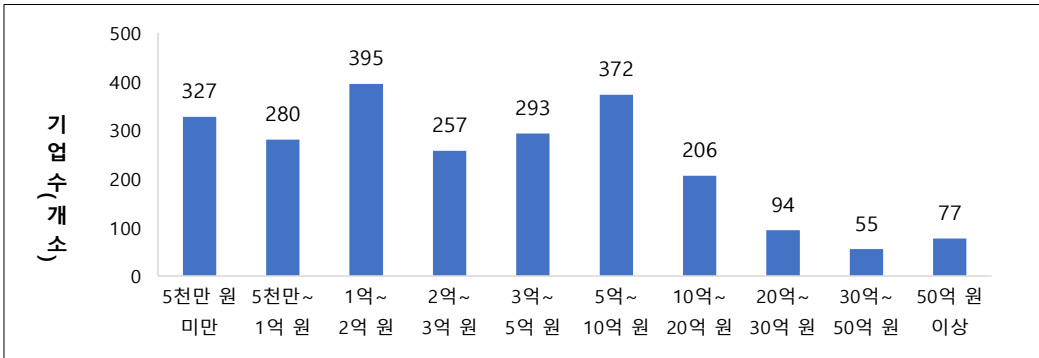
(전체 2,356개소, 단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9]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356개소, 단위: 개소)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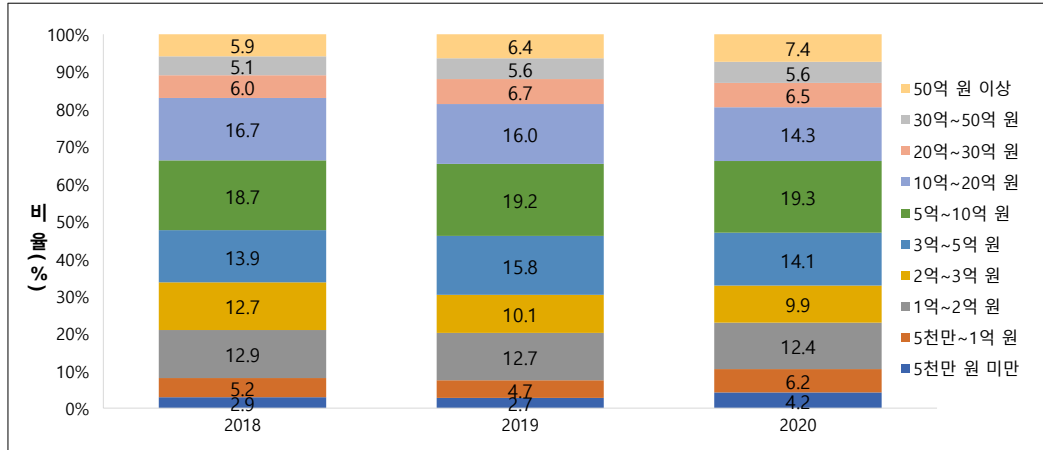
한편, 다음의 [그림 4-10]~[그림 4-18]은 2018~2020년도에 걸쳐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분포와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그림 4-10]과 [그림 4-11]의 연도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매출액 분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5~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18.7%에서 19.2%, 19.3%로 점차 근소하게 증가하는 반면, 1~2

억 원 사이와 2억~3억 원 사이 매출 규모의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점차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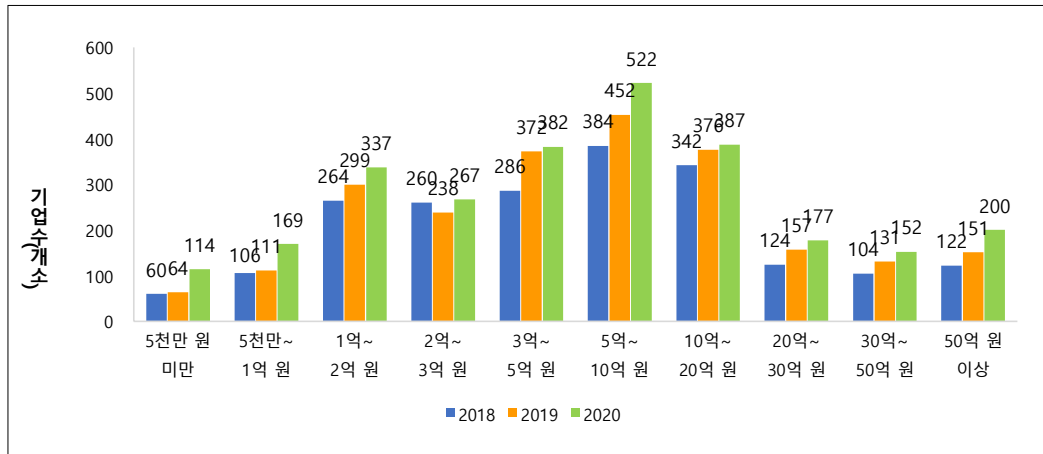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11] 연도별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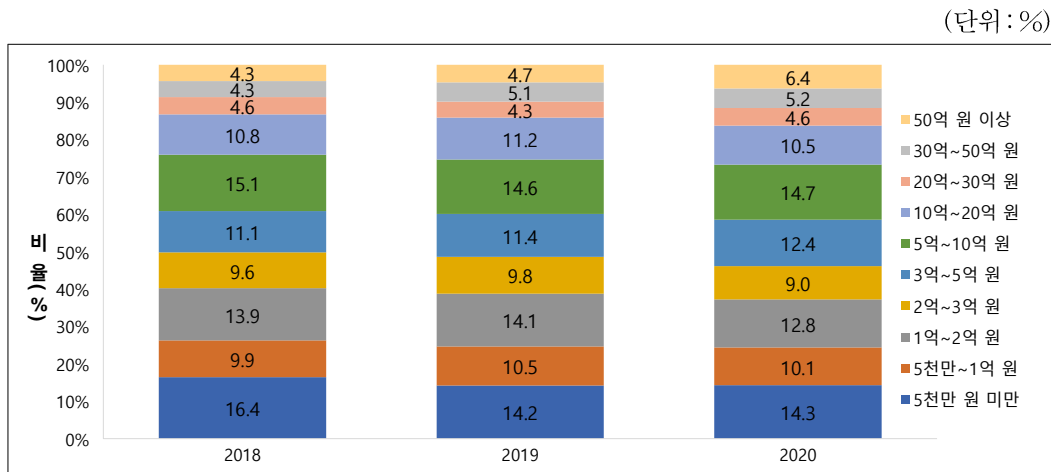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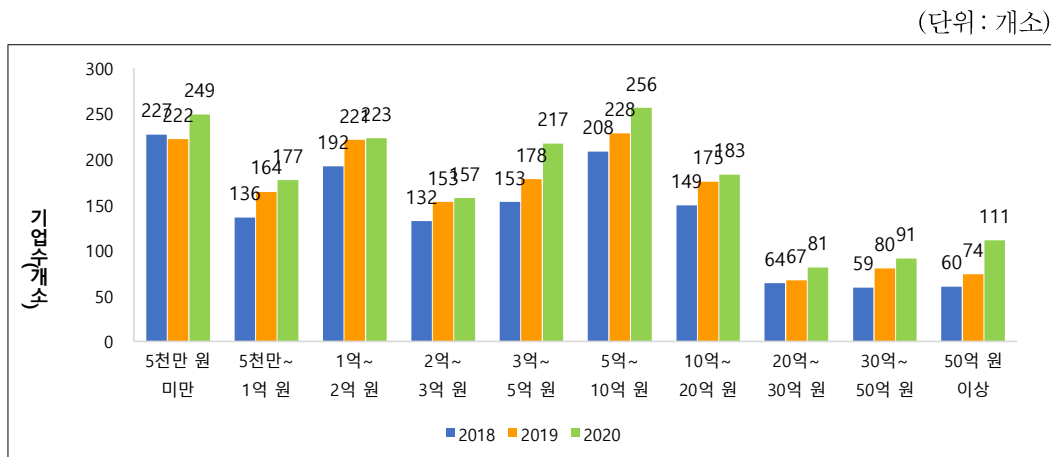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 4-12]와 [그림 4-13]의 연도별 공공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추이와 유사하게 큰 변동은 없으나, 대체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다만, 3억~5억 원, 30억~50억 원 및 50억 원 이상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근소하게 증가하는 반면, 매출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인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근소하게 감소,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12]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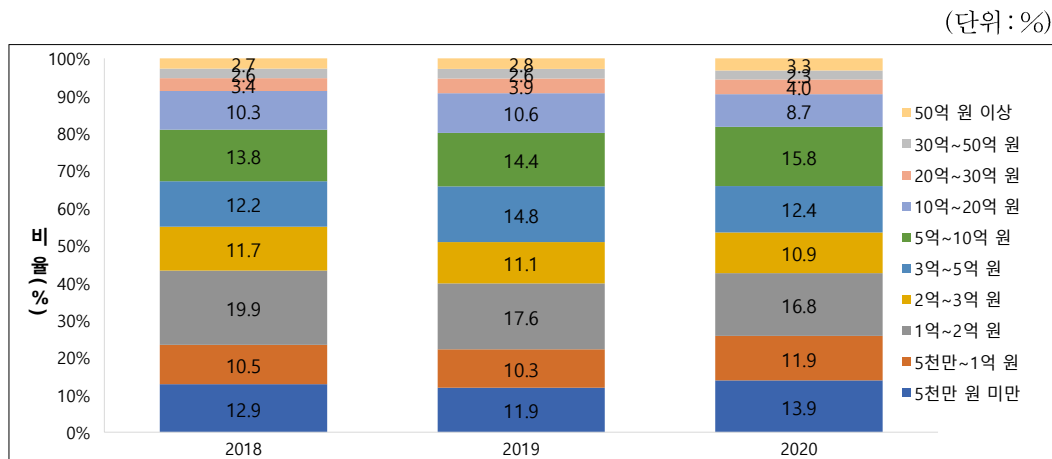
[그림 4-13]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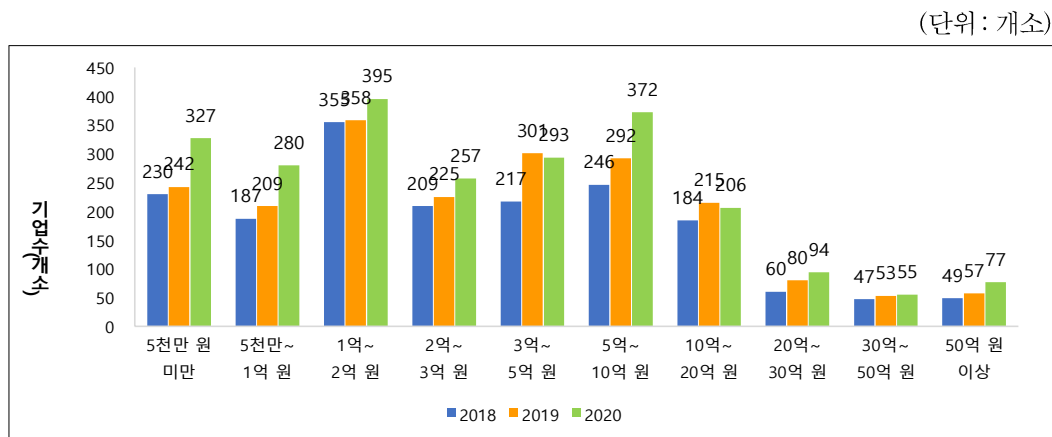
한편, [그림 4-14]와 [그림 4-15]의 연도별 민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그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민간매출 규모가 1억~2억 원 사이 및 2억~3억 원 사이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근소하게 감소하고, 5억~10억 원 사이 및 20억~30억 원 사이, 50억 원 이상 구간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4] 연도별 민간매출액 분포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15]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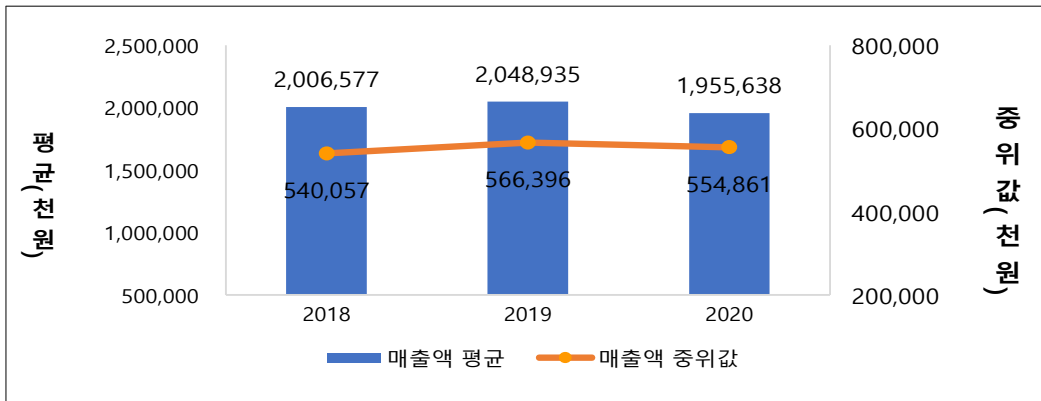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16]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매출액 평균은 근소하게 상승 후 하락하고 있었으며, 2018년(약 20억 6천만 원)에 비해 2019년(약 20억 4천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약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약 19억 5천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4.6%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중위값 또한 상승 후 하락하여 2019년은 약 4.9% 성장률을, 2020년은 약 2.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6]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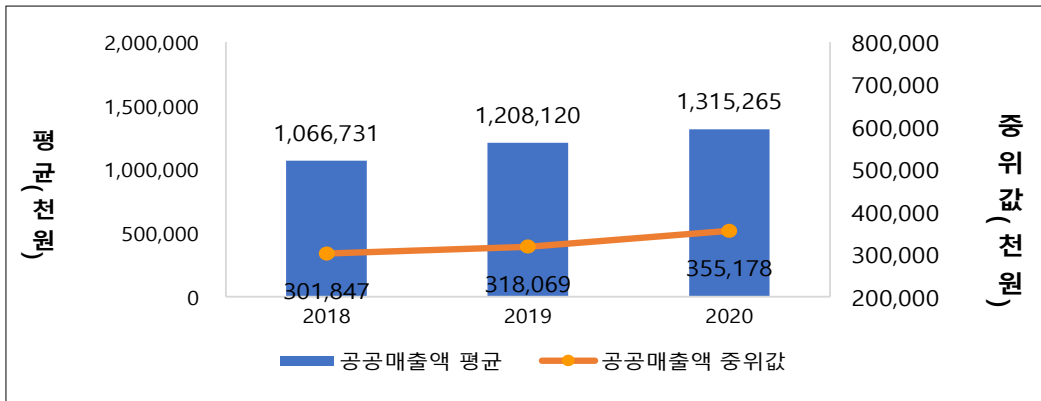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17]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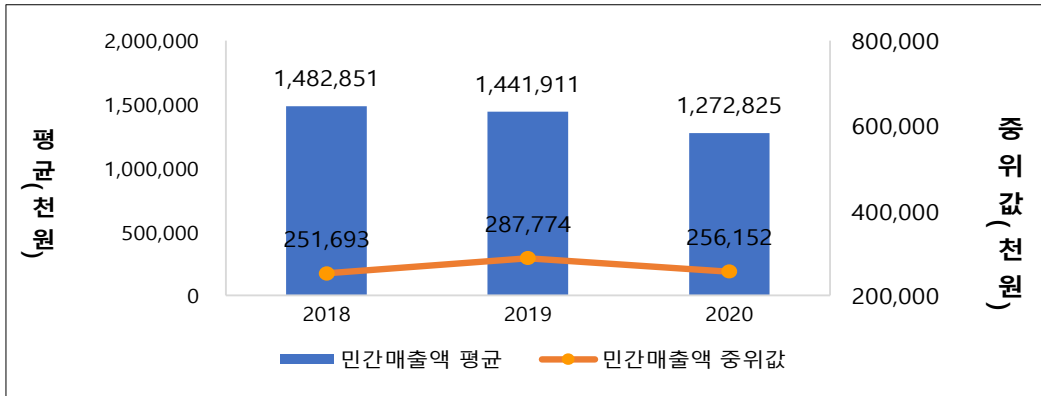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18]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17]과 [그림 4-18]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 매출액의 평균은 2018년 약 10억 7천만 원, 2019년 약 12억 8천만 원(전년 대비 13.3% 증가), 2020년 약 13억 2천만 원(전년 대비 8.9% 증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값은 2018년 약 3억 원에서 2019년 약 3억 2천만 원(전년 대비 5.4% 증가)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약 3억 6천만 원(전년 대비 11.7% 증가)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 민간 매출액의 평균은 2018년 약 14억 8천만 원에서 2019년 약 14억 4천만 원(전년 대비 2.8% 감소)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 12억 7천만 원(전년 대비 11.7% 감소)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민간 매출액의 중위값은 2018년 약 2억 5천만 원에서 2019년 약 2억 9천만 원(전년 대비 14.3% 증가)으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약 2억 6천만 원(전년 대비 11.0% 감소)으로 줄었다.

다음으로 아래 <표 4-1>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 평균과 중위값을 총매출액과 공공/민간시장매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고 총 매출액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년과 같이 서울(약 41억 5천만 원, 502개소)이었고, 다음으로 경기(약 22억 4천만 원, 470개소), 경북(약 18억 2천만 원, 173개소), 충북(약 16억 1천만 원, 1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위값이 높은 지역은 경기(약 9억 3천만 원), 경북(약 7억 3천만 원), 제주(약 6억 3천만 원), 전북(약 6억 1천만 원) 순이었다. 세종을 제외하면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20억 4

천만 원, 348개소)이었고, 경기(약 19억 1천만 원, 342개소), 강원(약 14억 7백만 원, 91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31억 8천만 원, 431개소)이었고, 경북(약 15억 1천만 원, 157개소), 전북(약 10억 9천6백만 원, 13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장매출 평균이 민간시장매출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이었으며, 반대로 민간시장매출 평균이 공공시장매출 평균보다 더 많은 지역은 서울, 대전, 울산, 전북,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대전, 전남, 경남의 경우, 공공과 민간시장매출의 평균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기업의 분포 및 특성,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공공기관들의 입지 등 여러 요인의 지역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t;표 4-1&gt; 지역별 매출액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	4,154,224	502	559,503
	공공시장매출	2,041,965	348	358,601
	민간시장매출	3,189,829	431	289,000
부산	매출	859,748	135	333,040
	공공시장매출	816,423	82	224,256
	민간시장매출	416,265	118	177,416
대구	매출	852,050	97	368,090
	공공시장매출	663,455	65	282,610
	민간시장매출	459,583	86	174,150
인천	매출	1,083,798	166	470,710
	공공시장매출	815,591	97	251,104
	민간시장매출	685,701	147	264,471
광주	매출	1,145,488	123	517,209
	공공시장매출	1,057,743	70	296,599
	민간시장매출	602,279	111	309,664
대전	매출	1,202,972	76	520,035
	공공시장매출	799,192	42	445,020
	민간시장매출	904,059	64	221,349
울산	매출	870,440	94	457,027
	공공시장매출	467,335	58	190,311
	민간시장매출	607,954	90	194,597
세종	매출	2,040,396	16	1,440,303
	공공시장매출	1,538,777	11	1,094,681
	민간시장매출	1,209,214	13	474,070

<표 4-1>의 계속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경기	매출	2,240,724	470	928,890
	공공시장매출	1,913,078	342	607,433
	민간시장매출	1,046,895	381	331,640
강원	매출	1,351,964	146	389,288
	공공시장매출	1,407,001	91	267,801
	민간시장매출	554,797	125	130,431
충북	매출	1,619,820	112	548,734
	공공시장매출	1,275,064	78	443,564
	민간시장매출	853,800	96	230,212
충남	매출	1,226,794	110	485,701
	공공시장매출	917,029	75	340,081
	민간시장매출	655,150	101	231,289
전북	매출	1,458,903	154	610,059
	공공시장매출	721,307	111	390,500
	민간시장매출	1,095,500	132	239,136
전남	매출	1,157,832	148	500,916
	공공시장매출	904,336	68	222,877
	민간시장매출	801,929	137	290,209
경북	매출	1,822,035	173	734,892
	공공시장매출	820,039	95	278,324
	민간시장매출	1,511,517	157	419,143
경남	매출	1,127,562	124	543,455
	공공시장매출	726,247	69	326,533
	민간시장매출	800,952	112	241,738
제주	매출	1,067,610	61	625,590
	공공시장매출	548,671	43	223,327
	민간시장매출	755,115	55	303,642
전체	매출	1,955,638	2,707	554,861
	공공시장매출	1,315,265	1,745	355,178
	민간시장매출	1,272,825	2,356	256,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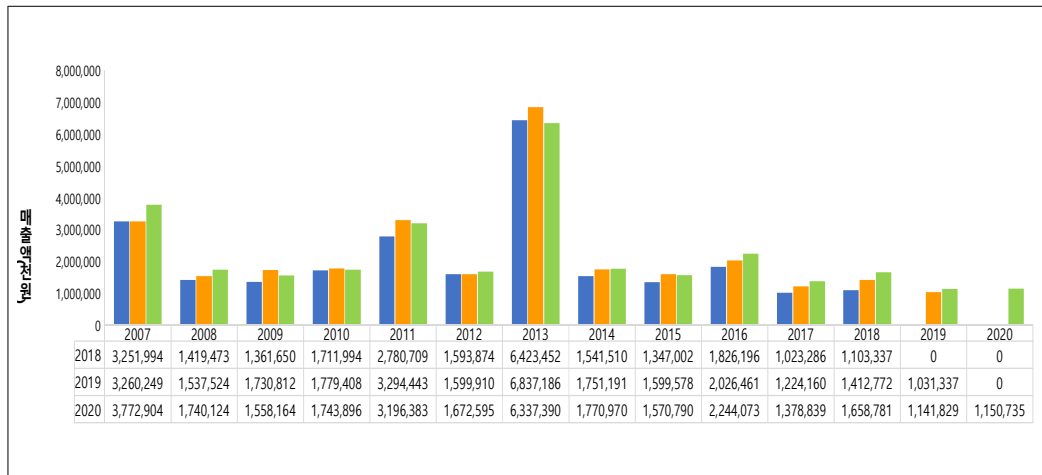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 [그림 4-19]는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은 2018~2020년 동안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균값은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2013년 인증기업이 모두 고르게 높은 매출액을 보고한다기보다는 2013년에 인증받은

특정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다른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2018~2020년에 걸쳐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인증 사회적기업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평균 매출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약 63억 원), 2007년(약 38억 원), 2011년(약 32억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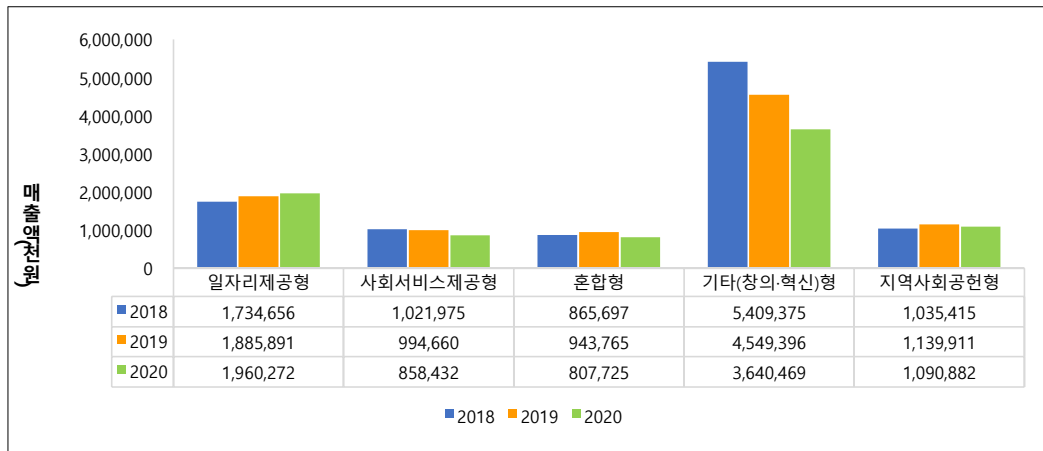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인증유형별로 살펴본 분석 내용은 [그림 4-20]과 같다.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 최근 3년간은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혼합형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년간 일자리제공형의 평균 매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의 평균 매출액은 약 10억 원 내외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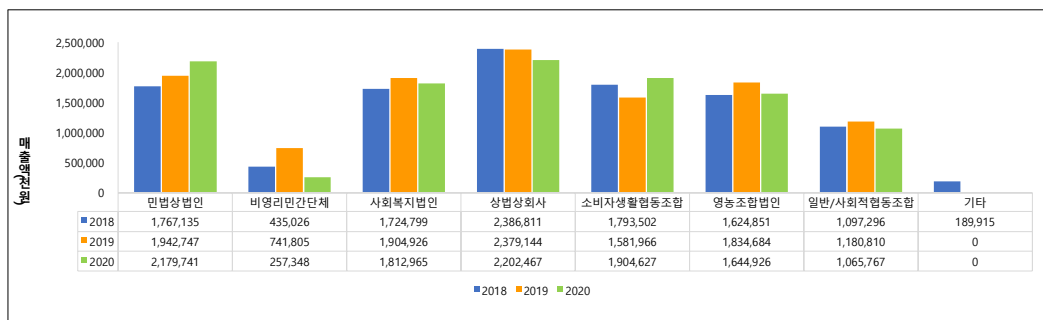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연도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내용을 아래 [그림 4-21]에서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상법상회사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19년에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2019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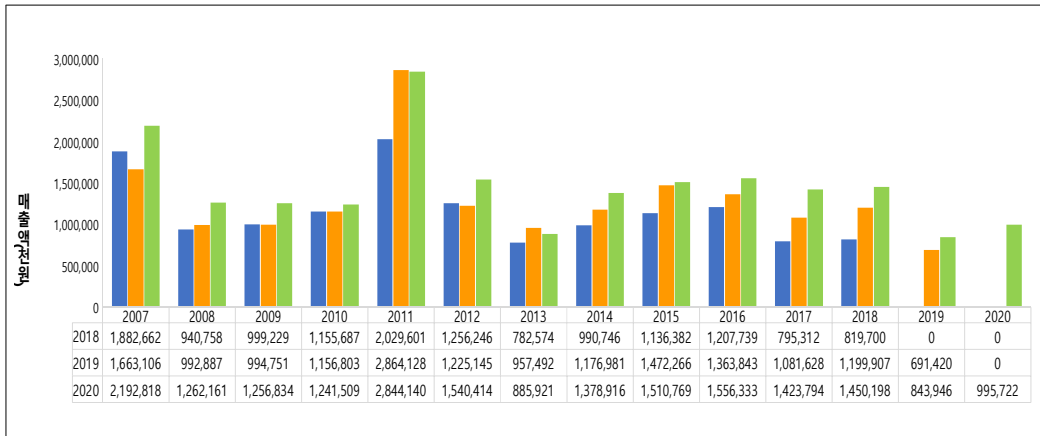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리고 [그림 4-22]는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공공매출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2007년과 2011년의 인증기업이 2018~2020년에 걸쳐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2007년과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공공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2011년(약 28억 4천만 원)과 2007년(약 21억 9천만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2013년(약 8억 9천만 원)과 2019년(약 8억 4천만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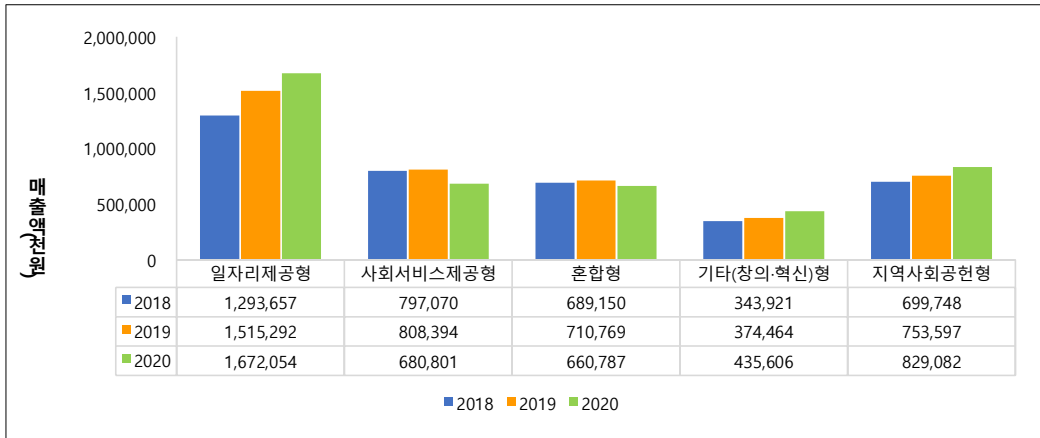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인증유형별로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를 아래 [그림 4-23]을 통해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높았고,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공공매출액 평균이 가장 낮았다. 3년간 대부분의 유형에서 평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매출액 수준도 가장 높고 공공매출액 상승 추세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4-23]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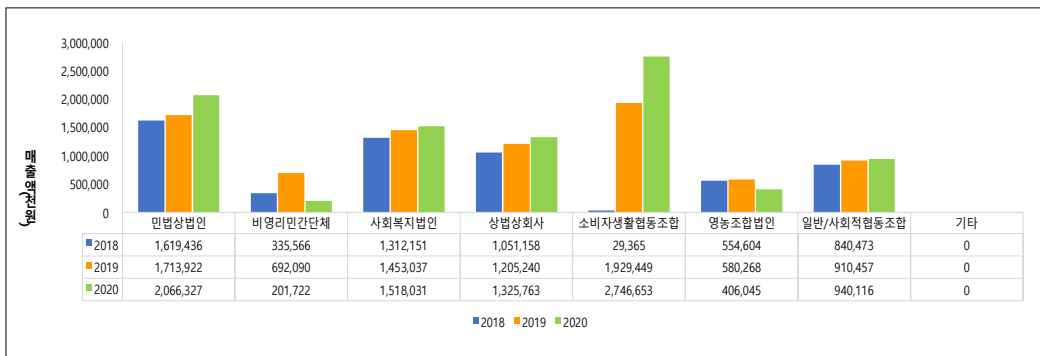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24]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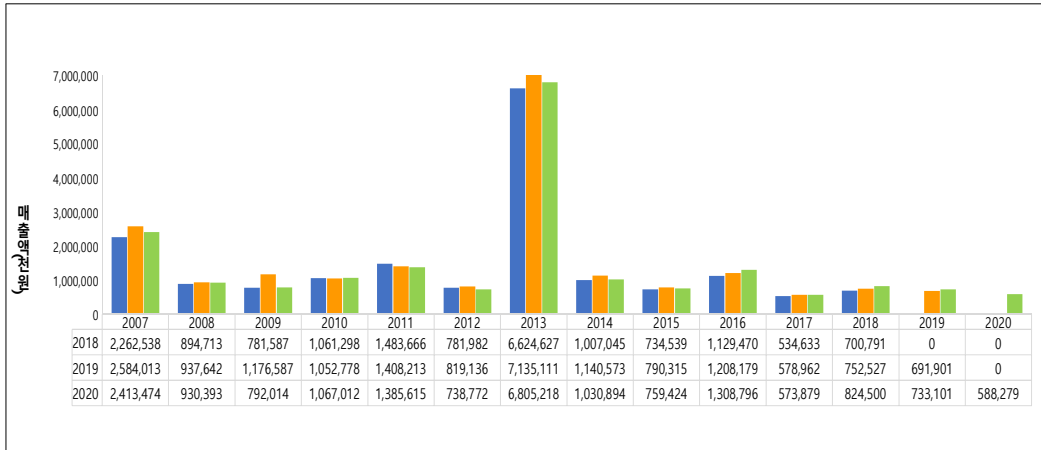
그리고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는 [그림 4-24]에 제시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면 모든 조직형태에서 최근 3년간 공공매출액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민간매출액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 4-25]에서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의 민간매출액 평균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큰 특정기업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외 인증연도의 사회적기업의 민간매출액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4-25]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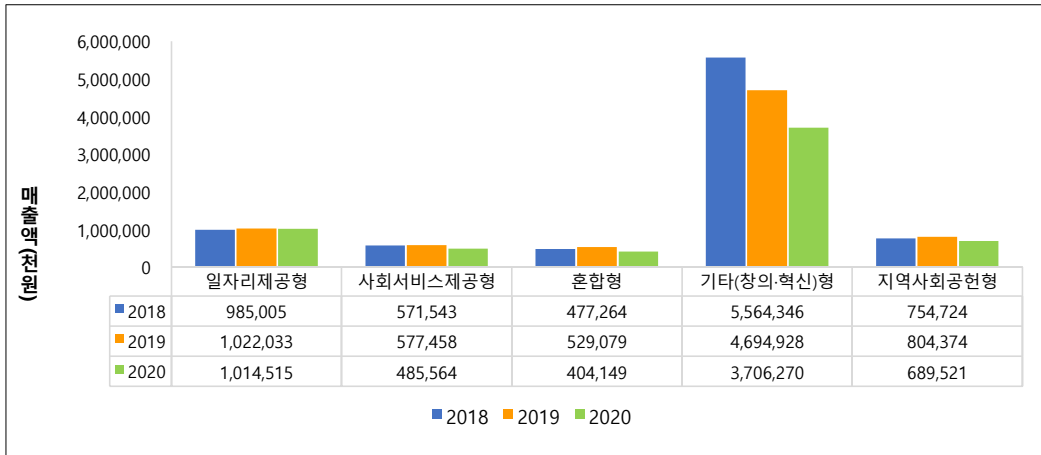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인증유형별로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6]과 같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평균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높고, 3년간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민간매출액 규모가 월등히 큰 특정 사회적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인증되어 있어 극단값이 유형별 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민간매출액 평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일자리제공형의 평균 민간매출액은 최근 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의 평균 민간매출액은 큰 차이는 없으나 소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6]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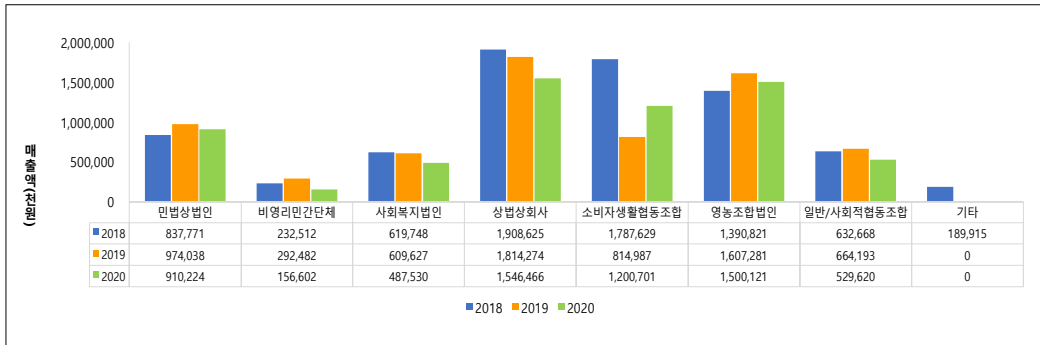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27]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의 민간매출액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18년 이후 민간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에 2018년 민간매출액 평균보다 증가하였다. 민법상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최근 3년간 민간매출액 평균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7]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2. 영업이익(손실)

다음으로 2020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회계처리기준 변화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2016년 이전 인증 사회적기업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제17장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지원 항목인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 〈참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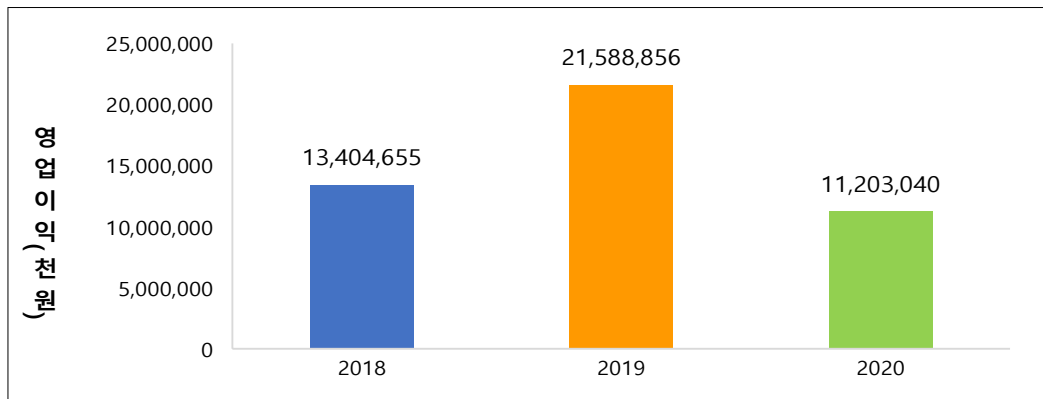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다음의 [그림 4-28]은 2018~2020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18년 약 13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80억 원이 증가하여 약 21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2020년에는 약 1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하여 2019년 증가분을 손실한 것에 더해, 2018년 영업이익 수준보다 더 낮은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이다.

이러한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손실 및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가계 경제 악화, 해외 수출 제한 등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연도별 변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외부 경영환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후 사업보고서 제출 및 집계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8]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전체 2,710개소,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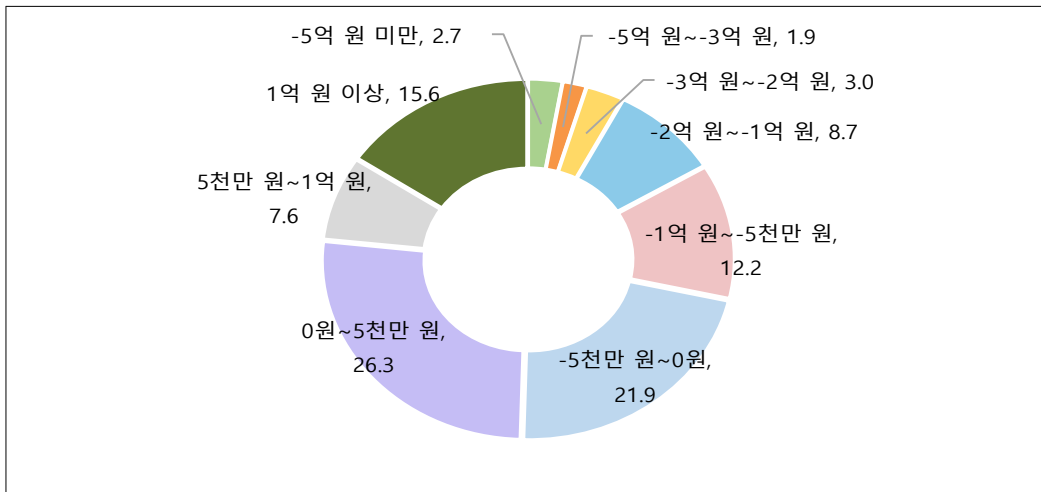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29]와 [그림 4-30]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체 2,710개의 사회적기업 중 49.5%인 1,342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50.5%(1,368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53.9%(1,267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46.1%(1,085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을 보고한 비율이 4.4%p 감소한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도 영업이익이 0~5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회적 기업이 26.3%(712개소)로 가장 많았고,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21.9%(594개소)로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5천만 원~1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7.6%(207개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15.6%(423개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12.2%(331개소)로 나타났고, -5억 원 미만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도 2.7%(73개소)에 달했다. 이러한 분포는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대체로 5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소규모인 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손해를 내고 있는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과 1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각각 423개소(15.6%), 443개소(16.3%)로 나타나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준다.

[그림 4-29] 영업이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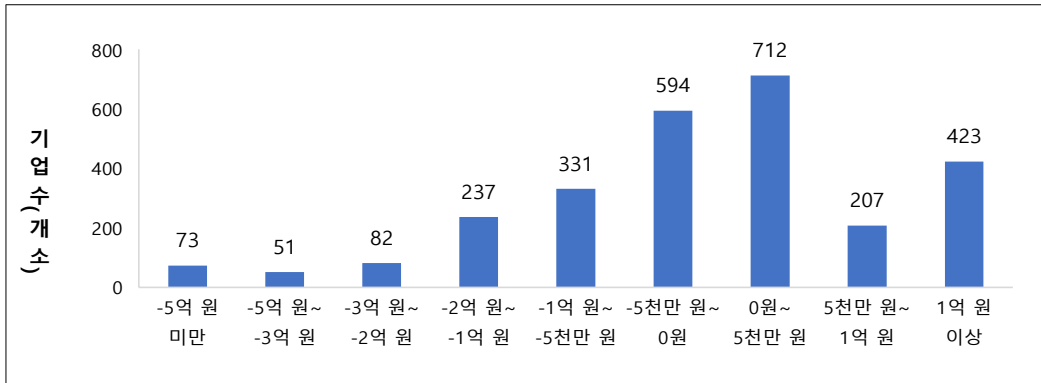
(전체 2,710개소, 단위:%)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30]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710개소, 단위: 개소)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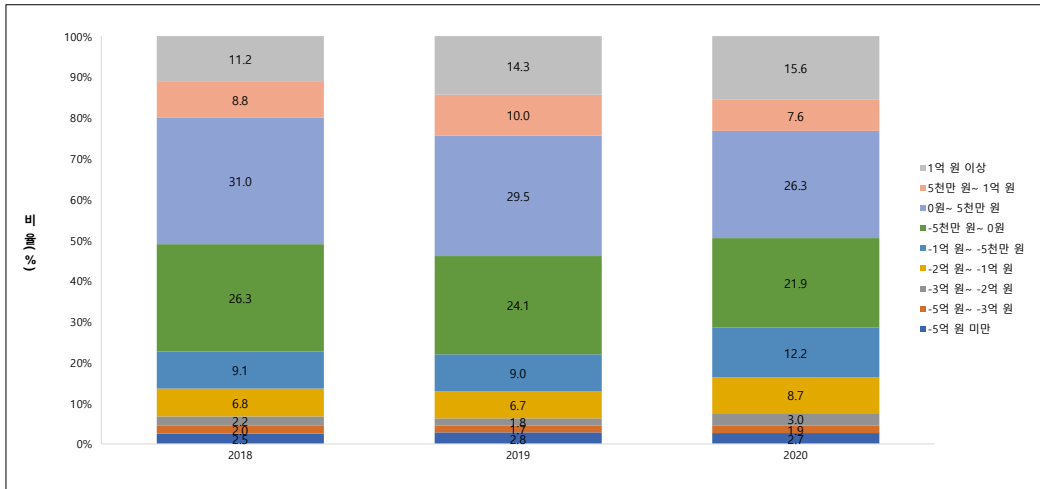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4-31]과 [그림 4-32]는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의 규모는 2019년에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림 4-32]를 보면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1억 원 이상 구간, 0~5천만 원 구간에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5천만 원~1억 원 구간에서는 2019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2020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업의 분포 비율을 [그림 4-31]을 통해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구간은 2018~2019년 약 14.3% 수준에서 2020년에는 약 15.6%로 증가하고, 5천만 원~1억 원 구간은 2018~2019년 약 10.0% 수준에서 2020년에는 약 7.6%로 감소하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0~5천만 원 구간의 경우 2018년 31.0%에서 2019년 29.5%로 1.5%p 감소하고, 다시 2020년에 26.3%로 3.2%p 감소하였다.

반면,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8년 26.3%에서 2019년에 24.1%로 2.2%p 감소하였고, 2020년에 21.9%로 약 2.2%p 다시 감소하였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8년 9.1%에서 2019년 9.0%로 0.1%p 감소하였지만 2020년 12.2%로 약 3.2%p 증가하였다. 나머지 구간의 사회적기업 비율은 큰 변동은 없지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1]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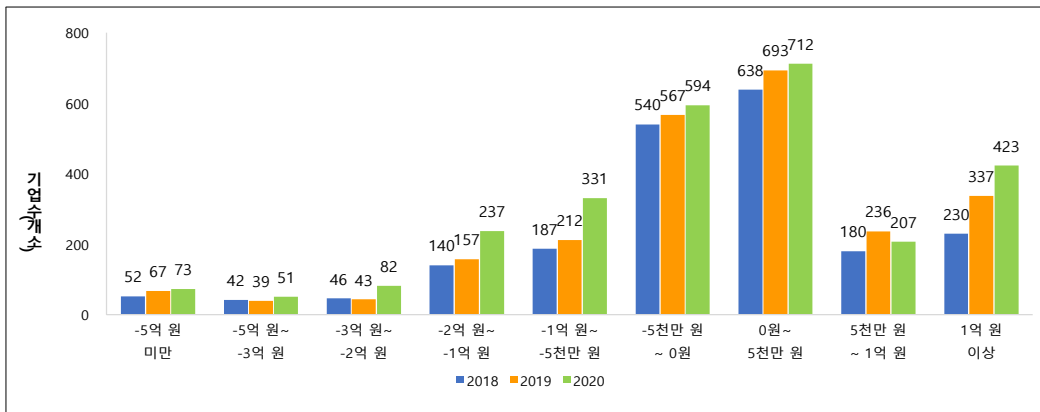
(단위: %)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32]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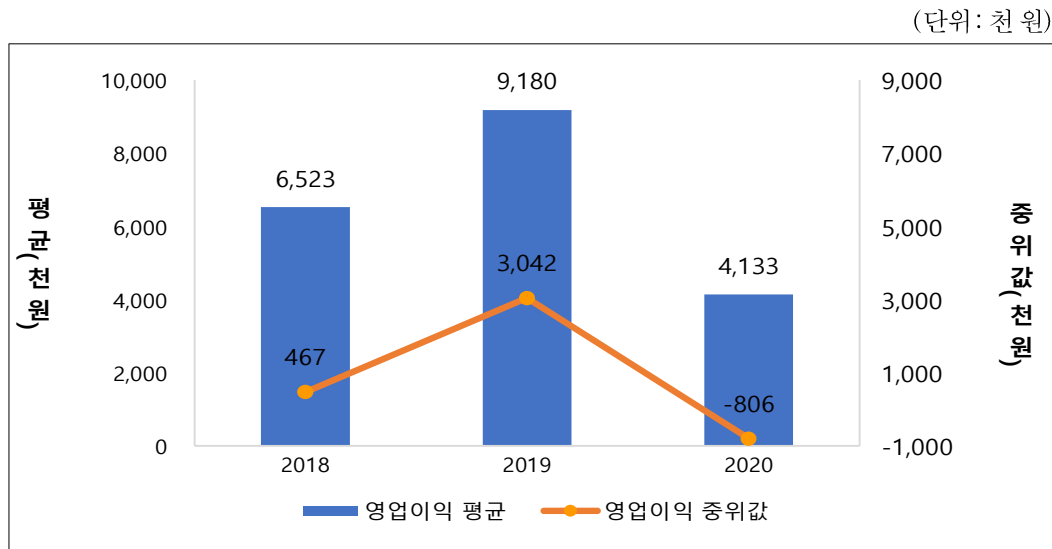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앞서 영업이익 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19년에 잠시 증가되었다가 2020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영업이익 평균과 증위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33]과 같이, 평균

영업이익은 2018년 약 6백5십만 원에서 2019년 약 9백2십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약 4백1십만 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 또한 2018년에 약 47십만 원, 2019년에 약 3백만 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20년 약 마이너스 8십만 원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33]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편, <표 4-2>는 영업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지역별로 영업이익(손실)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1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분포된 세종을 제외하면, 평균 영업이익이 0원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년도보다 1개 지역이 늘어나 전북(약 6천만 원, 154개소), 충남(약 4천1백만 원, 110개소), 경기(약 2천 1백만 원, 471개소), 충북(약 1천8백만 원, 112개소), 서울(약 1천2백만 원, 503개소), 경북(약 9백만 원, 173개소), 경남(약 9백만 원, 124개소), 대전(약 5백만 원, 76개소), 전남(약 4백만 원, 149개소)의 9개 지역만이 0보다 큰 평균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평균 영업손실이 나타난 지역은 제주(약 -9천7백만 원, 61개소), 인천(약 -4천7백만 원, 166개소), 울산(약 -2천 4백만 원, 94개소), 부산(약 -2천1백만 원, 135개소), 강원(약 -1천9백만 원, 147개소), 대구(약 -1천2백만 원, 96개소), 광주(약 -4백만 원, 123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은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이 0원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냈고, 그 외 지역은 영업손실의 중위값을 보고하였다.

<표 4-2>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1,776	503	-13,630
부산	-21,456	135	-14,171
대구	-12,114	96	-8,963
인천	-46,825	166	-7,787
광주	-4,019	123	12,488
대전	5,417	76	-4,643
울산	-24,177	94	-2,140
세종	-69,984	16	-62,753
경기	21,456	471	7,273
강원	-19,063	147	-8,744
충북	18,266	112	4,677
충남	40,566	110	867
전북	60,063	154	7,617
전남	4,636	149	2,460
경북	9,232	173	2,707
경남	9,067	124	4,473
제주	-96,510	61	-17,385
전체	4,133	2,710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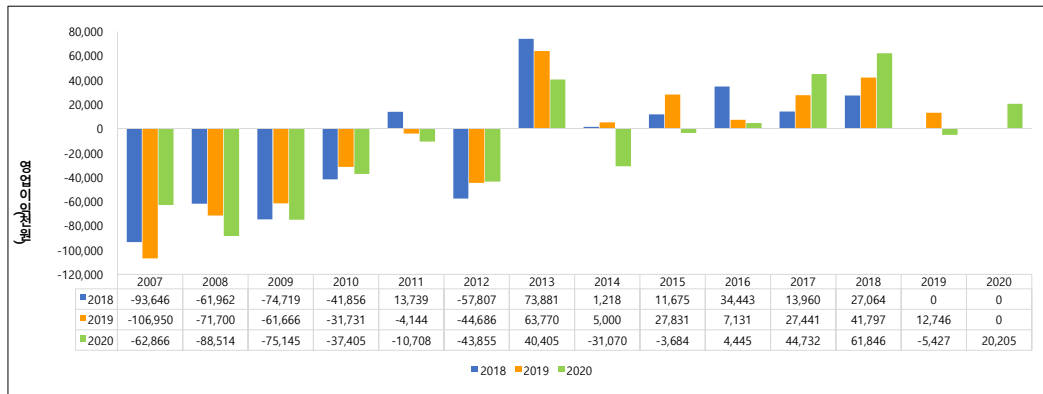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34]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손실)이다. 전반적으로 2007~2010년, 2012년과 같이 초창기에 인증 받은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2013년, 2016~2018년, 2020년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모두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2018~2020년 최근 3년간 약 6천만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2013년에 인증을 받은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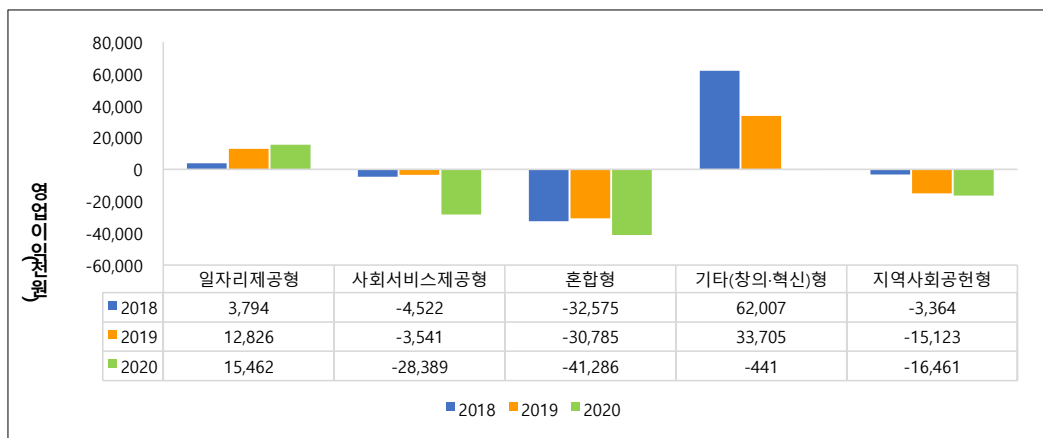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35]는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일자리제공형을 제외한 모든 인증유형에서 전년 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 일자리제공형의 평균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의 평균 영업손실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 평균 영업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2019년 대비 평균 영업손실 감소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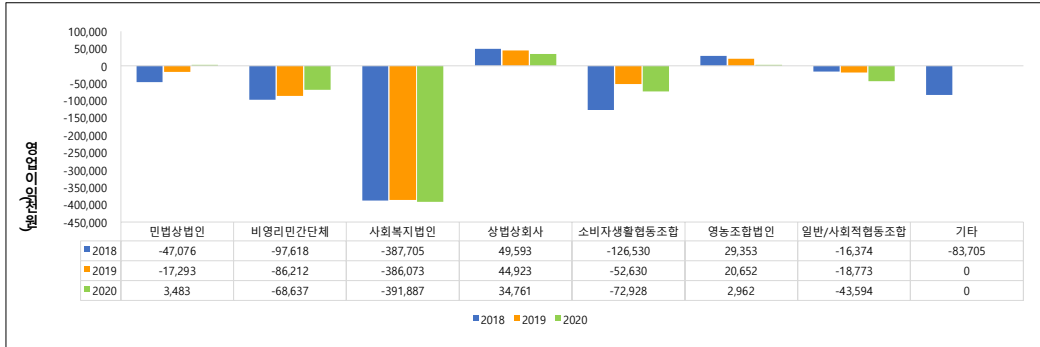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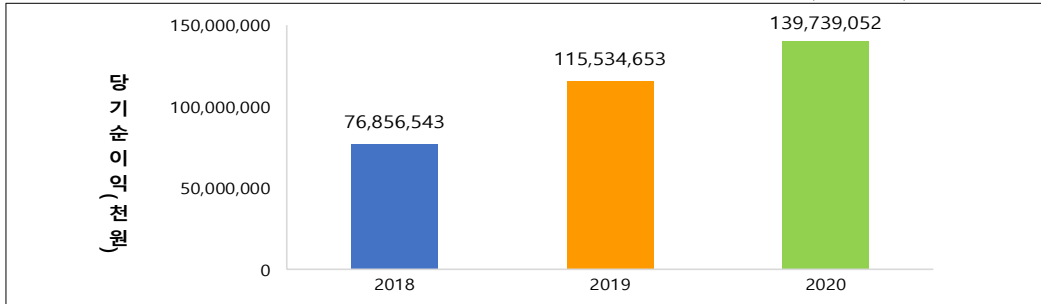
[그림 4-36]은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영업손실은 대체로 2019년에 회복하였다가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2018년에 약 5천만 원에서 2019년 약 4천5백만 원, 2020년 약 3천5백만 원으로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익 또한 2018년 약 2천9백만 원, 2019년 약 2천7십만 원, 2020년 약 3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민법상법인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손실이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 영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는 평균 영업손실을 보고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9년에 영업손실이 감소하였다가 2020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손실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당기순이익(손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37]은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2020년 사회적기업은 전년에 비하여 20.9% 증가한 1,39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전체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4-3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전체 2,702개소,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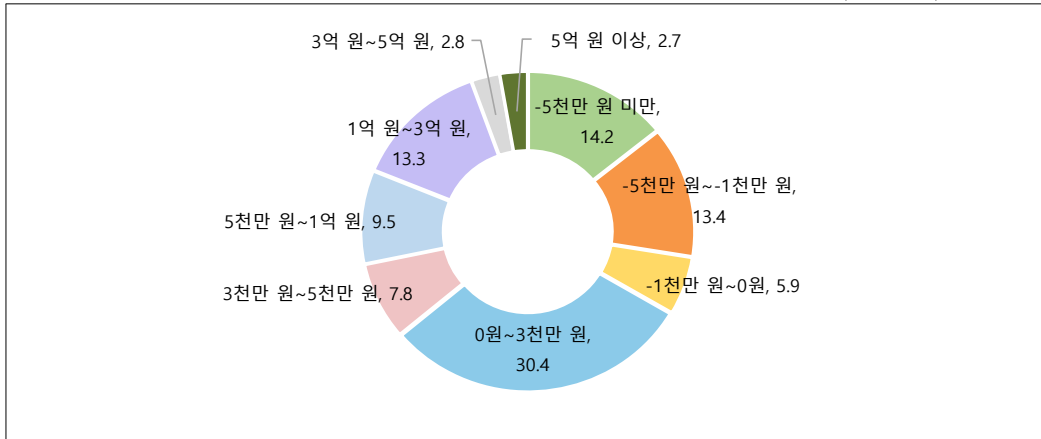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38]과 [그림 4-39]는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2,702개소 중 0~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30.4%(822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천만 원 미만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 14.2%(383개소), 1억 원~3억 원 사이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도 13.3%(359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66.5%(1,798개소)인 반면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33.5%(904개소)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1,690개소, 72.2%)보다 수는 증가했지만,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림 4-38]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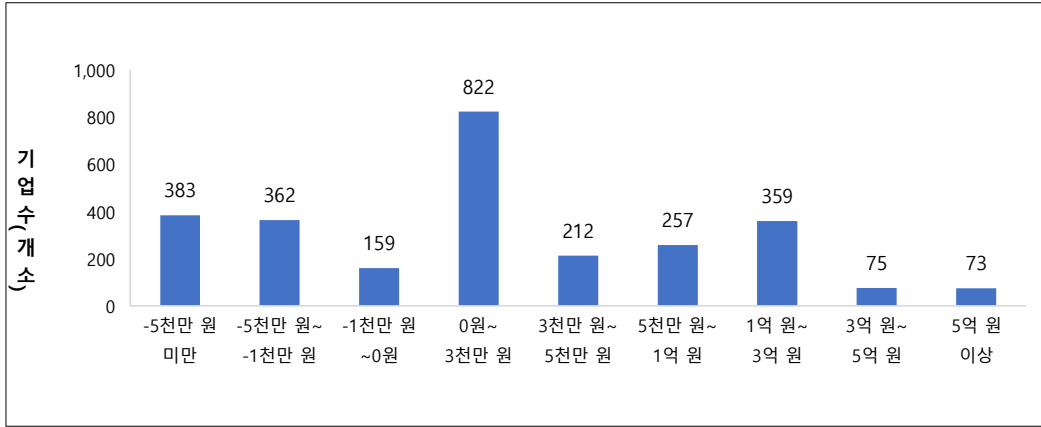
(전체 2,702개소,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39]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702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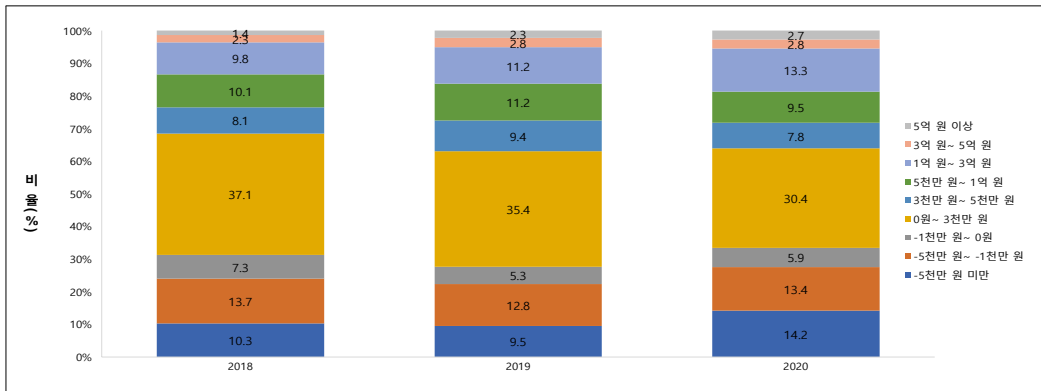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손실)의 기업별 분포의 변화를 다음 [그림 4-40]과 [그림 4-4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나, 1억~3억 원, 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구간이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가장 많은 분포구간인 0~3천만 원 구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의 분포별 기업 수 또한 각 구간별로 대체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이익의 폭이 증가하여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0]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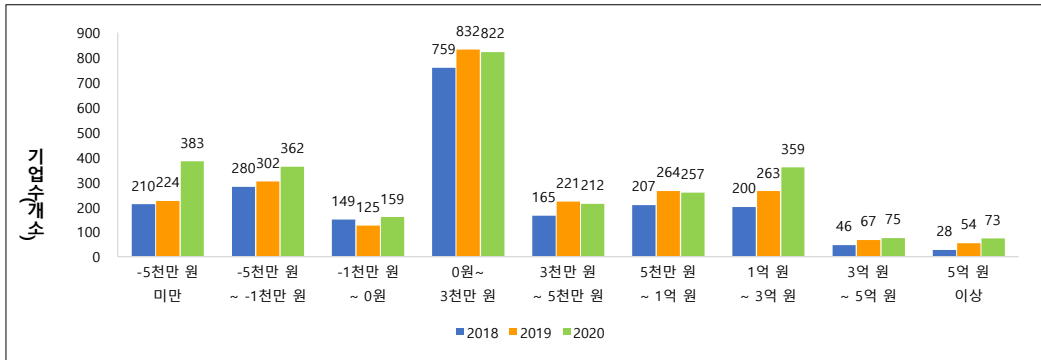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4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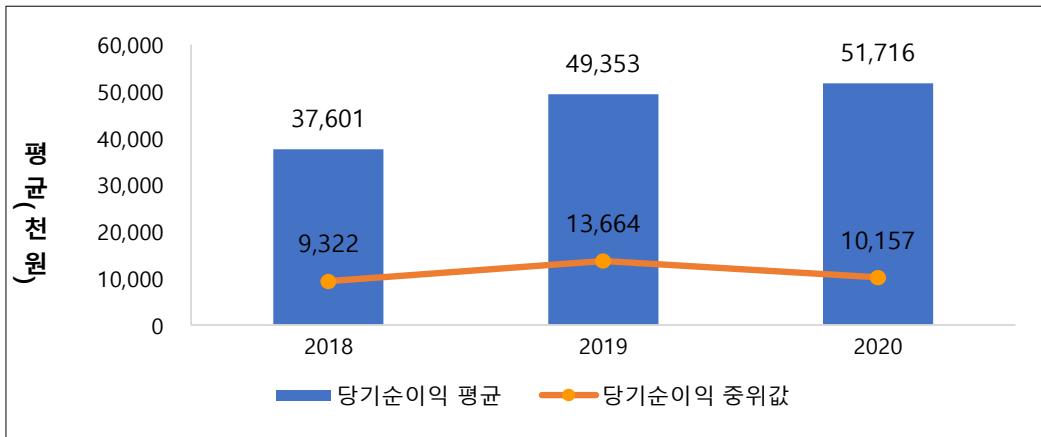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아래 [그림 4-42]는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 및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9년에 약 4천9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 5천2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당기순이익의 중위값 또한 2019년 약 1천3백7십만 원에서 2020년 약 1천2십만 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4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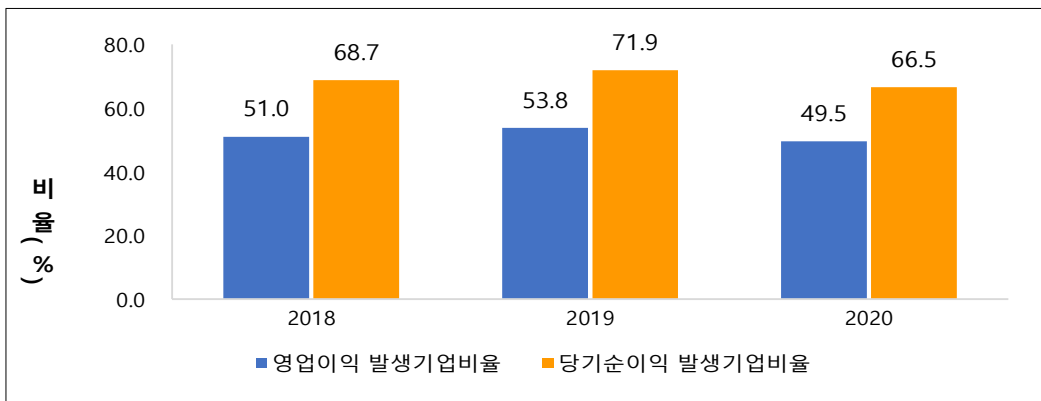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아래 [그림 4-4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당기순이익(손실)의 발생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2018년 68.7%에서 2019년에 71.9%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다시 66.5%로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 또한 2018년 51.0%에서 2019년 53.8%로 2.8%p 증가하였으나, 다시 2020년 49.5%로 감소하였다. 기업의 경영환경 및 성과의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4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단위: %)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아래 <표 4-3>은 2016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로, 모든 지역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인천(약 9천4백만 원), 경기(약 7천7백만 원), 전북(약 6천 9백만 원), 대전(약 5천8백만 원), 광주, 서울(약 5천 2백만 원), 전남(약 4천7백만 원) 등이 당기순이익 평균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위값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약 2천3백만 원)가 가장 높았고, 광주(약 2천1백만 원), 충북(약 2천만 원), 전남(약 1천7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반면에 부산이 약 1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값을 보고하였다.

<표 4-3>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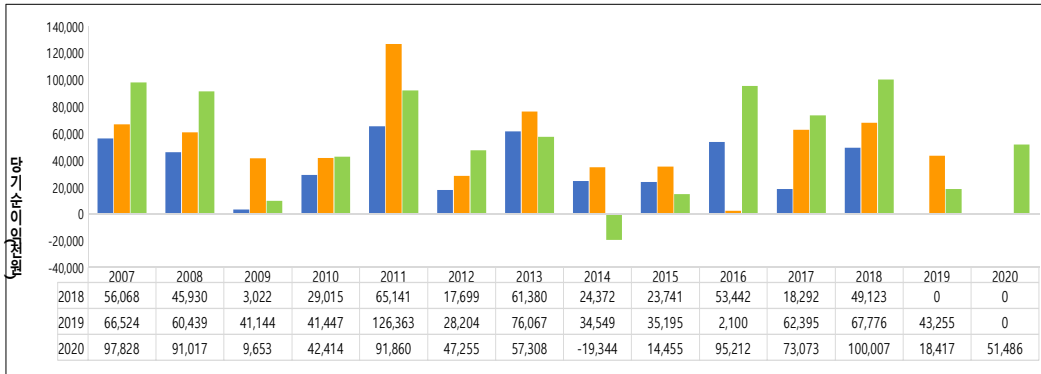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52,516	502	6,663
부산	4,701	134	1,059
대구	29,198	97	10,202
인천	94,455	165	8,922
광주	52,719	119	20,686
대전	58,430	76	3,822
울산	21,923	94	4,400
세종	17,947	16	5,435
경기	76,728	472	22,636
강원	33,543	147	6,834
충북	21,703	112	20,045
충남	45,523	110	5,736
전북	69,151	152	14,326
전남	47,563	149	16,670
경북	45,318	172	11,521
경남	38,225	124	9,784
제주	41,772	61	10,244
전체	51,716	2,702	10,157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 [그림 4-44]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인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연도의 인증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인증연도에 따른 추세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인증기업들이 2020년에 당기순이익 평균이 약 9천만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16년 인증기업들은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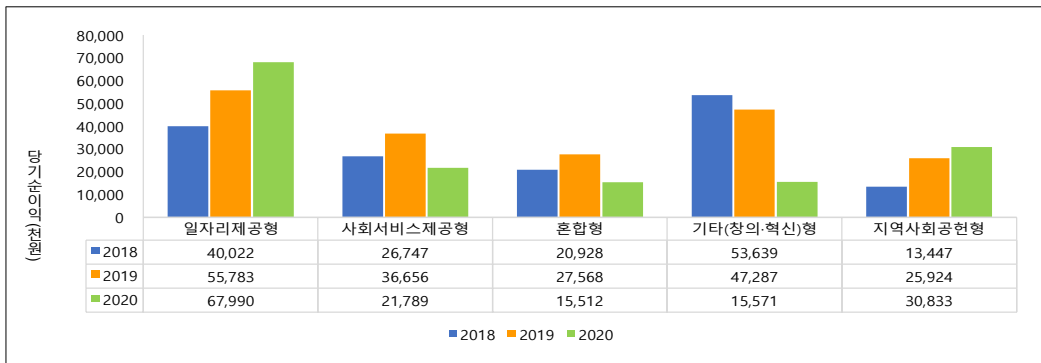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의 [그림 4-45]는 최근 3년간의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고, 2020년은 일자리제공형의 당기순이익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은 2019년에 당기순이익 평균이 다소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다시 2018년보다 더 감소하였다. 기타(창의·혁신)형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다.

[그림 4-4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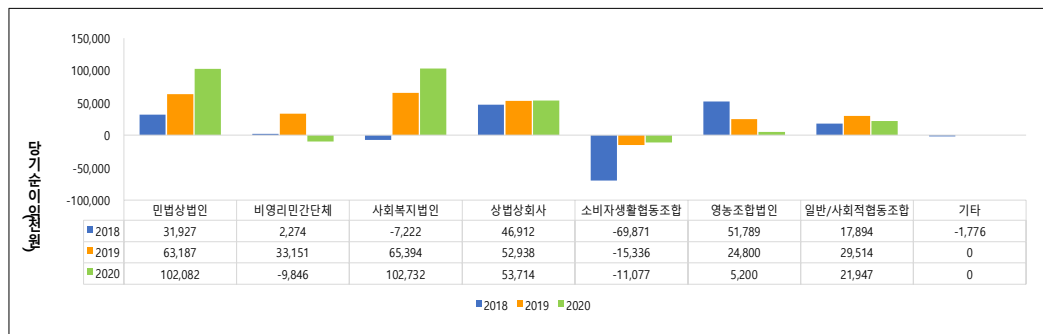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46]은 최근 3년간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과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9년에 당기순손실을 작게 보고하였다가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 폭을 줄였다. 사회복지법인은 2018년에는 약 7백만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다가, 2020년에 약 1억 2천7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1>과 <표 부가분석 4-2>에서는 앞서 정리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총액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4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재정성과분석

###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8, 2019, 2020)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18	2019	2020	
매출액	전체총액	4,117,495,050	4,817,046,340	5,293,913,658	
	인증연도	2007	113,819,791	114,108,698	132,051,651
		2008	151,883,589	159,902,462	174,012,415
		2009	77,614,025	93,463,823	77,908,226
		2010	241,391,160	240,220,141	230,194,278
		2011	297,535,859	345,916,545	319,638,345
		2012	189,670,948	182,389,752	183,985,493
		2013	1,316,807,630	1,346,925,629	1,229,453,794
		2014	332,966,234	357,242,918	352,423,126
		2015	344,832,580	374,301,165	354,998,628
		2016	451,070,481	480,271,221	502,672,422
		2017	257,868,161	298,695,098	321,269,610
		2018	342,034,592	422,418,847	484,364,310
		2019	-	401,190,041	443,029,661
	2020	-	-	487,911,69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399,029,050	2,955,190,650	3,503,007,761
		사회서비스제공형	126,724,866	141,241,777	148,508,847
		혼합형	158,422,529	180,259,093	155,891,029
		기타형	1,309,068,763	1,369,368,107	1,259,602,359
		지역사회공헌형	124,249,842	170,986,713	226,903,66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475,359,441	598,366,101	601,608,668
		비영리민간단체	45,242,716	85,307,538	17,757,058
		사회복지법인	113,836,723	120,010,322	137,785,381
		상법상회사	3,090,920,721	3,492,583,730	3,942,416,6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967,512	14,237,696	19,046,277
		영농조합법인	125,113,550	135,766,587	162,847,70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57,864,472	370,774,367	412,451,953
기타		189,915	-	-	

항목		2018	2019	2020	
공공 매출	전체총액	1,472,088,476	1,887,083,694	2,295,137,736	
	인증 연도	2007	41,418,572	36,588,321	54,820,456
		2008	68,675,324	76,452,308	92,137,759
		2009	36,971,484	35,811,046	41,475,542
		2010	109,790,251	119,150,705	104,286,775
		2011	168,456,888	223,402,001	199,089,811
		2012	106,780,900	95,561,322	109,369,460
		2013	111,125,457	119,686,492	113,397,933
		2014	144,648,893	155,361,542	170,985,699
		2015	192,048,538	229,673,487	219,061,558
		2016	198,069,251	227,761,849	247,457,065
		2017	139,179,568	173,060,401	200,755,005
		2018	154,923,350	232,781,925	279,888,251
		2019	-	161,792,295	191,575,814
	2020	-	-	270,836,60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16,037,572	1,571,357,841	1,934,567,029
		사회서비스제공형	70,142,117	75,989,035	81,015,354
		혼합형	86,832,951	96,664,544	89,206,370
		기타형	57,090,937	78,262,911	95,833,530
		지역사회공헌형	41,984,899	64,809,363	94,515,452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04,454,056	368,493,192	405,000,226
		비영리민간단체	23,154,055	56,059,320	8,674,088
		사회복지법인	74,792,581	82,823,096	101,708,102
		상법상회사	920,814,410	1,163,056,125	1,520,650,39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365	7,717,797	8,239,960
		영농조합법인	19,411,156	16,827,776	15,835,78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9,432,853	192,106,388	235,029,176
		기타	-	-	0
	민간 매출	전체총액	2,645,406,574	2,929,962,644	2,998,775,921
인증 연도		2007	72,401,219	77,520,377	77,231,194
		2008	83,208,265	83,450,154	81,874,655
		2009	40,642,541	57,652,777	36,432,684
		2010	131,600,909	121,069,436	125,907,502
		2011	129,078,971	122,514,544	120,548,533
		2012	82,890,048	86,828,430	74,616,032
		2013	1,205,682,173	1,227,239,137	1,116,055,861
		2014	188,317,341	201,881,376	181,437,427

		항목	2018	2019	2020
민간 매출	인증 연도	2015	152,784,042	144,627,678	135,937,069
		2016	253,001,230	252,509,371	255,215,357
		2017	118,688,593	125,634,696	120,514,604
		2018	187,111,242	189,636,922	204,476,059
		2019	-	239,397,745	251,453,847
		2020	-	-	217,075,09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182,991,478	1,383,832,808	1,568,440,731
		사회서비스제공형	56,582,749	65,252,742	67,493,493
		혼합형	71,589,578	83,594,548	66,684,659
		기타형	1,251,977,826	1,291,105,194	1,163,768,829
		지역사회공헌형	82,264,943	106,177,351	132,388,20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70,905,385	229,872,907	196,608,442
		비영리민간단체	22,088,661	29,248,218	9,082,970
		사회복지법인	39,044,142	37,187,226	36,077,278
		상법상회사	2,170,106,311	2,329,527,606	2,421,766,2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938,147	6,519,899	10,806,316
		영농조합법인	105,702,394	118,938,811	147,011,91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8,431,619	178,667,977	177,422,776
		기타	189,915	-	0
영업 이익	전체총액		13,404,655	21,588,856	11,203,040
	인증 연도	2007	-3,277,618	-3,743,233	-2,200,311
		2008	-6,629,969	-7,456,782	-8,851,424
		2009	-4,258,983	-3,329,976	-3,757,256
		2010	-5,943,482	-4,283,728	-4,937,550
		2011	1,470,050	-439,286	-1,081,587
		2012	-6,878,980	-5,094,201	-4,824,093
		2013	15,219,587	12,562,782	7,879,140
		2014	263,101	1,019,930	-6,183,124
		2015	2,977,129	6,512,398	-828,910
		2016	8,541,969	1,690,025	1,000,177
		2017	3,531,996	6,695,495	10,467,425
		2018	8,389,855	12,497,241	18,059,302
	2019	-	4,958,191	-2,105,841	
	2020	-	-	8,567,09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5,258,113	20,098,492	27,647,629
		사회서비스제공형	-556,267	-506,372	-4,939,757
		혼합형	-5,961,205	-5,880,004	-7,927,072
		기타형	15,067,675	10,145,153	-153,671
지역사회공헌형		-403,661	-2,268,414	-3,424,087	

항목		2018	2019	202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2,757,536	-5,326,131	961,350	
	비영리민간단체	-10,152,233	-9,914,352	-4,804,593	
	사회복지법인	-25,588,556	-24,322,587	-29,783,447	
	상법상회사	64,223,376	65,992,091	62,223,88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32,651	-473,667	-729,286	
	영농조합법인	2,260,182	1,528,269	293,28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864,222	-5,894,767	-16,958,150	
	기타	-83,705	-	0	
전체총액		76,856,543	115,534,653	139,739,052	
당기 순이익	인증 연도	2007	1,962,370	2,328,341	3,423,991
		2008	4,776,759	6,104,308	8,828,673
		2009	172,230	2,180,606	482,677
		2010	4,091,177	5,553,914	5,556,364
		2011	6,970,092	13,394,452	9,094,236
		2012	2,106,132	3,215,310	5,198,081
		2013	12,521,578	14,832,970	11,117,849
		2014	5,166,871	6,978,955	-3,830,272
		2015	6,077,700	8,200,383	3,267,009
		2016	13,253,609	497,792	21,422,920
		2017	4,628,000	15,224,349	17,099,126
		2018	15,130,025	20,197,172	29,102,130
		2019	-	16,826,102	7,146,045
2020	-	-	21,830,218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55,190,505	87,021,267	121,227,030	
	사회서비스제공형	3,289,871	5,205,131	3,747,739	
	혼합형	3,808,825	5,237,990	3,009,494	
	기타형	12,980,647	14,233,449	5,403,186	
	지역사회공헌형	1,586,695	3,836,816	6,351,60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8,524,500	19,335,219	27,868,479	
	비영리민간단체	234,259	3,746,106	-669,566	
	사회복지법인	-447,758	3,858,271	7,396,728	
	상법상회사	60,703,859	77,660,023	96,201,88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49,356	-138,028	-110,777	
	영농조합법인	3,987,734	1,835,235	514,8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205,081	9,237,827	8,537,405	
	기타	-1,776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0)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공공민간매출 추가

(단위: 천 원)

매출액	표준 산업 분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85,420,549	116,086,082	82,648,852	179,910,523	140,895,082	91,425,917	81,821,383	32,646,341	1,053,140,319	197,386,798	181,419,928	134,947,432	224,671,176	171,359,238	315,212,107	139,817,702	65,124,261
		188,133,772	125,170,626	853,415	59,458,812	1,568,310,852	373,005,763	16,614,582	413,491,980	54,881,854	100,808,955	46,321,921	3,854,728	52,257,205	1,997,498,862	88,306,198	189,183,209	15,760,919
		710,603,857	66,946,765	43,124,630	79,112,341	74,042,033	33,566,080	27,105,452	16,926,550	654,272,991	128,037,116	99,455,049	68,777,183	80,065,083	61,494,868	77,903,781	50,111,051	23,562,889
		140,773,525	76,242,323	321,193	6,421,666	211,226,177	196,572,120	2,688,770	190,617,433	5,435,074	45,193,983	28,671,105	526,226	21,718,924	1,170,933,488	40,152,998	153,413,539	4,229,190
		1,374,816,691	49,119,317	39,524,222	100,798,181	66,852,999	57,859,837	54,715,941	15,719,791	398,867,327	69,349,681	81,964,878	66,170,249	144,606,082	109,864,370	237,308,325	89,706,650	41,531,372
		47,360,247	48,928,303	532,222	53,037,146	1,357,084,675	176,433,642	13,925,811	222,874,547	49,446,780	55,614,972	17,660,815	3,328,502	30,538,280	826,565,373	48,153,200	35,769,669	11,531,728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계속

(단위: 천 원)

영업 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923,762	-2,896,602	-1,162,969	-7,773,088	-494,402	411,744	-2,272,649	-1,119,750	10,106,063	-2,802,405	2,045,883	4,462,353	9,249,729	690,798	1,597,307	1,124,368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채광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3,580,418	-14,216,206	-107,343	-738,610	11,958,894	-5,763,678	2,507,638	7,294,538	-8,502,945	-18,508,274	-2,074,601	247,075	2,002,630	22,235,722	-2,160,389	5,760,657	-2,312,538
당기순 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363,393	630,041	2,832,262	15,585,102	6,273,620	4,440,725	2,060,792	287,165	36,216,047	4,930,859	2,430,737	5,007,565	10,510,966	7,086,937	7,794,704	4,739,989	2,548,141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채광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5,224,005	-795,922	-77,280	1,275,488	16,207,720	12,927,120	1,135,011	13,616,126	-5,779,595	-5,895,271	-4,845,780	359,569	2,989,411	84,629,875	2,867,100	5,680,318	221,15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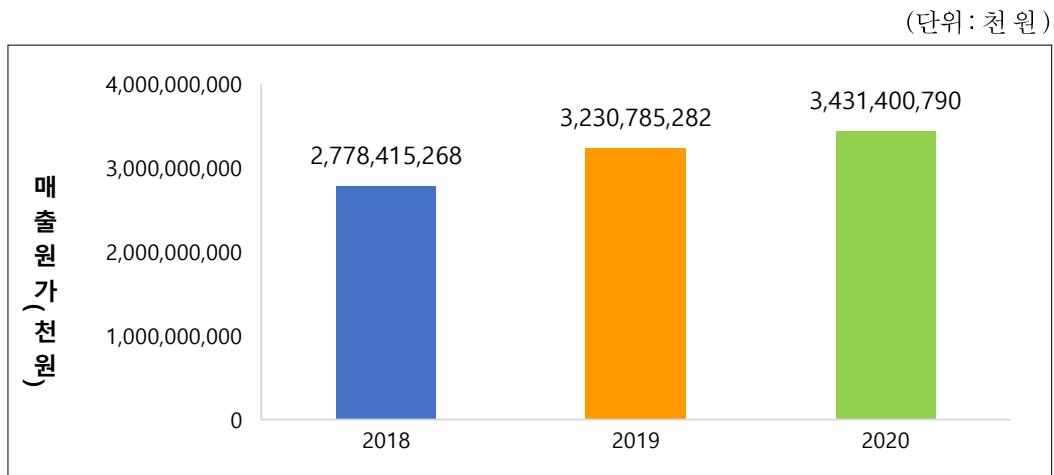
## 제2절 지출: 비용구조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에 이어 사회적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업보고서 양식에서 비용구조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은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영업외비용, 인건비(노무비 포함)가 있다.

### 1. 매출원가

다음 [그림 4-47]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0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3조 4천3백억 원의 매출원가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2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2018~2019년 사이의 매출원가 증가액인 약 3천5백억 원보다 더 줄어들었지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와도 일치한다.

[그림 4-4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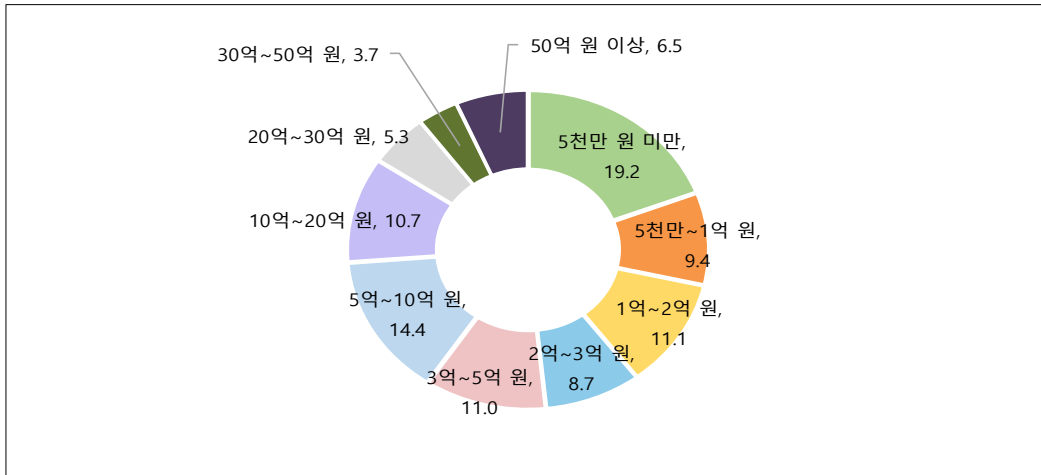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아래의 [그림 4-48]과 [그림 4-49]는 매출원가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매출원가를 보고한 전체 1,907개소 중 2020년도에 매출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19.2%(366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5억~10억 원이 14.4%(274개소), 1억~2억 원이 11.1%(212개소)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매출원가가 50억 원 이상 사회적기업도 6.5%(12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3억 원 미만의 매출원가를 보고한 경우가 48.4%(923개소), 3억 원 이상이 51.2%(984개소)로 절반씩 차지하였다.

[그림 4-48] 매출원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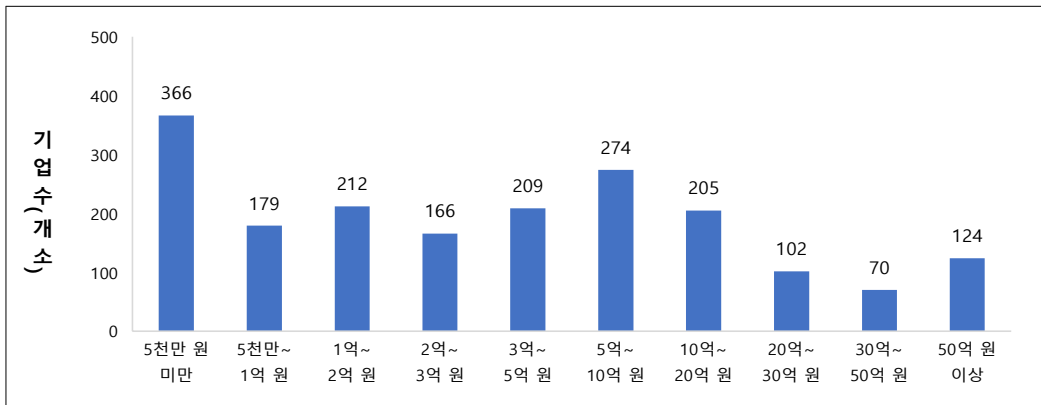
(전체 1,907개소, 단위:%)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49]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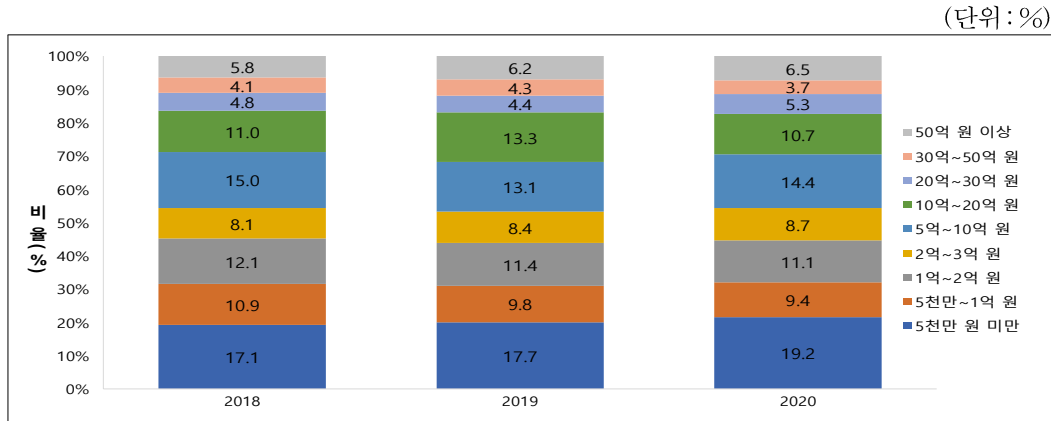
(단위: 개소)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50]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원가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각 항목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지만, 매출원가가 50억 원 이상인 구간은 각각 5.8%, 6.2%, 6.5%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분포 구간은 5천만 원 미만, 2억~3억 원, 5억~10억 원, 20억~30억 원, 50억 원 이상 구간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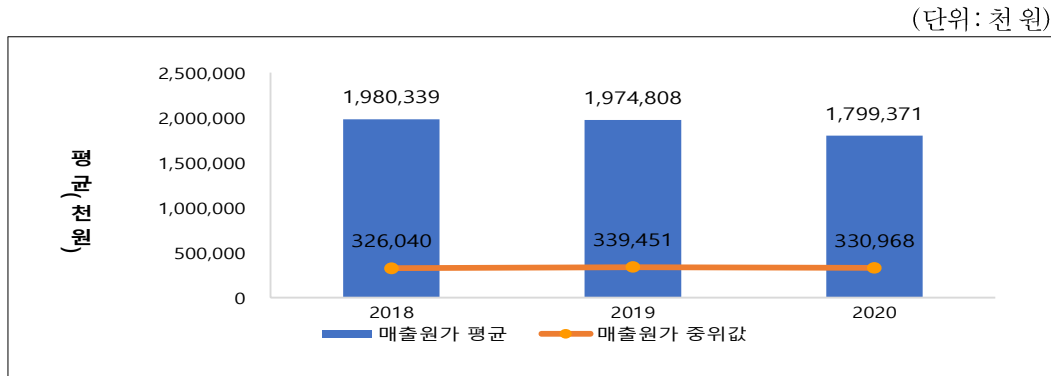
[그림 4-50] 연도별 매출원가 분포 비교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리고 아래 [그림 4-51]은 최근 3년간의 매출원가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매출원가 평균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약 18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020년에는 약 3억 3천만 원을 보고하였다.

[그림 4-51]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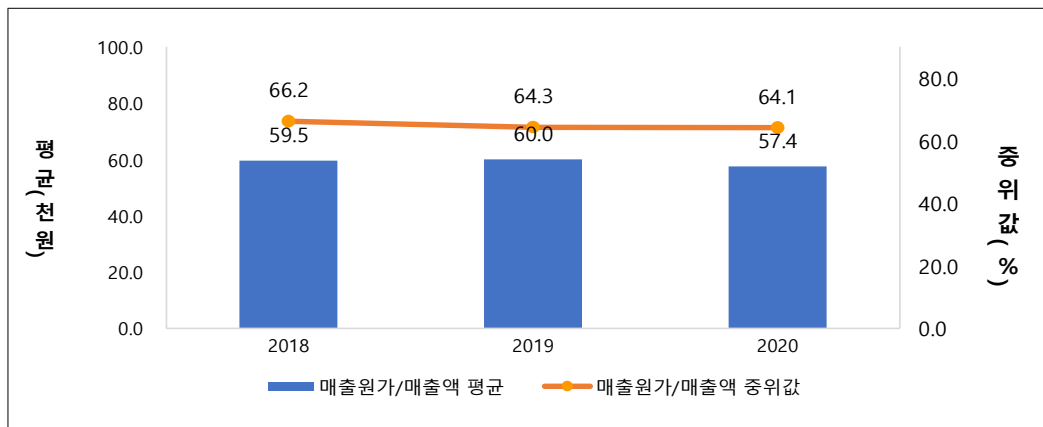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52]는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균 기준일 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8년 59.5%, 2019년 60.0%, 2020년 57.4%로 매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위값 기준으로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8년 66.2%, 2019년 64.3%, 2020년 64.1%로 매년 65% 내외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완만하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최근 3년 간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52]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4-4>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 평균/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매출원가의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약 48억 7천만 원), 평균 매출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약 5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출액 평균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63.1%)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가 4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5억 8천만 원), 경북(약 4억 6천만 원), 전북(약 3억 9천만 원), 충북(약 3억 6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산(약 1억 7천만 원)은 2억 원 미만으로 낮았다.

&lt;표 4-4&gt;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원가	4,873,577	323	331,613
	매출원가 비중	55.3	323	56.8
부산	매출원가	688,057	81	176,464
	매출원가 비중	53.2	81	59.6
대구	매출원가	725,452	64	274,358
	매출원가 비중	58.8	64	66.0
인천	매출원가	908,611	118	302,574
	매출원가 비중	58.7	118	63.7
광주	매출원가	977,387	86	269,533
	매출원가 비중	47.9	86	50.2
대전	매출원가	583,497	55	257,410
	매출원가 비중	52.7	55	51.2
울산	매출원가	680,596	65	214,991
	매출원가 비중	63.1	65	66.3
세종	매출원가	1,176,348	11	971,829
	매출원가 비중	61.0	11	72.3
경기	매출원가	1,719,432	331	583,367
	매출원가 비중	60.7	331	68.8
강원	매출원가	1,366,886	97	208,826
	매출원가 비중	51.2	97	54.1
충북	매출원가	1,201,345	87	359,216
	매출원가 비중	57.4	87	65.6
충남	매출원가	960,777	81	255,802
	매출원가 비중	57.5	81	68.4
전북	매출원가	1,128,169	109	387,111
	매출원가 비중	56.0	109	65.3
전남	매출원가	934,978	128	330,205
	매출원가 비중	62.3	128	68.9
경북	매출원가	1,723,474	137	458,188
	매출원가 비중	62.7	137	67.9
경남	매출원가	879,141	88	333,151
	매출원가 비중	56.5	88	63.9
제주	매출원가	746,585	46	252,972
	매출원가 비중	55.6	46	63.1
전체	매출원가	1,799,371	1,907	330,968
	매출원가 비중	57.4	1,907	64.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4-5>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인증연도가 2013년, 기타(창의·혁신)형의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출이 큰 특정 기업의 극단값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다. 그 외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4년, 2017년, 2018년 인증기업의 매출원가 평균이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4년 인증기업이 최근 3년간 감소하였다.

<표 4-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천 원, %)

구분	2018		2019		2020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인증연도	2007	1,716,466	63.5	1,795,839	61.8	2,588,331	65.1
	2008	1,155,974	62.8	1,189,741	60.7	1,273,376	65.2
	2009	928,450	56.5	961,125	59.7	984,004	60.6
	2010	1,823,679	65.5	1,817,910	63.4	1,731,008	64.0
	2011	2,386,130	70.9	3,017,800	73.5	2,974,233	75.0
	2012	1,453,836	55.4	1,387,901	51.6	1,553,181	57.4
	2013	7,977,818	59.8	8,398,876	60.7	7,671,360	61.4
	2014	1,178,898	54.9	1,351,946	54.6	1,364,197	54.4
	2015	980,301	56.9	1,178,326	54.5	1,123,783	54.6
	2016	1,766,951	54.6	2,011,778	54.7	2,004,173	54.7
	2017	887,596	63.8	1,093,008	83.3	1,228,773	57.5
	2018	916,616	59.1	1,138,846	58.7	1,344,627	60.4
	2019	-	-	856,047	52.2	927,955	54.0
2020	-	-	-	-	895,522	52.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451,421	63.9	1,593,239	65.7	1,607,489	61.6
	사회서비스제공형	408,175	45.7	518,803	40.8	393,992	36.9
	혼합형	419,163	44.7	410,690	41.8	408,688	51.2
	기타(창의·혁신)형	9,247,249	43.0	7,058,461	39.1	5,255,116	39.6
	지역사회공헌형	885,887	54.9	947,996	56.2	874,858	56.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731,540	67.5	1,971,974	62.2	2,313,951	65.3
	비영리민간단체	531,504	51.2	970,508	59.2	150,479	34.8
	사회복지법인	1,612,132	85.1	1,726,856	84.9	1,656,622	85.6
	상법상회사	2,362,976	58.1	2,294,383	55.6	2,012,755	56.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08,617	75.8	1,286,948	71.3	1,421,260	67.2
	영농조합법인	1,289,276	68.1	1,494,126	71.7	1,355,141	6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90,972	48.1	816,743	70.0	749,151	48.6
	기타	53,881	28.4	-	-	-	-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2018년 약 92억 원, 2019년도 약 71억 원, 2020년 약 5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보고하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은 일자리제공형이 최근 3년간 61.6~65.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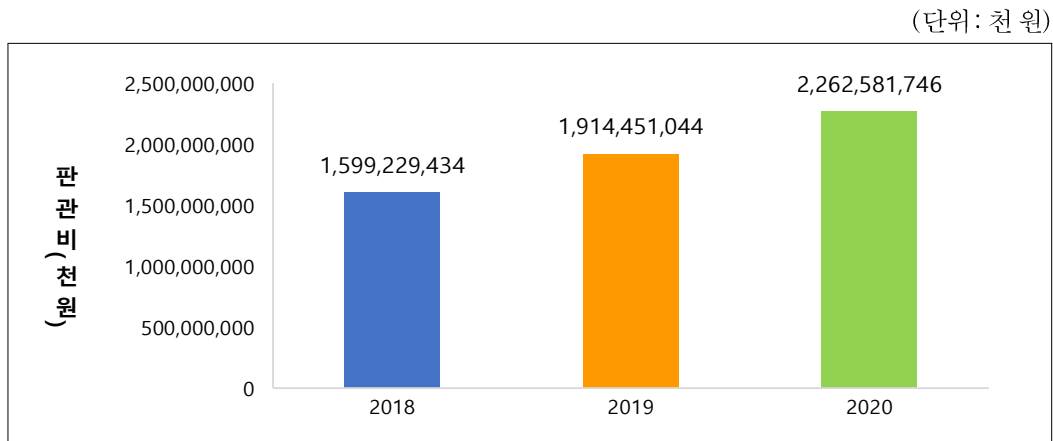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분류를 살펴보자면, 최근 3년간 상법상 회사가 약 22억 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안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의 비중은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약 85%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법상회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민법상법인의 경우 매년 매출원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다음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증 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 및 관리비 외에 제조원가의 경비가 존재하는 경우 경비를 포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4-53]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0년 사회적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천4백8십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53]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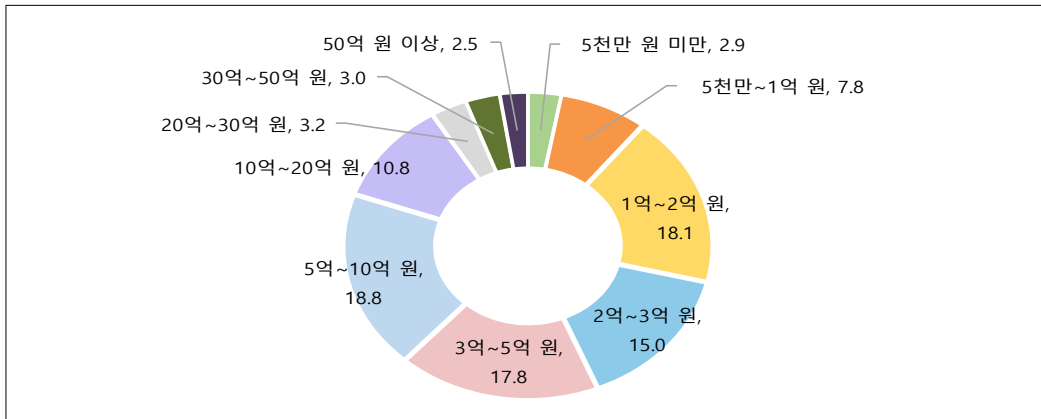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54]와 [그림 4-55]는 사회적기업의 2020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도와 분포별 기업 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2,712개소 중 5억~10억 원 사이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지출한 사회적기업이 18.8%, 510개소로 가장 많았고, 1억~2억 원(18.1%, 491개소), 3억~5억 원(17.8%, 484개소), 2억~3억 원(15.0%, 407개소)의 판매비 지출을 보고하는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54]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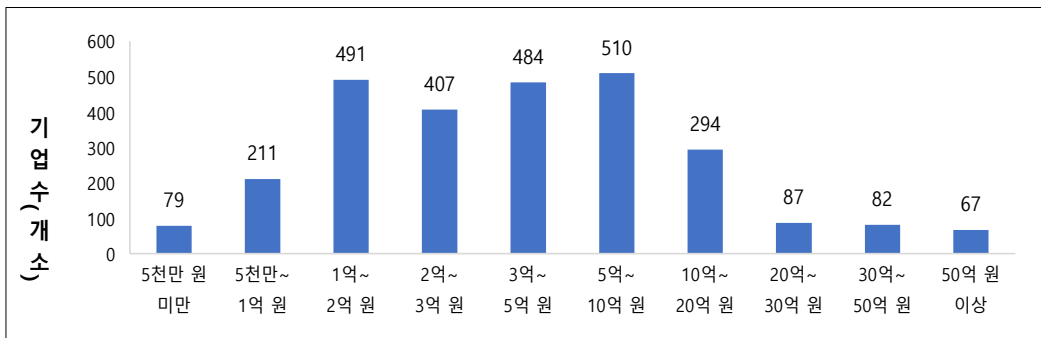
(전체 2,712개소, 단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55]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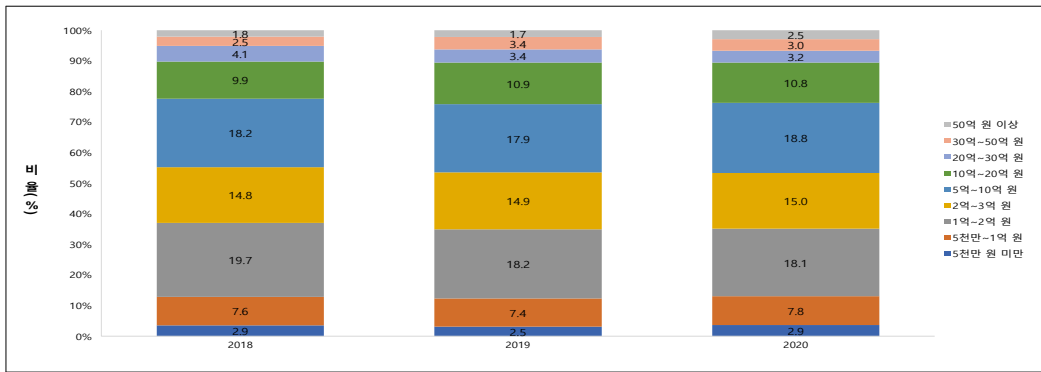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한편, [그림 4-56]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의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반적인 추세는 큰 변화가 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판

매비 및 관리비가 2억~3억 원인 구간의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였다(각각 14.8%, 14.9%, 15.0%). 반면, 1억~2억 원인 구간(각각 19.7%, 18.2%, 18.1%)과 20억~30억 원인 구간(각각 4.1%, 3.4%, 3.2%)의 비율은 해마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56]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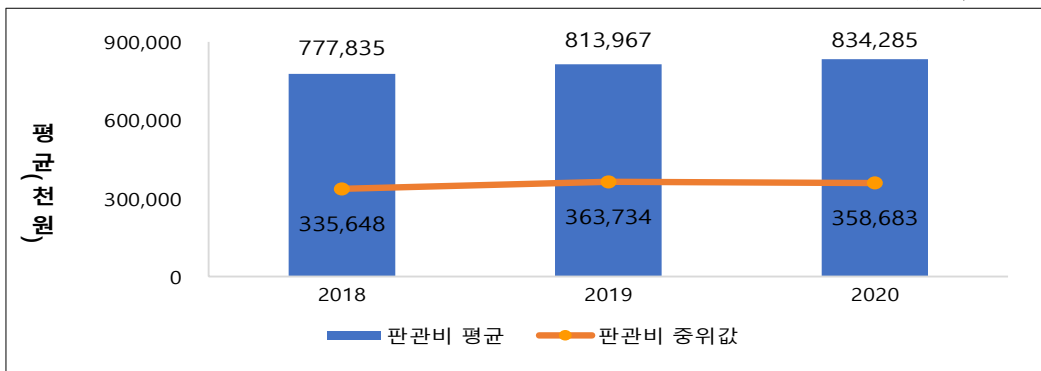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38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의 [그림 4-57]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균값은 2019년에 약 8억 1천만 원, 2020년 약 8억 3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위값은 2019년에 약 3억 6천4백만 원, 2020년에 약 3억 5천9백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57]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아래 <표 4-6>은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약 12억 5천만 원), 경기(약 11억 9천만 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남(약 4억 6천만 원), 대구(약 4억 7천만 원)와 울산(약 5억 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약 5억 6천만 원), 서울(약 4억 4천만 원)은 4억 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이는 반면, 강원(약 2억 3천만 원)과 전남(약 2억 3천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여 지역별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254,763	503	443,807
부산	541,678	135	267,351
대구	470,826	97	265,251
인천	579,833	166	311,833
광주	546,954	123	392,340
대전	831,219	76	386,961
울산	499,683	94	281,881
세종	1,482,409	16	772,516
경기	1,188,486	472	560,008
강원	568,685	147	230,680
충북	769,950	112	317,956
충남	581,337	110	311,789
전북	725,445	154	371,907
전남	455,202	149	233,652
경북	714,505	173	345,710
경남	620,900	124	305,260
제주	661,652	61	394,881
전체	834,285	2712	358,68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lt;표 4-7&gt;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인증연도	2007	2,356,447	2,346,777	2,429,619
	2008	830,837	908,033	1,018,656
	2009	936,088	1,287,412	1,169,653
	2010	952,141	1,026,057	991,185
	2011	1,210,138	1,253,344	1,206,584
	2012	828,543	802,764	830,847
	2013	769,458	831,900	918,510
	2014	809,229	904,624	940,691
	2015	801,157	916,728	962,312
	2016	741,171	806,766	999,812
	2017	495,392	585,102	681,884
	2018	527,965	672,430	765,439
	2019	-	533,430	598,948
2020	-	-	584,25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799,281	848,907	909,393
	사회서비스제공형	881,620	804,966	740,530
	혼합형	711,386	779,686	662,615
	기타(창의·혁신)형	771,227	780,518	746,154
	지역사회공헌형	537,609	568,321	574,63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037,609	967,299	1,184,370
	비영리민간단체	338,862	454,954	276,506
	사회복지법인	892,369	1,006,556	1,011,425
	상법상회사	783,813	824,553	837,6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33,140	502,720	698,422
	영농조합법인	427,601	481,292	453,97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27,826	794,211	735,668
	기타	219,739	-	-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38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4-7>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인증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7년 인증기업과 2011년 인증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고,

2007년과 2009년, 2011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의 기업이 판매비 및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약 7억 4천만 원)과 일자리 제공형(약 9억 1천만 원), 기타(창의·혁신)형(약 7억 5천만 원), 혼합형(약 6억 6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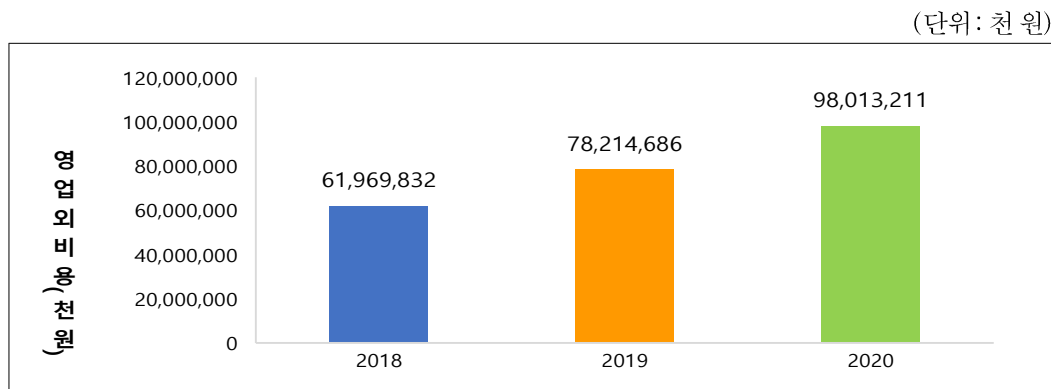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민법상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평균이 2020년 약 1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2억 8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이 약 4억 5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비와 관리비 수준을 보였다.

### 3. 영업외비용

다음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이외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비용(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사채이자 포함), 이연자산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매출할인,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잡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www.hometax.go.kr).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영업외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그대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c).

먼저, 최근 3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변화 추이는 다음 [그림 4-58]과 같다. 2020년 영업외비용 총액은 약 980억 원으로, 2018년의 약 620억 원, 2019년의 782억 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58] 영업외비용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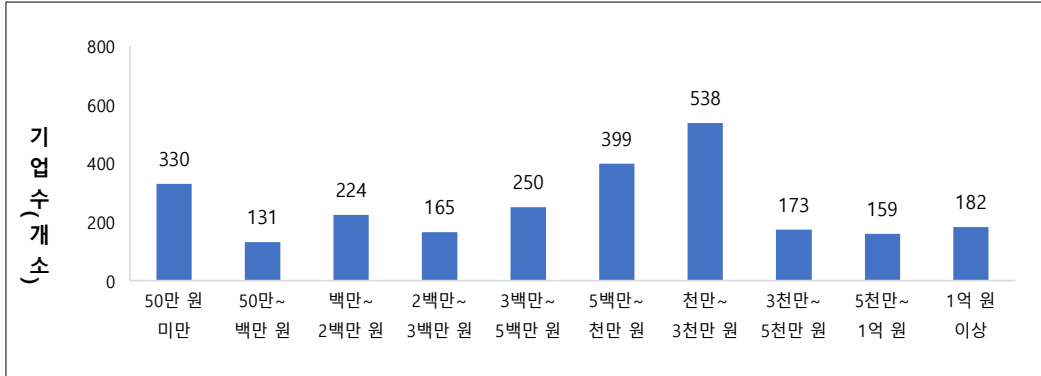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 [그림 4-59]는 영업외비용의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2,738개소의 인증기업 중 2,551개소에서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 중 2020년도에 영업외비용이 1천만~3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38개소(21.1%)이며, 5백~1천만 원으로 응답한 기업이 399개소(15.6%), 50만 원 미만이 330개소(12.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59]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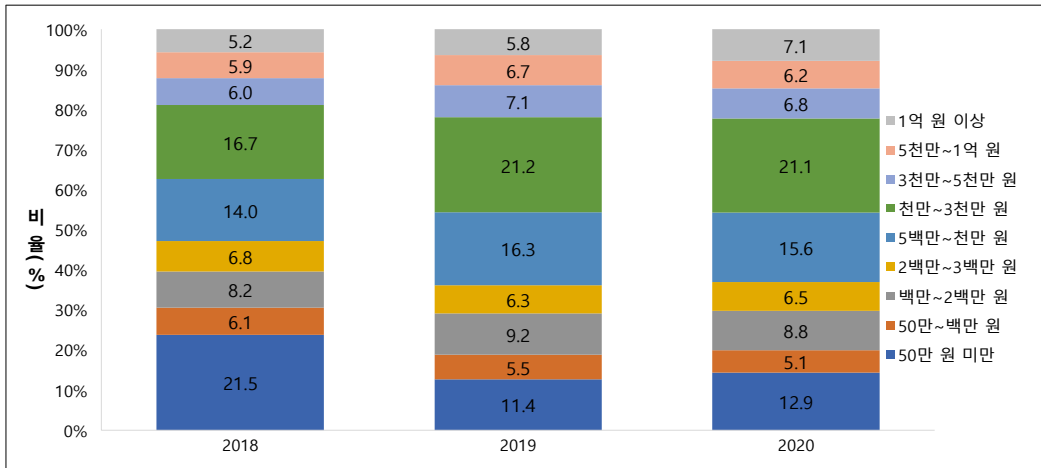
(단위: 개소, 2,551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60]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비율

(단위: %, 2,551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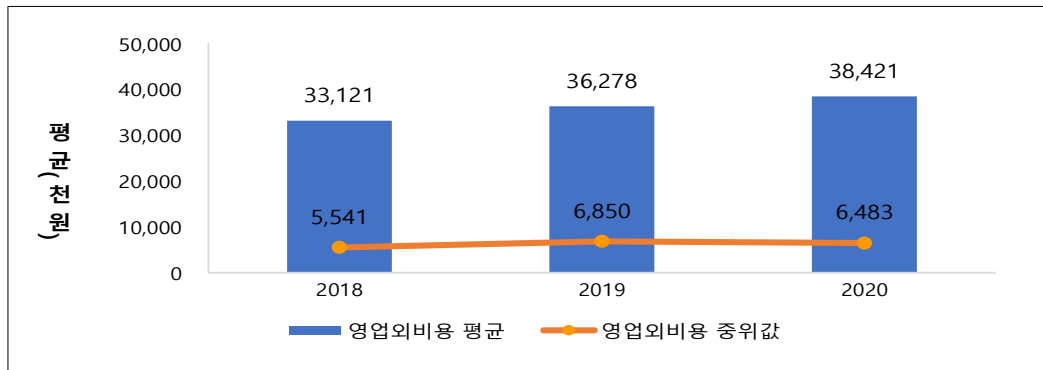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60]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영업외비용의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각 항목의 영업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영업외비용이 1억 원 이상 구간이 각각 5.2%, 5.8%에서 7.1%로 증가하고, 5천만~1억 원, 3천만~5천만 원, 5백만~1천만 원, 1백만~2백만 원 구간의 비율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반대로 영업외비용의 액수 규모가 낮은 구간의 비율은 대체로 줄어들어, 5십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은 각각 21.5%에서 12.9%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아래 [그림 4-61]에서는 최근 3년간의 영업외비용의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20년 영업외비용 기업별 평균은 약 3천 8백만 원으로 2018년 3천 3백만 원, 2019년 약 3천 6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중위값은 2018년 약 5백 5십만 원에서 2019년 약 6백 9십만 원, 2020년 약 6백 5십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1]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영업외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8>과 같다. 평균 영업외비용의 경우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충북(약 7천 4백만 원), 서울(약 5천 7백만 원), 인천(약 4천 1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업외비용 평균을 보고하는 지역은 대구(약 1천 7백만 원), 울산(약 1천 7백만 원), 강원(약 2천만 원) 순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영업외비용이 차이가 있었다. 중위값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약 1천 2백만 원), 경기(약 9백만 원), 경북(약 7백 7십만 원)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약 4백 3십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lt;표 4-8&gt;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56,872	476	6,062
부산	25,828	123	5,698
대구	16,536	90	4,662
인천	41,530	162	4,778
광주	31,574	110	5,313
대전	26,513	73	4,297
울산	17,778	90	6,786
세종	72,164	15	12,956
경기	37,603	451	9,032
강원	19,917	141	4,862
충북	74,230	104	6,782
충남	30,007	103	7,098
전북	45,897	140	6,885
전남	24,667	135	6,100
경북	39,721	164	7,722
경남	26,229	115	5,973
제주	26,993	59	12,226
계	38,421	2551	6,48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마지막으로 <표 4-9>는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외비용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014년과 2016년에 인증 받은 기업의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10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에 인증 받은 기업이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2년, 2013년 인증기업은 영업외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14~2016년 인증기업은 매년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lt;표 4-9&gt;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단위: 천 원)

구분		영업외비용		
		2018	2019	2020
인증연도	2007	35,799	28,546	42,308
	2008	30,752	37,373	51,517
	2009	35,599	21,118	53,066
	2010	37,923	22,094	26,357
	2011	42,026	51,134	55,090
	2012	21,344	27,324	23,390
	2013	68,413	79,078	60,681
	2014	27,929	35,511	66,202
	2015	25,133	28,999	34,673
	2016	31,452	62,039	62,119
	2017	34,865	23,012	24,921
	2018	19,708	28,282	31,755
	2019	-	24,881	34,996
	2020	-	-	19,13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3,862	35,829	40,560
	사회서비스제공형	15,936	18,723	21,225
	혼합형	14,209	11,958	19,018
	기타(창의·혁신)형	57,837	58,153	51,038
	지역사회공헌형	19,173	41,375	29,33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7,990	25,730	32,385
	비영리민간단체	15,387	26,275	7,038
	사회복지법인	49,401	36,309	46,161
	상법상회사	35,183	40,675	40,8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111	20,556	27,288
	영농조합법인	57,518	30,251	52,38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2,239	29,468	30,947
	기타	1,268	-	-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으로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기타(창의·혁신)형이 상대적으로 영업외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혼합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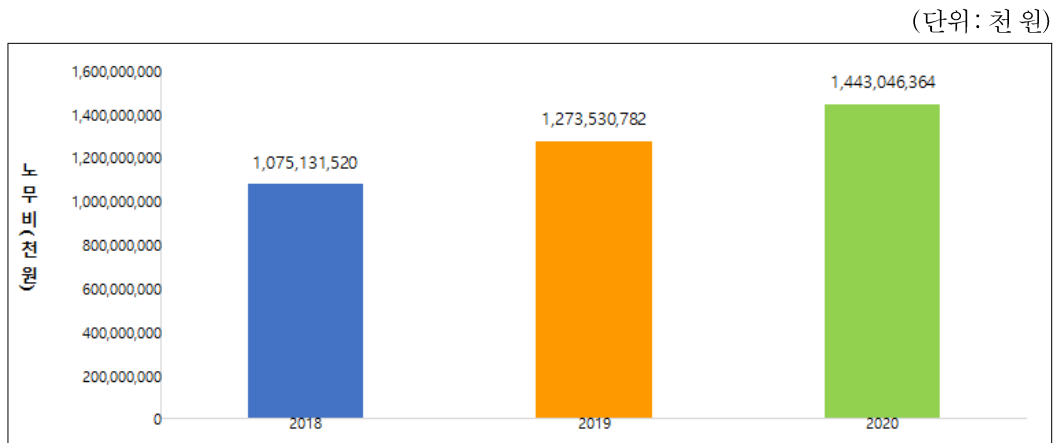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약 5천 2백만 원의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가장 낮은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업외비용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상법상회사,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매년 영업외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4.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지출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활용된 지표는 노무비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노무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되는 인건비 외에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노무비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62]와 같이, 2018년 약 1조 8백억 원, 2019년 약 1조 2천7백억 원, 2020년 약 1조 4천4백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62] 연도별 노무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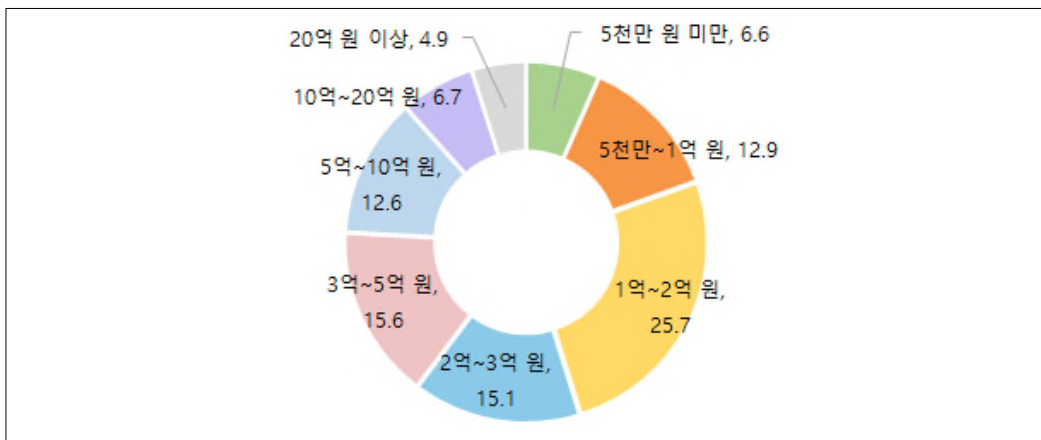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그림 4-63]과 [그림 4-64]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노무비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2,706개 사회적기업 중 노무비가 1억~2억 원인 경우가 695개소(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억~5억 원(422개소, 15.6%), 2억~3억 원(408개소, 15.1%), 5천만~1억 원(350개소, 12.9%)의 순서로 많았다. 그리고 노무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178개소(6.6%)가 있었으며,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132개소(4.9%)를 차지하였다.

[그림 4-63] 노무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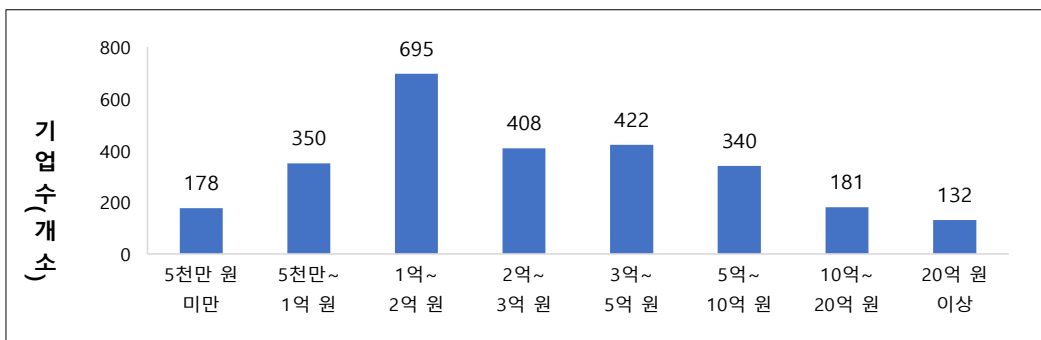
(단위: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0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64]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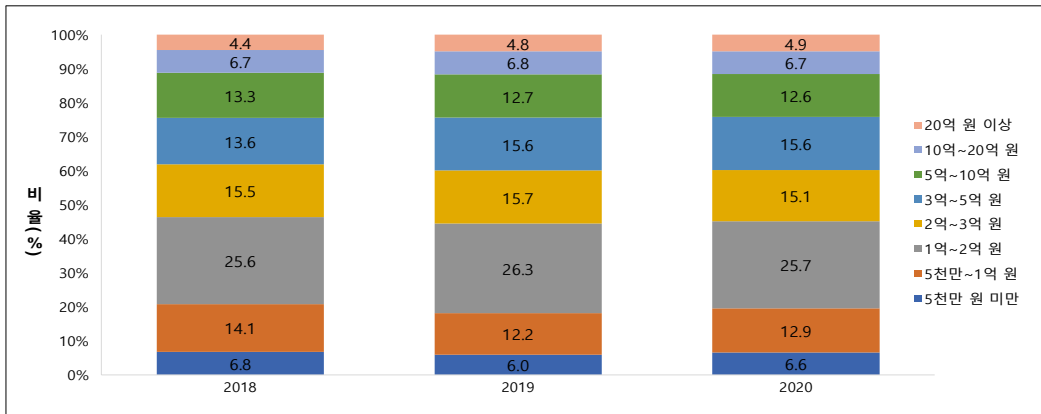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0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아래의 [그림 4-65]는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의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적인 분포의 변화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억 원 이상이 각각 4.4%, 4.8%, 4.9%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65] 노무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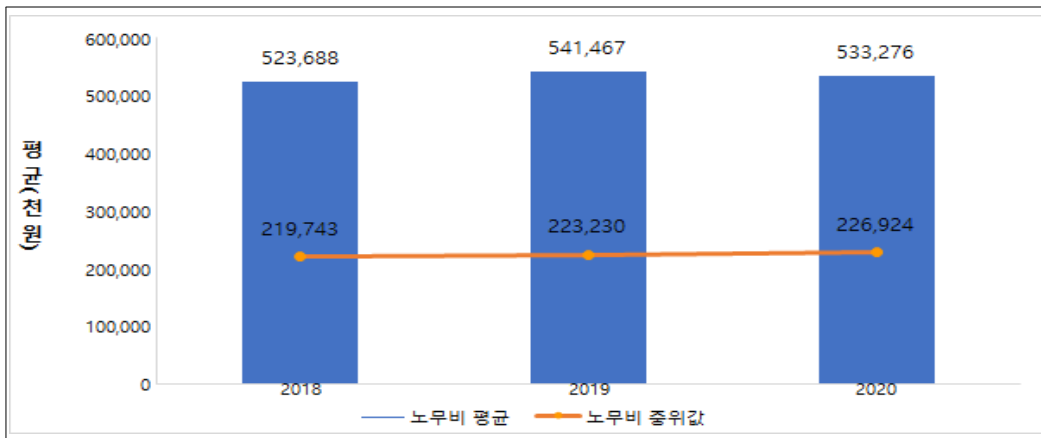
(단위: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0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66]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0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그림 4-66]은 최근 3년간 인건비의 평균 및 중위값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인건비 평균은 2018년 약 5억 2천만 원에서 2019년 약 6억 6천만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20년 약 5억 3천만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2018년 약 2억 2천만 원, 2019년 약 2억 2천3백만 원, 2020년 약 2억 2천7백만 원으로 약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0>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622,691	500	231,247
부산	368,259	134	187,094
대구	271,516	97	191,502
인천	352,909	166	182,476
광주	347,914	123	229,846
대전	427,417	75	214,473
울산	377,252	93	196,313
세종	1,117,972	16	431,943
경기	834,802	472	329,674
강원	628,716	147	171,112
충북	444,659	112	218,413
충남	404,961	110	220,416
전북	457,051	154	244,043
전남	272,577	149	182,040
경북	547,771	173	271,805
경남	451,952	124	224,679
제주	442,782	61	239,846
전체	533,276	2,706	226,924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0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한편, <표 4-10>에서는 지역별로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노무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8억 3천만 원)이고, 강원(약 6억 3천만 원), 서울(약 6억 2천3백만 원), 경북(약 5억 4천8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반면, 노무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2억 7천만 원)과 대구(약 2억 7천1백만 원)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3억 3천만 원)가 가장 높았고, 경북이 약 2억 7천만 원, 전북이 약 2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무비 수준이 높았다. 반면, 노무비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약 1억 7천만 원), 전남(약 1억 8천만 원), 부산과 대구(약 1억 9천만 원)로 나타났다.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인증연도	2007	1,368,801	1,717,371	1,406,535
	2008	622,025	676,605	725,086
	2009	703,118	937,172	754,564
	2010	727,291	779,672	812,588
	2011	898,685	840,486	718,195
	2012	519,257	493,361	511,707
	2013	529,947	534,272	583,740
	2014	499,347	550,265	542,728
	2015	651,466	742,852	750,302
	2016	411,660	452,349	490,838
	2017	291,983	349,019	379,150
	2018	326,960	433,254	499,385
	2019	-	332,633	369,730
	2020	-	-	403,00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577,934	600,256	616,236
	사회서비스제공형	586,703	527,167	432,162
	혼합형	469,458	567,293	441,882
	창의·혁신형(기타)	370,046	370,497	372,001
	지역사회공헌형	226,305	253,623	258,997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천 원)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45,231	558,278	562,511
	비영리민간단체	221,405	276,078	153,870
	사회복지법인	798,066	867,896	826,609
	상법상회사	561,806	567,406	563,58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1,691	330,133	471,684
	영농조합법인	225,512	260,394	257,77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48,748	509,432	456,423
	기타	53,600	-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0년 2,706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위의 <표 4-11>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노무비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07년도 인증기업이 다른 연도의 인증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으며(2020년 약 14억 1천만 원), 2020년 기준으로 2010년 인증기업 또한 약 8억 1천만 원의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2020년 인증기업 약 4억 원, 2017년 인증기업 약 3억 8천만 원, 2019년 인증기업 약 3억 7천만 원).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의 노무비 평균이 약 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지역사회공헌형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2억 6천만 원으로 노무비 평균이 가장 낮았다.

조직형태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고 있는데, 약 8억 7천만 원에서 약 8억 3천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농조합법인은 노무비가 약 2억 원 수준을 하회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의 총액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다음의 <표 부가분석 4-3>과 <표 부가분석 4-4>를 통해 제시하였다.



## 지출총액분석

##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8, 2019, 2020)

&lt;표 부가분석 4-3&gt;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18	2019	2020	
매출 원가	전체총액	2,778,415,268	3,230,785,282	3,431,400,790	
	인증 연도	2007	39,478,727	41,304,306	56,943,298
		2008	84,386,092	88,040,828	94,229,839
		2009	32,495,735	32,678,249	27,552,127
		2010	151,365,322	147,250,748	138,480,715
		2011	188,504,253	235,388,397	220,093,314
		2012	109,037,683	105,480,480	107,169,503
		2013	1,164,761,413	1,192,640,437	1,066,319,122
		2014	186,265,911	204,143,836	203,265,353
		2015	156,848,205	177,927,206	165,196,135
		2016	305,682,546	342,002,278	336,701,136
		2017	159,767,198	189,090,354	199,061,353
		2018	199,822,183	247,129,619	286,405,644
		2019	-	227,708,545	251,475,829
	2020	-	-	278,507,41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518,186,484	1,900,734,251	2,195,831,288
		사회서비스제공형	20,408,737	29,571,764	28,761,450
		혼합형	39,401,319	42,301,032	42,094,878
		기타형	1,118,917,124	1,143,470,672	1,014,237,452
		지역사회공헌형	81,501,604	114,707,564	150,475,72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64,925,564	376,646,940	340,150,838
		비영리민간단체	22,323,167	53,377,924	3,310,557
		사회복지법인	95,115,774	96,703,909	106,023,841
		상법상회사	2,176,301,215	2,427,457,004	2,652,811,54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434,466	10,295,580	12,791,341
		영농조합법인	95,406,423	104,588,846	126,028,19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17,854,778	161,715,079	190,284,468
		기타	53,881	-	-

항목		2018	2019	2020		
판관비	전체총액	1,599,229,434	1,914,451,044	2,262,581,746		
	인증연도	2007	82,475,653	82,137,210	85,036,692	
		2008	88,899,606	94,435,402	101,865,680	
		2009	53,356,993	69,520,272	59,652,349	
		2010	135,204,067	138,517,685	130,836,534	
		2011	129,484,803	132,854,452	121,865,047	
		2012	98,596,599	91,515,097	91,393,216	
		2013	158,508,424	163,884,228	179,109,492	
		2014	174,793,465	184,543,199	187,197,591	
		2015	205,096,253	214,514,310	217,482,566	
		2016	183,810,334	191,203,531	224,957,843	
		2017	125,334,058	142,764,912	159,561,009	
		2018	163,669,179	201,056,529	223,508,217	
		2019	-	207,504,218	232,392,206	
	2020	-	-	247,723,29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107,803,630	1,330,237,033	1,625,995,955	
		사회서비스제공형	109,320,919	115,110,175	128,852,308	
		혼합형	130,183,653	148,919,944	128,547,491	
		기타형	187,408,106	234,935,810	259,661,652	
		지역사회공헌형	64,513,126	85,248,083	119,524,33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81,192,013	297,928,204	328,070,552	
		비영리민간단체	35,241,612	52,319,750	19,355,445	
		사회복지법인	58,896,351	63,412,999	76,868,372	
		상법상회사	1,015,821,863	1,211,267,794	1,500,185,1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65,700	4,524,478	6,984,222	
		영농조합법인	32,925,261	35,615,606	44,943,05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1,766,895	249,382,214	286,174,990	
		기타	219,739	-	-	
	노무비	전체총액	1,075,131,520	1,543,126,634	1,443,046,364	
		인증연도	2007	47,908,051	60,107,992	49,228,753
			2008	65,934,623	70,366,967	72,508,630
			2009	40,077,712	50,607,268	38,482,789
			2010	102,548,061	104,476,107	105,636,529
2011			96,159,275	89,091,568	71,819,592	
2012			61,791,592	66,168,481	56,287,786	
2013			109,169,057	105,251,620	113,829,466	
2014			107,858,863	145,014,383	108,002,940	
2015			166,775,223	173,827,328	168,817,995	
2016			101,679,953	334,116,972	110,438,612	
2017			73,871,660	85,160,714	88,342,162	
2018			101,357,450	129,542,952	145,321,078	
2019			-	129,394,283	143,455,268	
2020		-	-	170,874,759		

		항목	2018	2019	2020
노무비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799,861,338	987,324,048	1,099,982,900
		사회서비스제공형	72,751,178	75,384,859	75,196,222
		혼합형	85,441,368	108,353,053	85,283,411
		기타형	89,921,083	334,021,193	128,712,372
		지역사회공헌형	27,156,553	38,043,481	53,871,45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47,212,339	171,949,754	155,253,199
		비영리민간단체	23,026,097	31,748,966	10,770,947
		사회복지법인	52,672,383	54,677,428	61,995,741
		상법상회사	727,538,426	879,676,335	1,007,697,97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808,455	2,971,197	4,716,848
		영농조합법인	17,364,436	19,269,146	25,519,27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05,455,784	382,833,809	177,092,375
	기타	53,600	-	-	
		전체총액	61,969,832	78,214,686	98,013,211
영업외 비용	인증 연도	2007	1,073,983	884,919	1,269,242
		2008	2,952,158	3,251,445	4,533,580
		2009	1,566,369	886,973	2,334,945
		2010	4,626,576	2,540,773	3,110,163
		2011	3,908,397	4,397,500	4,958,145
		2012	2,262,455	2,759,735	2,198,730
		2013	12,930,147	14,075,812	11,408,141
		2014	5,446,131	6,747,137	12,181,199
		2015	5,956,623	6,176,695	7,350,793
		2016	7,139,683	13,772,592	13,169,292
		2017	8,332,844	5,384,790	5,682,061
		2018	5,774,466	8,230,033	9,240,880
		2019	-	9,106,282	12,808,645
2020	-	-	7,767,39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43,343,455	52,095,910	69,196,940
		사회서비스제공형	1,768,934	2,415,312	3,353,595
		혼합형	2,216,672	1,877,429	3,176,052
		기타형	12,608,478	15,992,181	16,536,327
		지역사회공헌형	2,032,293	5,833,854	5,750,295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381,775	6,869,786	7,740,184
		비영리민간단체	1,215,599	2,049,474	365,981
		사회복지법인	2,371,240	1,633,900	2,631,184
		상법상회사	43,310,523	56,782,926	70,492,07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0,553	185,005	272,883
		영농조합법인	3,968,730	2,147,801	5,029,38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670,144	8,545,795	11,481,518
		기타	1,268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0)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천 원)

매출원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S)
		127,243,063	13,780,444	0	44,857,736	1,317,109,319	20,435,455	3,283,300	151,671,421	30,922,679	15,099,022	38,887,038	2,894,901	8,516,999	1,575,561,810	42,211,621	35,788,098	3,282,818
판매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S)
		631,145,964	73,126,531	45,670,211	96,252,391	67,275,427	63,172,688	46,970,284	23,718,554	500,965,496	83,596,764	86,294,592	63,947,095	111,718,647	67,825,175	123,609,508	76,991,675	40,360,817
노무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S)
		80,467,614	129,301,683	960,759	20,982,288	248,408,165	360,581,720	11,403,427	287,389,713	35,321,301	108,828,900	43,272,905	3,251,997	43,451,657	649,591,473	66,852,494	156,991,932	15,523,682
영업외비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S)
		311,345,658	49,346,810	26,337,119	58,583,081	42,738,486	32,056,278	35,084,491	17,887,533	394,026,610	92,421,340	49,801,839	44,545,776	70,385,920	40,614,071	94,764,549	56,042,082	27,009,745
		49,065,591	65,329,827	515,426	15,512,934	129,148,531	236,809,797	5,177,636	277,400,717	26,754,932	53,013,698	9,178,716	959,740	21,493,060	365,278,087	31,118,893	115,002,414	11,286,388
영업외비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S)
		27,071,381	3,176,917	1,488,251	6,727,867	3,473,156	1,935,459	1,600,076	1,082,471	16,939,371	2,808,361	7,720,019	3,080,778	6,425,697	3,330,081	6,514,230	3,016,448	1,592,610
		1,812,954	4,289,299	1,046	1,310,356	19,125,871	4,890,233	1,307,621	5,663,418	1,719,468	2,254,638	3,101,861	282,361	1,201,741	45,983,555	1,983,609	2,932,977	212,13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 제3절 기타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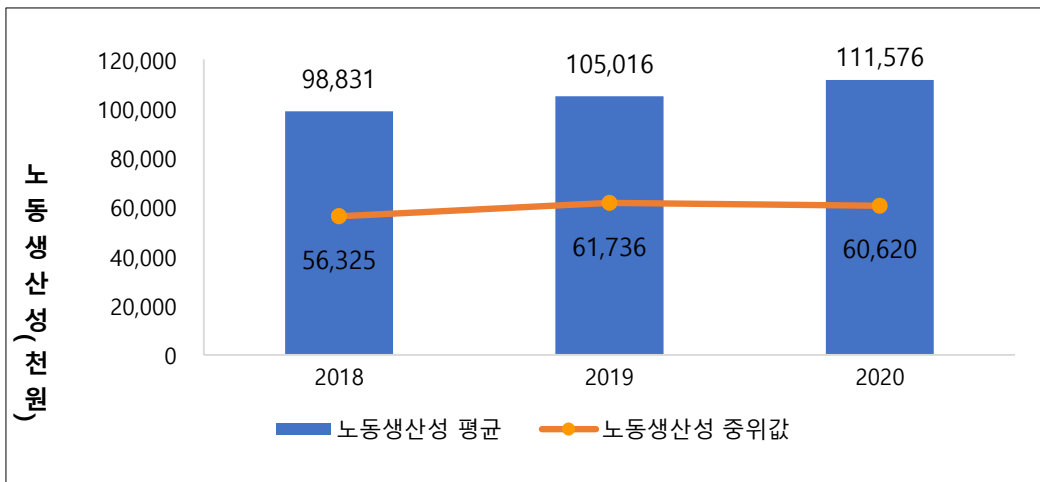
앞서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지표로서 재정성과와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로 분류 가능한 노동생산성과 일반인 고용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 노동생산성

먼저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되는데, 다음 [그림 4-67]에 평균 노동생산성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18~2020년 동안에 노동생산성의 평균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중위값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2020년 노동생산성의 평균은 약 1억 1천만 원, 중위값은 약 6천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67]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아래 <표 4-12>는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약 1억 3천5백만 원), 서울(약 1억 3천3백만 원), 전북(약 1억 2천6백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세종을 제외하면 울산(약 7천1백만 원), 부산(약 7천7백만 원)이었다. 노동생산성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약 8천4백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약 4천3백만 원)로 나타났다.

<표 4-12>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지역	노동생산성 평균	노동생산성 중위값
서울	132,875	65,074
부산	77,253	44,910
대구	80,579	43,453
인천	95,924	53,945
광주	96,597	51,557
대전	98,667	56,276
울산	70,589	42,489
세종	70,382	68,909
경기	125,658	74,830
강원	83,576	49,810
충북	123,257	84,453
충남	96,065	57,455
전북	125,903	67,488
전남	116,466	70,068
경북	134,979	60,865
경남	94,770	47,856
제주	106,793	62,934
전체	111,576	60,62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표 4-13>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다 세분화시켜,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13>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단위: 천 원)

		2018	2019	2020
인증 연도	2007	69,612	76,279	82,920
	2008	81,437	77,999	80,169
	2009	70,676	74,357	88,445
	2010	86,141	81,504	76,729
	2011	115,277	124,683	117,828
	2012	96,191	100,382	108,836
	2013	118,139	127,392	129,084
	2014	106,311	124,045	135,306
	2015	91,331	101,446	107,278
	2016	120,920	140,460	155,888
	2017	85,891	93,697	105,425
	2018	95,641	103,885	123,350
	2019	-	90,501	98,396
	2020	-	-	101,277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03,892	110,438	121,268
	사회서비스제공형	76,534	85,878	73,398
	혼합형	59,236	67,127	64,372
	기타(창의·혁신)형	102,678	103,966	97,210
	지역사회공헌형	115,277	116,894	126,228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79,794	90,040	88,191
	비영리민간단체	54,028	68,714	51,290
	사회복지법인	44,706	47,286	46,574
	상법상회사	107,861	114,419	118,1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3,119	107,336	110,580
	영농조합법인	170,535	174,186	224,31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2,237	84,387	93,217
	기타	47,479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인증연도별로는 2016년 인증기업(약 1억 6천만 원)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고, 2014년 인증기업(약 1억 4천만 원), 2013년 인증기업(약 1억 3천만 원)도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았다. 반면 2007~2010년도 인증기업이 약 7천만~8천만 원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고하였다. 한편, 2009년, 2014~2018년 인증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에서 최근 3년간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2018년 약 1억 3백만 원에서 2019년 약 1억 4백만 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2020년에 9천7백만 원으로 다소 하락된 노동생산성을 보고하였다. 혼합형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약 6천만 원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약 6천4백만 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나 지역사회공헌형의 약 절반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은 2018년과 2019년 약 1억 7천만 원, 2020년에 약 2억 2천만 원으로 매년 노동생산성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각각 약 4천 7백만 원과 약 5천 1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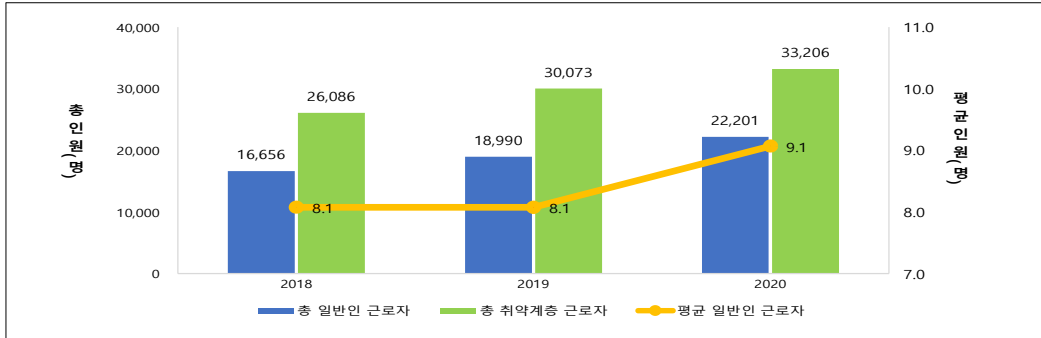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마지막 측정으로, 이하에서는 일반인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4-68]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총 일반인 근로자의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총 일반인 근로자와 총 취약계층 근로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18년 16,656명, 2019년 18,990명, 2020년 22,201명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 또한 2018년 26,086명, 2019년 30,073명, 2020년 33,206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2018년 8.1명에서 2019년 8.1명으로 유지하였고, 2020년에도 9.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68]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에 제시된 <표 4-14>는 각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에서 세종지역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을 나타낸 곳은 서울(11.7명), 강원(11.6명), 경기(11.3명), 경북(10.0명)이었다. 반면, 전남(5.5명)과 인천(5.4명), 울산(5.9명)은 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보고하였다.

&lt;표 4-14&gt;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단위: 명)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서울	11.7
부산	6.2
대구	6.3
인천	5.4
광주	6.9
대전	9.0
울산	5.9
세종	14.6
경기	11.3
강원	11.6
충북	8.1
충남	7.8
전북	6.9
전남	5.5
경북	10.0
경남	9.0
제주	7.6
전체	9.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의 <표 4-15>에서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수와 평균을 살펴보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근로자 수는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인증연도가 최근 기업보다 더 많고, 최근 인증 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총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군은 2020년 인증기업이었고(2,871명), 가장 적은 기업은 2012년 인증기업이었다(733명).

<표 4-15>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2007	940	26.9	946	28.7	983	28.9
2008	1,105	10.3	1,089	12.1	1,278	14.0
2009	651	11.4	793	18.4	836	17.8
2010	1,508	10.6	1,548	12.8	1,578	12.7
2011	1,421	13.2	1,158	12.5	1,053	11.6
2012	918	7.7	885	8.8	733	7.5
2013	1,705	8.2	1,764	10.3	1,811	11.0
2014	1,559	7.2	1,489	8.6	1,579	8.9
2015	2,380	9.2	2,406	11.5	2,105	10.4
2016	1,571	6.3	1,571	7.1	1,669	8.1
2017	1,152	4.6	1,258	5.5	1,347	6.3
2018	1,746	5.6	1,964	7.2	2,049	7.6
2019	-	-	2,119	6.0	2,309	6.6
2020	-	-	-	-	2,871	7.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다음의 <표 4-16>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일자리제공형의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14,611명이었다. 일자리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약 1천5백~3천 명 사이의 근로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매년 조금씩 총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1,058명에 그쳤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평균이 2018년 11.7명, 혼합형의 평균이 2019년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는 다시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평균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lt;표 4-16&gt;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18		2019		2020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일자리제공형	10,702	7.7	12,132	8.6	14,611	9.0
사회서비스제공형	1,459	11.7	1,549	11.3	1,833	11.4
혼합형	1,701	9.2	1,902	11.8	1,643	9.9
기타(창의·혁신)형	2,267	9.3	2,671	9.8	3,056	9.5
지역사회공헌형	527	4.4	736	5.8	1,058	6.3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조직형태에 따라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구분한 내용은 다음의 <표 4-17>에서 제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법상회사에서 고용한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2018년 10,376명, 2019년 11,250명, 2020년 14,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0년 기준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법인도 각각 3,698명과 2,659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3년간 각각 41명, 64명, 105명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11.1명으로 가장 많은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법상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평균 약 11명에 가까운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농조합법인(5.1명), 비영리민간단체(3.9명)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17&gt;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18		2019		2020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민법상법인	2,554	9.4	2,948	10.7	2,659	10.6
비영리민간단체	392	3.8	502	5.1	231	3.9
사회복지법인	617	9.3	644	11.1	801	11.1
상법상회사	10,376	8.0	11,250	8.5	14,326	8.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1	8.2	64	7.1	105	10.5
영농조합법인	268	3.5	298	5.0	381	5.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08	10.2	3,284	11.6	3,698	10.6
기타	-	-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4-18>은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44만 원, 평균근로시간은 36.4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강원(약 288만 원), 경기(약 274만 원), 경북(약 274만 원), 제주(약 257만 원), 광주(약 241만 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임금을 보고하였고, 경남(약 192만 원), 울산(약 199만 원), 대구(약 184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 평균근로시간은 경북(40.2시간), 전남(38.3시간), 강원(38.1시간), 광주와 제주(37.8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경남(32.1시간)과 대구(33.3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지역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서울	2,389	36.4
부산	2,012	35.9
대구	1,837	33.3
인천	2,138	36.0
광주	2,405	37.8
대전	2,221	36.8
울산	1,991	35.9
세종	2,270	36.3
경기	2,737	35.7
강원	2,884	38.1
충북	2,400	36.7
충남	2,127	34.9
전북	2,377	36.6
전남	2,277	38.3
경북	2,736	40.2
경남	1,923	32.1
제주	2,566	37.8
전체	2,444	36.4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다음 <표 4-19>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을 나타낸다. 2020년을 기준으로 2015년 인증기업이 일반인 근로자의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296만 원)을 보고하였고, 2011년 인증기업이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37.9시간)을 보고하였다.

최근 3년 동안 평균임금은 2007년, 2008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은 대체로 최근 3년 동안 35시간 내외의 수준에서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표 4-19>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8		2019		2020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2007	2,276	37.2	2,190	34.8	2,305	34.6
2008	2,166	35.0	2,404	34.9	2,379	34.7
2009	1,772	32.5	1,882	33.0	2,110	33.5
2010	2,430	35.6	2,469	35.0	2,636	37.2
2011	2,339	38.3	2,410	37.7	2,585	37.9
2012	1,997	35.0	2,222	34.5	2,526	37.2
2013	1,953	34.1	1,987	33.2	2,206	35.4
2014	2,134	37.1	2,222	36.5	2,266	37.0
2015	2,347	35.4	2,584	36.0	2,956	36.4
2016	2,161	38.1	2,268	37.3	2,426	37.7
2018	2,125	37.3	2,285	37.4	2,413	37.4
2019	2,078	35.8	2,217	35.5	2,338	36.8
2020	-	-	2,180	36.0	2,295	36.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표 4-20>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이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259만 원)을 보고한 반면에, 평균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이 38.2시간으로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0>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8		2019		2020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2,331	37.1	2,434	36.7	2,592	37.3
사회서비스제공형	1,811	32.8	1,926	30.9	1,904	32.6
혼합형	1,567	31.5	1,706	31.4	1,893	32.8
기타(창의·혁신)형	2,133	35.9	2,188	35.9	2,394	35.9
지역사회공헌형	2,137	38.7	2,183	38.2	2,339	38.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아래 <표 4-21>은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이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약 311만 원)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과 가장 긴 평균근로시간(약 38.8시간)을 보인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약 184만 원의 가장 낮은 평균임금을 보였고 평균근로시간이 33.5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표 4-21>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18		2019		2020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민법상법인	2,017	35.4	2,082	34.7	2,220	35.4
비영리민간단체	1,843	32.4	2,142	33.1	1,835	33.5
사회복지법인	2,876	39.3	2,906	39.1	3,108	38.8
상법상회사	2,258	36.5	2,398	36.3	2,569	3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36	32.3	1,712	33.9	1,900	33.9
영농조합법인	2,152	39.7	2,193	38.8	2,271	38.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68	34.2	1,942	33.6	2,052	34.7
기타	-	-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5>와 <표 부가분석 4-6>에는 앞서 정리한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일반근로자와 취약근로자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유급근로자

###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18, 2019, 2020)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항목		2018	2019	2020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42,742	49,063	55,407	
	인증연도	2007	2,267	2,260	1,950
		2008	3,019	3,048	3,352
		2009	2,129	2,540	2,427
		2010	3,711	3,818	3,893
		2011	3,605	3,150	2,685
		2012	2,369	2,214	1,916
		2013	4,219	4,473	4,396
		2014	4,391	4,409	4,473
		2015	5,578	5,730	5,371
		2016	3,999	4,007	4,033
		2017	3,071	3,158	3,174
		2018	4,384	5,118	5,603
	2019	-	5,138	5,650	
	2020	-	-	6,484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0,661	35,420	41,725
		사회서비스제공형	3,118	3,406	3,769
		혼합형	4,989	5,395	4,175
		기타(창의·혁신)형	2,974	3,579	3,995
		지역사회공헌형	1,000	1,263	1,743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6,717	7,390	6,650	
	비영리민간단체	1,112	1,458	487	
	사회복지법인	2,530	2,552	2,981	
	상법상회사	26,494	29,480	35,58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1	151	235	
	영농조합법인	671	686	78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053	7,346	8,685	
	기타	4	-	0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평균임금	1,827	1,917	2,028	
	인증연도	2007	1,977	1,936	1,990
		2008	1,607	1,807	1,801
		2009	1,454	1,615	1,698
		2010	2,028	2,120	2,166
		2011	1,925	1,967	2,008

항목		2018	2019	2020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연도	2012	1,676	1,852	2,002
		2013	1,606	1,631	1,750
		2014	1,739	1,762	1,792
		2015	2,160	2,348	2,580
		2016	1,814	1,918	2,010
		2017	1,842	1,996	2,110
		2018	1,792	1,889	1,941
		2019	-	1,847	1,913
		2020	-	-	2,25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887	1,972
	사회서비스제공형		1,554	1,692	1,682
	혼합형		1,474	1,539	1,606
	기타(창의·혁신)형		2,033	2,104	2,271
	지역사회공헌형		1,994	2,052	2,209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689	1,760	1,760
		비영리민간단체	1,382	1,602	1,593
		사회복지법인	1,581	1,672	1,718
		상법상회사	1,946	2,044	2,17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62	1,514	1,745
		영농조합법인	1,897	2,006	2,10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617	1,710	1,746	
기타	1,213	-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전체 평균 시간		34.1	33.1	33.6
	인증연도	2007	36.1	33.7	33.5
		2008	31.4	31.0	31.1
		2009	29.5	30.3	29.2
		2010	33.9	33.4	34.6
		2011	36.5	35.1	35.2
		2012	32.6	32.2	33.3
		2013	31.8	30.4	31.6
		2014	34.0	32.1	32.5
		2015	36.0	35.5	35.7
		2016	35.3	34.7	34.7
		2017	35.2	35.3	35.4
		2018	33.8	32.9	33.3
		2019	-	32.5	33.0
	2020	-	-	34.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4.8	33.8	34.0
		사회서비스제공형	30.4	28.6	30.3
		혼합형	30.3	29.2	29.4
		기타(창의·혁신)형	35.3	35.3	35.1
		지역사회공헌형	38.4	37.2	37.7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3.3	32.2	31.8	
	비영리민간단체	30.4	30.0	29.9	
	사회복지법인	33.4	32.4	32.3	
	상법상회사	34.8	33.9	34.4	



항목		2018	2019	2020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조직형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2	31.2	33.6
		영농조합법인	38.4	37.8	37.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1	31.2	31.8
		기타	30.0	-	-
전체 취약근로자 수	전체	26,086	30,073	33,206	
	인증연도	2007	1,327	1,314	967
		2008	1,914	1,959	2,074
		2009	1,478	1,747	1,591
		2010	2,203	2,270	2,315
		2011	2,184	1,992	1,632
		2012	1,451	1,329	1,183
		2013	2,514	2,709	2,585
		2014	2,832	2,920	2,894
		2015	3,198	3,324	3,266
		2016	2,428	2,436	2,364
		2017	1,919	1,900	1,827
		2018	2,638	3,154	3,554
		2019	-	3,019	3,341
	2020	-	-	3,61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9,959	23,288	27,114
		사회서비스제공형	1,659	1,857	1,937
		혼합형	3,288	3,493	2,532
		기타(창의·혁신)형	707	908	939
		지역사회공헌형	473	527	684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4,163	4,442	3,991
		비영리민간단체	720	956	256
		사회복지법인	1,913	1,908	2,180
		상법상회사	16,118	18,230	21,25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0	87	130
		영농조합법인	403	388	40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645	4,062	4,987
기타		4	-	0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1,605	1,690	1,749	
	인증연도	2007	1,766	1,753	1,669
		2008	1,285	1,476	1,445
		2009	1,314	1,494	1,481
		2010	1,753	1,882	1,845
		2011	1,656	1,709	1,636
		2012	1,473	1,605	1,678
		2013	1,370	1,400	1,430
		2014	1,522	1,528	1,533
		2015	2,021	2,176	2,338
		2016	1,590	1,692	1,716
		2017	1,671	1,805	1,887
		2018	1,602	1,684	1,713
		2019	-	1,613	1,649
		2020	-	-	2,028

항목		2018	2019	2020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648	1,732	1,789
		사회서비스제공형	1,328	1,496	1,471
		혼합형	1,425	1,448	1,419
		기타(창의·혁신)형	1,713	1,857	1,869
		지역사회공헌형	1,835	1,868	2,008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487	1,546	1,454
		비영리민간단체	1,131	1,318	1,374
		사회복지법인	1,163	1,256	1,208
		상법상회사	1,745	1,826	1,9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34	1,368	1,621
		영농조합법인	1,728	1,863	1,94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389	1,522	1,520
	기타	1,213	-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전체	32.9	31.6	31.7	
	인증연도	2007	35.3	32.8	32.3
		2008	29.4	28.8	28.9
		2009	28.2	28.8	26.9
		2010	32.9	32.7	32.9
		2011	35.4	33.8	33.4
		2012	31.3	30.8	30.9
		2013	30.3	28.7	28.9
		2014	32.3	29.8	30.0
		2015	36.6	35.1	35.3
		2016	33.6	33.2	32.5
		2017	34.0	33.8	34.0
		2018	32.5	31.3	31.3
		2019	-	30.2	30.6
	2020	-	-	33.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3.6	32.3	32.2
		사회서비스제공형	28.6	26.5	28.0
		혼합형	29.7	28.1	27.2
		기타(창의·혁신)형	33.1	33.6	32.8
		지역사회공헌형	38.3	36.1	36.8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2.0	30.6	29.4	
	비영리민간단체	29.5	28.6	26.7	
	사회복지법인	31.6	30.3	29.9	
	상법상회사	33.7	32.5	3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8.1	29.6	33.2	
	영농조합법인	37.8	37.2	36.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0.2	29.0	29.7	
기타	30.0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수	전체	16656	18990	22,201	
	인증연도	2007	940	946	983
		2008	1,105	1,089	1,278

항목		2018	2019	2020	
일반인 근로자 수	인증연도	2009	651	793	836
		2010	1,508	1,548	1,578
		2011	1,421	1,158	1,053
		2012	918	885	733
		2013	1,705	1,764	1,811
		2014	1,559	1,489	1,579
		2015	2,380	2,406	2,105
		2016	1,571	1,571	1,669
		2017	1,152	1,258	1,347
		2018	1,746	1,964	2,049
		2019	-	2,119	2,309
		2020	-	-	2,87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0,702	12,132	14,611
		사회서비스제공형	1,459	1,549	1,832
		혼합형	1,701	1,902	1,643
		기타(창의·혁신)형	2,267	2,671	3,056
		지역사회공헌형	527	736	1,059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554	2,948	2,659
		비영리민간단체	392	502	231
		사회복지법인	617	644	801
상법상회사		10,376	11,250	14,3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1	64	105	
영농조합법인		268	298	38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08	3,284	3,698	
기타	-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2,175	2,275	2,444	
	인증연도	2007	2,276	2,190	2,305
		2008	2,166	2,404	2,379
		2009	1,772	1,882	2,110
		2010	2,430	2,469	2,636
		2011	2,339	2,410	2,585
		2012	1,997	2,222	2,526
		2013	1,953	1,987	2,206
		2014	2,134	2,222	2,266
		2015	2,347	2,584	2,956
		2016	2,161	2,268	2,426
		2017	2,125	2,285	2,413
		2018	2,078	2,217	2,338
	2019	-	2,180	2,295	
	2020	-	-	2,53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331	2,434	2,592
		사회서비스제공형	1,811	1,926	1,904
		혼합형	1,567	1,706	1,893
		기타(창의·혁신)형	2,133	2,188	2,394
		지역사회공헌형	2,137	2,183	2,339

항목		2018	2019	2020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017	2,082	2,220
		비영리민간단체	1,843	2,142	1,835
		사회복지법인	2,876	2,906	3,108
		상법상회사	2,258	2,398	2,5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36	1,712	1,900
		영농조합법인	2,152	2,193	2,27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68	1,942	2,052
		기타	-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전체	36.1	35.6	36.4	
	인증연도	2007	37.2	34.8	34.6
		2008	35.0	34.9	34.7
		2009	32.5	33.0	33.5
		2010	35.6	35.0	37.2
		2011	38.3	37.7	37.9
		2012	35.0	34.5	37.2
		2013	34.1	33.2	35.4
		2014	37.1	36.5	37.0
		2015	35.4	36.0	36.4
		2016	38.1	37.3	37.7
		2017	37.3	37.4	37.4
		2018	35.8	35.5	36.8
	2019	-	36.0	36.6	
	2020	-	-	36.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7.1	36.7	37.3
		사회서비스제공형	32.8	30.9	32.6
		혼합형	31.5	31.4	32.8
		기타(창의·혁신)형	35.9	35.9	35.9
		지역사회공헌형	38.7	38.2	38.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5.4	34.7	35.4
		비영리민간단체	32.4	33.1	33.5
사회복지법인		39.3	39.1	38.8	
상법상회사		36.5	36.3	3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3	33.9	33.9	
영농조합법인		39.7	38.8	38.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4.2	33.6	34.7	
기타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lt;표 부가분석 4-6&gt;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유급근로자 수	13,461	2,197	1,221	2,606	1,827	1,309	1,442	804	13,730	3,153	1,750	1,726	2,282	1,538	3,166	2,135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166	2,523	13	573	4,259	14,515	140	10,571	1,139	1,948	299	29	776	13,920	902	2,076	558	
전체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54	1,750	1,680	1,720	1,919	1,959	1,750	1,717	2,235	2,688	1,974	1,876	2,088	2,016	2,355	1,754	2,055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243	1,860	2,881	1,887	2,116	1,597	2,230	2,151	1,828	1,817	2,247	2,172	2,478	1,938	2,344	4,909	1,661	
전체 유급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9	33.6	32.0	32.3	33.2	36.1	34.3	32.8	33.7	36.6	33.8	33.6	34.2	36.1	37.3	31.9	33.2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7.1	34.0	30.6	36.4	36.1	29.9	36.8	34.7	32.5	32.3	39.4	38.2	36.7	34.1	37.2	40.1	32.9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취약근로 자 수	7,980	1,423	646	1,859	1,056	734	920	571	8,724	1,727	972	989	1,315	859	1,632	1,200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09	943	-	329	1,880	9,446	58	7,683	666	672	170	16	300	8,739	303	1,011	381	
전체 취약근로 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 분류	1,487	1,607	1,559	1,553	1,563	1,754	1,614	1,491	1,947	2,326	1,633	1,689	1,789	1,800	2,016	1,623	1,705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34	1,668	-	1,705	1,847	1,474	1,817	1,894	1,570	1,508	1,996	2,245	2,063	1,552	1,994	4,815	1,521	
전체 취약근로 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준산업 분류	289	323	309	309	299	356	334	314	326	354	315	326	325	344	346	317	300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56	323	-	351	347	287	379	332	304	302	300	384	340	315	350	400	312	

&lt;표 부가분석 4-6&gt;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인 근로자 수	5,481	774	575	747	771	575	522	233	5,006	1,426	778	737	967	709	1,534	935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557	1,580	13	244	2,379	5,069	82	2,888	473	1,276	129	13	476	5,181	599	1,065	177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89	2,012	1,857	2,138	2,405	2,221	1,991	2,270	2,737	2,884	2,400	2,127	2,377	2,277	2,736	1,923	2,566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471	1,974	2,881	2,132	2,328	1,828	2,522	2,837	2,191	1,980	2,578	2,083	2,745	2,589	2,521	5,176	1,962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4	35.9	33.3	36.0	37.8	36.8	35.9	36.3	35.7	38.1	36.7	34.9	36.6	38.3	40.2	32.1	37.8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8.6	35.0	39.6	38.2	37.2	32.2	36.1	38.6	35.4	33.5	39.9	38.0	38.5	38.6	38.3	40.3	36.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행정자료를 활용해 2018~2020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다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최근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해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구분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019년에 비해 386개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해, 2020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738개소.</li> <li>• 인증연도별로는 2018년 및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인증 기업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li> <li>•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6.1%),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66.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li> </ul>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전체의 지원금 총액은 376,526,633천 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1.0% 증가했으며, 지원금 총액 중 정부지원금이 67.6%를 차지하고 있음.</li> <li>•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전체평균은 139,196천 원이고 중위값 65,190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평균 127,162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중위값은 68,875천 원으로 소폭 상승함.</li> </ul>
취약계층 및 일반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0년 기준 33,2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19년에 비하여 감소함(12.1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혼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일자리제공형, 조직형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인 기업당 취약계층 유급근로자가 많음.</li> <li>•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0년 기준 22,201명.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19년에 비해 증가함(9.1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조직형태에서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법인에서 기업당 일반인 근로자 수가 많음.</li> <li>•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1,749천 원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1.7시간으로 증가했음. 일반인 평균임금은 약 2,444천 원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6.4시간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 일반인 평균임금대비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2019년에 비해 감소(71.6%).</li> </ul>



&lt;표 5-1&gt;의 계속

구분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0년 889개소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함.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전체 인원 5,494,902명, 중위값 210명으로 2019년에 비해 전체 수혜인원은 증가했으나 중위값은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li> <li>•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기업의 2020년 총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1,747,740명, 중위값은 655명으로 나타남. 2019년에 비해 총 수혜인원과 중위값은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li> <li>• 시계열자료 기술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중위값의 경우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li> </ul>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은 2,416개소, 기타회의체(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활용하는 주체는 728개소임. 2019년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2.5%, 수혜자 참여비율은 1.8%,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비율은 19.0%로 나타났고, 기타회의체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3.5%, 수혜자 참여비율은 10.6%, 지역사회구성원 참여비율은 18.9%로 나타남. 2019년과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li> </ul>
사회적 목적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기업 중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보고한 기업은 총 1,720개소이며, 전체 재투자액은 181,426,789천 원으로 나타남.</li> <li>• 기업 수로는 구성원 성과급, 총금액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구성원 성과급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기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던 반면,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음.</li> </ul>
수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5,293,913,658천 원을 보임.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1,955,638천 원, 중위값은 554,861천 원으로, 평균 및 중위값은 감소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 민간시장매출의 비중이 공공시장매출과 비슷한 수준임.</li> <li>• 2020년 영업이익 총액 11,203,040천 원, 평균 및 중위값은 각각 4,133천 원, -806천 원임. 2019년과 비교 했을 때 총액이나 평균, 중위값 모두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li> <li>• 당기순이익 총액은 139,739,052천 원, 평균 51,716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위값은 10,157천 원으로 다소 감소함.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기업의 비율은 66.5%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함.</li> </ul>
지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원가 총액은 3,431,400,790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매출원가 평균(1,799,371천 원)과 중위값(330,968천 원)은 모두 2019년에 비해 감소함.</li> <li>• 판매관리비(경비 포함) 총액은 2,262,581,746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9년에 비해 평균(834,285천 원)은 증가하였고, 중위값(358,683천 원)은 감소함.</li> <li>• 영업외비용 총액은 98,013,211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9년에 비해 영업외비용 평균(38,421천 원)은 증가하였고, 중위값(6,483천 원)은 감소함.</li> <li>• 노무비 총액은 1,443,046,364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9년에 비해 노무비 평균(533,276천 원)은 감소하였고, (223,235천 원)은 약소하게 증가함.</li> </ul>
노동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하여 2020년 평균 111,576천 원, 중위값은 다소 감소하여 60,620천 원을 나타냄.</li> </ul>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이나 성과는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성에 있어 예년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원금 총액은 2019년과 같이 민간 및 정부지원금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은 감소하였다. 이는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2019년에 2,256개소에서 2020년 2,705개소로 증가하였고, 지원금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기관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에는 정부지원과 모기관지원의 비율이 높았다면 2020년에는 기타 민간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기타 민간지원금의 경우에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기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타 민간지원금의 급격한 증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급근로자 총인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평균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근로자 수는 201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에 사회적기업이 증가한 수치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당 고용인원이 다소 정체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평균임금은 취약계층, 일반인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총 매출액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평균 매출액과 매출액 중위값은 하락하였으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 개선되었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 다시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살펴보면 혼합형(-41,286천 원)과 사회서비스제공형(-28,389천 원)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공헌형(-16,461천 원)이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제공형은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영업손실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표 부가분석 3-2>의 분석을 통해 교육 서비스업 분야 수혜자 비중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교육 서비스업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였다. 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에 당기순이익 총액과 평균은 증가하였지만, 중위값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0년에 0원 이하의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증

가하였고 특히 5천만 원 미만의 손실이 발생한 곳이 크게 증가(4.7%p)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가 실제 현상을 반영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길현중 외, 2020), 자료를 통한 양적분석과 더불어 일부 사회적기업 사례에 대한 질적분석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받는 영향이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빈도, 확진자 수,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적인 영향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사회적기업의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강병노(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고, 자발적 배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업무 비효율성, 휴업, 폐업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020년 8월 조사).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과 연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대응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상담과 같은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접근성과 수요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목적 실현과 혁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역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 원격기술, 방역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물적·인적 자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고 적절하고 세부적인 지원 전략 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부록1]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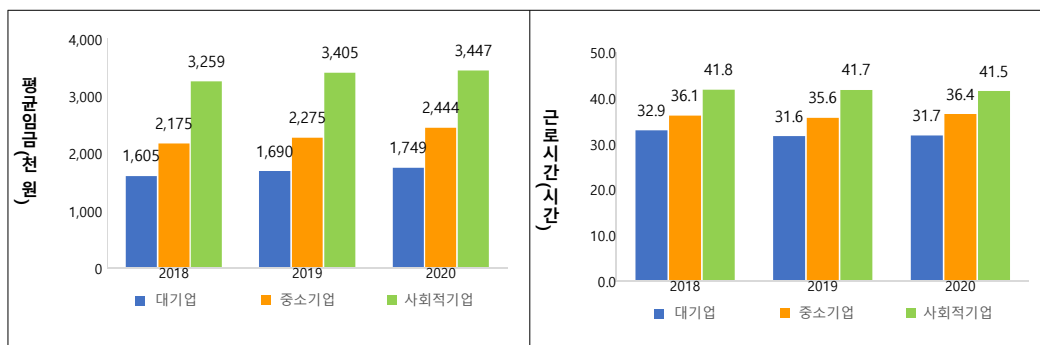
### 제1절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비교

[부록]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련정책 자료 및 연구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상대적인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제동향,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객관적인 성과를 파악할 것이며, 생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인증연도별, 인증유형별 조직형태별 추가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비교

먼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을 전국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1]과 같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3.5% 증가하였고, 일반인 평균임금은 7.4% 증가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임금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과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의 경우 취약계층 평균근로시간은 2019년에 4%감소 2020년에 0.4% 증가하였고, 일반인 평균근로시간은 2019년에 1.4%감소, 2020년에는 2.3% 증가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근로시간은 2019년에 0.2% 감소, 2020년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 감소율은 2019년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시간 증가 현상은 사회적기업이 2019년에 평균근로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2020년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부1-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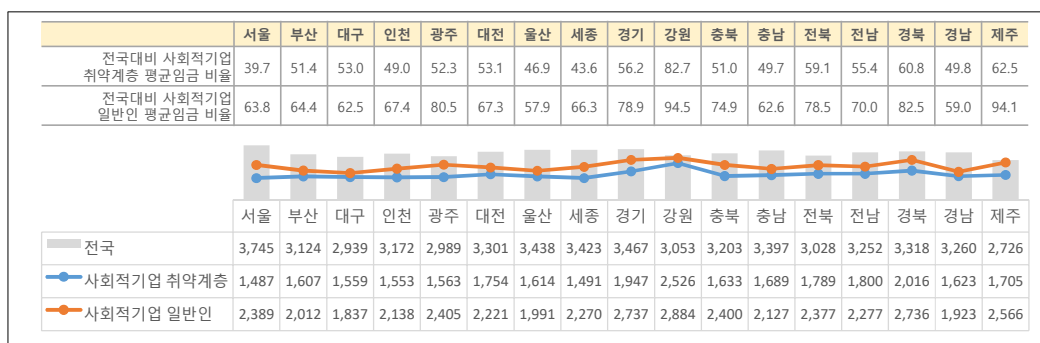


주: 주당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시간/상용근로일수\*5'로 산출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고용노동부(2020a).

다음으로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부1-2]와 같다. 2020년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은 서울 3,745천 원, 경기 3,467천 원, 울산 3,438천 원, 세종 3,423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은 강원이 2,52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2,016천원, 경기 1,947천 원, 전남 1,800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은 강원이 2,884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737천 원, 경북 2,016천 원, 경기 1,947천 원, 전남 1,800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체로 수도권의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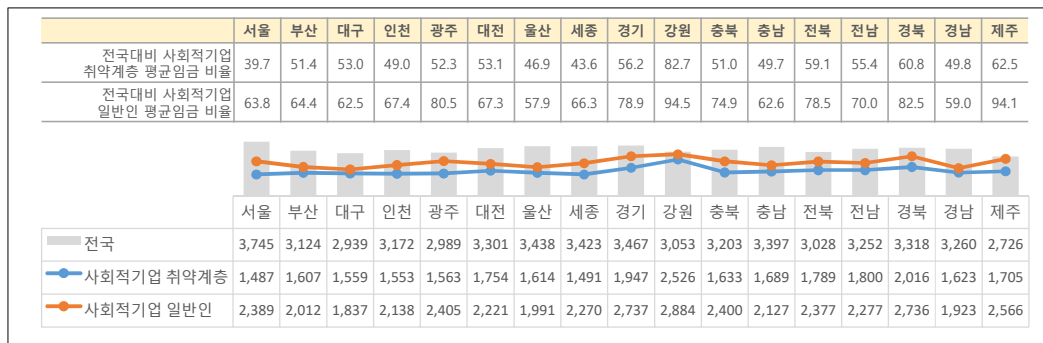
[그림 부1-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고용노동부(2020a).

다음으로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부1-3]와 같다. 2020년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세종이 42.5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 42.2시간, 경남 42.1시간, 경기 42.0시간, 울산, 경북, 충북은 41.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대전이 35.6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35.4시간, 경북 34.6시간, 전남 34.4시간, 울산 33.4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경북이 40.2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3시간, 강원 38.1시간, 광주와 제주는 37.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시간 경북을 제외하고 모두 40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모두 4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평균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은 지역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비교적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그림 부1-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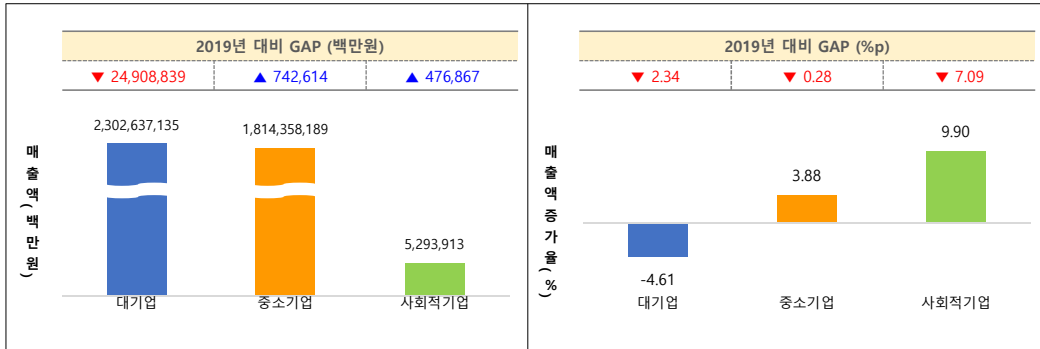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고용노동부(2020a).

##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2020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4]와 같다. 2020년 매출액은 대기업이 2,302조 6,371억 원, 중소기업이 1,814조 3,581억 원, 사회적기업이 5조 2,939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 -4.61%, 중소기업 3.88%, 사회적기업 9.9%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 및 기업 수의 차이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현저히 작을 수밖에 없으나, 타 기업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수의 증가로 매출액 총액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 증가율은 타기업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부1-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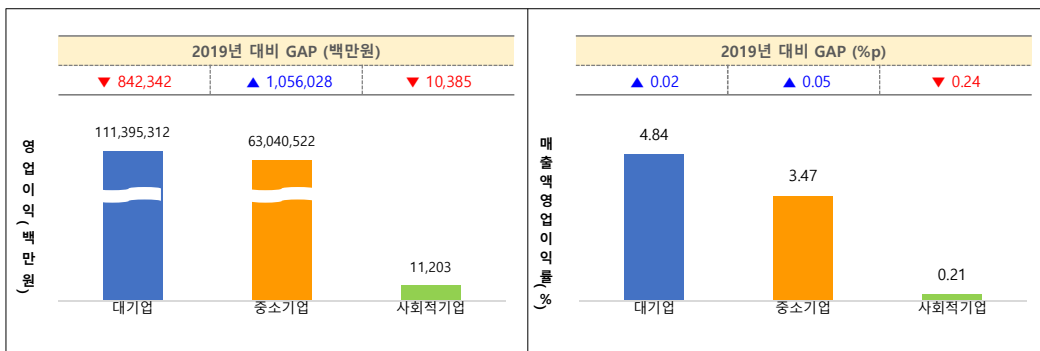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7,339개소, 중소기업 792,06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국은행(2020).

###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2020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5]와 같다. 2020년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111조 3,953억 원, 중소기업이 63조 405억 원, 사회적기업이 112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4.84%, 중소기업 3.47%, 사회적기업이 0.21%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계산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타 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영업효율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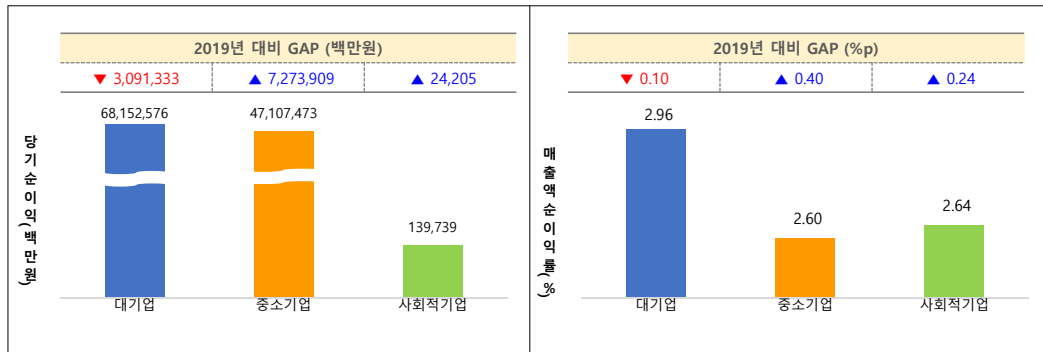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7,339개소, 중소기업 792,06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국은행(2020).

####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의 비교

2020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6]과 같다. 2020년 당기순이익은 대기업이 68조 1,5253억 원, 중소기업 47조 1,074억 원, 사회적기업이 1,397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 2.96%, 중소기업 2.60%, 사회적기업 2.64%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 대비 낮지만, 중소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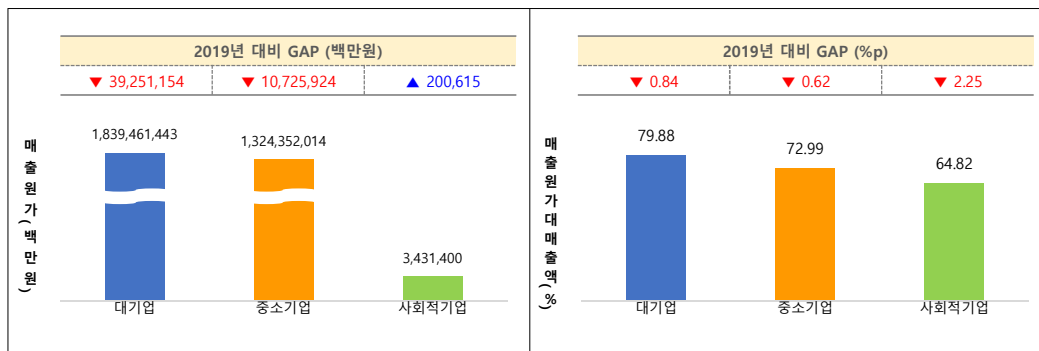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7,339개소, 중소기업 792,06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국은행(2020).

####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의 비교

2020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7]과 같다. 2020년 매출원가는 대기업이 1,839조 4,614억 원, 중소기업 1,324조 3,520억 원, 사회적기업이 3조 4,314억 원으로 나타났고, 매출원가 총액 대비 매출액 총액 비율은 대기업 79.88%, 중소기업이 72.99%, 사회적기업이 64.82%로 나타났다. 매출원가대매출액은 기업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타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기업원가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대매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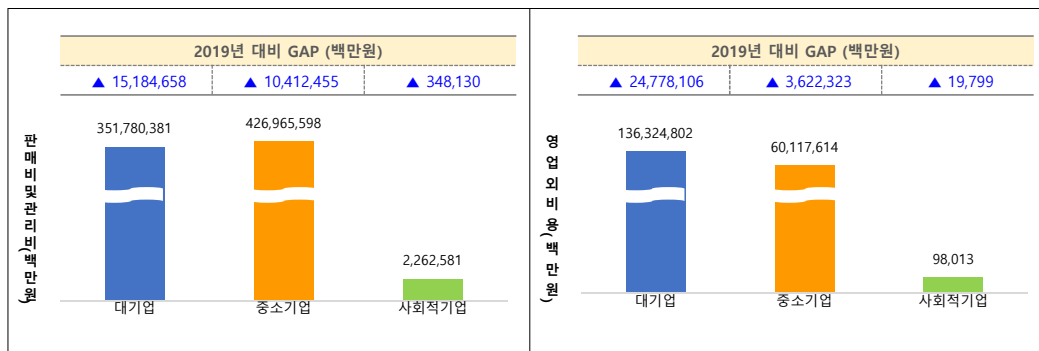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7,339개소, 중소기업 792,06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국은행(2020).

## 6. 비용구조: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2020년 비금융 비영리법인기업과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1-8]과 같다. 2020년 판매비는 대기업이 351조 7,803억 원, 중소기업 426조 9,655억 원, 사회적기업이 2조 2,625억 원으로 나타났고, 영업외비용은 대기업이 136조 3,248억 원, 중소기업이 60조 1,176억 원, 사회적기업이 98억 원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총액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8]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주: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대기업 7,339개소, 중소기업 792,06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8, 2019, 2020), 한국은행(2020).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0), 20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_\_\_\_\_ (2020a), 행정구역(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6),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 관계부처합동(2018),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
- 강병노(2020), COVID-19 신사회적 재난의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의 질과 대응전략, 협동조합경영연구, 53(1), 17-39.
- 김진영·서지애(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여건 및 고용변화: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길현종·류성민·임창규·배정희(2013), 201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길현종·이경희·이영수·안승재·김성용(2018), 2017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길현종·이경희·이영수·김성용·안승재(2019), 201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길현종·이경희·이영수·김성용·안승재(2020), 2019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한민국정부(2020), 100대 국정과제.
- 보건복지부(2020a), 자활사업안내.
- \_\_\_\_\_ (2020b),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중소벤처기업부(2019), 소셜벤처 육성 본격나선다,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2019년 소셜벤처 실  
태조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a), 한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_\_\_\_\_(2020b),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KNSE(2017), 사회적기업, 그 10년과 사회변화, 새로운 발  
전과제 모색.  
한국은행(2020), 국내 비금융 비영리법인 기업의 경영성과.  
행정안전부(2020),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likms.assembly.go.kr

www.coop.go.kr

www.kdissw.or.kr

www.mois.go.kr

www.socialenterprise.or.kr

www.seis.or.kr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박선하(2019.06.27.),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위장 기업 막으려면?..고용부, 등록제 TF 논의 결과  
첫 공개, 더나은미래, 2021.12.08.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2119>

##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발행인: 정현곤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대표전화: 031-697-7700

팩스: 031-697-7853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쇄처: 프린트엠(02-2264-1010)

ISSN: 2799-8061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